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금지 화행 교육 방안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주결
(周潔, ZHOU JIE)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금지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지도교수 민병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전공
주결 (周潔, ZHOU JIE)

주결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김호정 ㊞

부 위 원 장 구본관 ㊞

위 원 민병곤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금지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양상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다양한 화용적 실패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들이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할 때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용적 측면에서 대화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금지 화행은 체면 위협 정도가 높은 화행 중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화 시 상대방의 부담감을 줄이거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뛰어난 화용적 능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중국인 학습자들은 화용적 교육을 따로 받지 못한 채 문법적 지식에만 의존하고 발화하여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연구 분야에서 그간 금지 화행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학습자 집단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 연구 또한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금지 화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화행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의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하였고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금지 화행 및 화용적 실패 두 가지 측면에서 선행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밝혔고 본 연구가 어떠한 점에서 다른 연구와 차별화되는지 논의하였다. 끝으로 연구의 방법 및 대상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주관식 서면 담화완성테스트(DCT)를 채택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모어 화자 세 집단에서 각각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Ⅱ장에서는 화행에 관한 이론, 공손 원리에 관한 이론, 화용적 실패에 관한 이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본 연구의 논의를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금지 화행의 범위, 금지 전략 및 표현의 유형을 설명하였으며, 전략 사용 양상 분석 및 화용적 실패 분석에 적용할 두 개의 분석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

Ⅲ장에서는 우선적으로 DCT의 금지 상황 설계를 위한 변인을 설정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서 예비 문항을 보완·수정하여 본 조사의 문항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이어서 금지 화행 전략 양상 분석 단계에서는 집단별 전체 분석, 변인에 따른 분석, 상황별 분석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세 집단의 주화행 및 보조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에 변인에 따른 분석은 또 다시 기능, 사회적 거리, 상대적 힘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주화행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대안 제시하기' 전략을 가장 선호한 반면에 학습자 집단이 '명시적 금지하기'를 제일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다수의 개별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도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보조화행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보다 학습자 집단이 보조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금지 화행을 조심스럽게 수행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금지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 '상대적 힘'이 학습자 집단의 전략 선택에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화용적 실패에 대한 분석은 크게 화용언어적 실패와 사회화용적 실패 두 가지로 분류하며 화용적 실패를 유발한 구체적인 요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가 화용언어적 및 사회화용적 두 측면 모두에서 곤란을 겪는 상황임이 밝혀졌는데, 특히 화용언어적 요소, 특히 통사적 완화장치의 부적절한 사용은 금지 화행에서의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유발한 주요인임이 조사되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금지 화행 수행 과정에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금지 화행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교육 내용은 각종 변인에 따른 금지 상황 판단, 한국어 금지 화행 전략의 체계적 이해, 한국어 금지 표현

의 등급화 학습, 언어적 완화장치와 전략의 결합 사용 등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 방법인 역할극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업 모형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Ⅴ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결과를 다시 정리하여 요약하였고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의의와 후속 연구에 관해서 제언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라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한국어 금지 화행 전략 사용에 있어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두 집단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냈으며 금지 화행 수행 시 중국인 학습자가 범하는 화용적 실패 양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였다. 앞에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금지 화행 교육 내용을 마련하였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금지 화행의 주화행 및 보조화행의 전반에 걸쳐 학습자의 전략 사용 양상을 전체적, 변인별, 상황별로 면밀하게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금지 화행에서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양상에 대한 고찰을 처음으로 시도하였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금지 화행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데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다.

* **주요어:** 한국어 교육, 화행 교육, 금지 화행, 화용적 실패,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 **학 번:** 2019-21539

차 례

국문 초록 ····· i

차 례 ····· iv

Ⅰ. 서론 ·····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1.2. 선행 연구 ····· 4

1.2.1. 금지 화행에 관한 연구 ····· 4

1.2.2. 화용적 실패에 관한 연구 ····· 8

1.3. 연구 방법 및 대상 ····· 13

Ⅱ. 이론적 배경 ····· 17

2.1. 화행에 관한 이론 ····· 17

2.1.1. 화행 이론 ····· 17

2.1.2. 금지 화행에 대한 기본적 논의 ····· 20

1) 금지 화행의 정의 및 범위 ····· 20

2) 금지 화행의 구성단위 ····· 27

3) 금지 화행의 표현 및 전략 ····· 28

2.2. 공손성에 관한 이론 ····· 45

2.3. 화용적 실패에 관한 이론 ····· 50

2.3.1. 화용적 능력의 정의 ····· 50

2.3.2. 화용적 실패의 정의 및 유형 ····· 51

Ⅲ. 금지 화행 조사 및 결과 분석 ····· 58

3.1. 금지 상황 설계 ····· 58

3.2.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분석 ····· 65

3.2.1. 집단별 전체 분석 ····· 65

3.2.2. 변인별 전략 분석 ····· 70

1) 기능에 따른 분석 ····· 70

2) 사회적 거리에 따른 분석 ····· 82

3) 상대적 힘에 따른 분석 ····· 89

3.2.3. 상황별 전략 분석 ····· 99

3.3. 화용적 실패에 대한 분석 ····· 129

3.3.1. 화용언어적 실패 분석 ····· 132

1) 호칭 ····· 132

2) 통사적 완화장치 ····· 134

3) 존대법 ····· 136

4) 관례어 ····· 138

3.3.2. 사회화용적 실패 분석 ····· 141

1) 사회적 관계 ····· 141

2) 가치관 ····· 142

3.4. 종합논의 ····· 144

3.4.1. 금지 화행 전략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144

3.4.2. 화용적 실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 148

Ⅳ. 금지 화행 교육 방안 설계 ····· 151
4.1. 금지 화행 교육의 목표 ····· 151
4.2. 금지 화행 교육의 내용 ····· 153
4.2.1. 각종 변인에 따른 금지 상황 판단 ····· 153
4.2.2. 한국어 금지 화행 전략의 체계적 이해 ····· 155
4.2.3. 한국어 금지 표현의 등급화 학습 ····· 159
4.2.4. 언어적 완화장치와 전략의 결합 사용 ····· 164
4.3. 금지 화행 교육의 방법 ····· 167
4.4. 금지 화행 교육의 실제 ····· 172
4.4.1. 준비 단계 ····· 172
4.4.2. 1차 시연 및 검토 단계 ····· 174
4.4.3. 교육 단계 ····· 176
4.4.4. 2차 실연 및 평가 단계 ····· 177

Ⅴ. 결론 ····· 180

참고 문헌 ····· 184
부록 ····· 189
Abstract ····· 195

<표> 차 례

<표 Ⅰ-1> 한국어 화용적 실패에 관한 선행 연구 개요 ····· 9
<표 Ⅰ-2> 본 조사 응답자의 기본적 정보 ····· 15
<표 Ⅰ-3> 제시 기호 설명 ····· 16
<표 Ⅱ-1> 금지 화행 적정 조건(성은실, 2010:12) ····· 19
<표 Ⅱ-2> 금지 표현의 정의와 구성 요소(김영란, 1999:175) ····· 21
<표 Ⅱ-3> 김영란(1998)의 금지 표현 기능 분류 ····· 21
<표 Ⅱ-4> 관련 화행의 특징 및 금지 화행과의 상관성(성은실, 2010:16) ····· 22
<표 Ⅱ-5> 이은희(2014)의 한국어 금지 화행의 세부 기능 분류 ····· 24
<표 Ⅱ-6> 금지 표현의 유형 및 형식(김영란, 1998:84) ····· 30
<표 Ⅱ-7> 한국어 금지 표현 실현의 핵심 어휘(성은실, 2010:49) ····· 31
<표 Ⅱ-8> 간접성 등급화에 근거한 지시 화행 전략(이은희, 2014:53 재인용) ····· 32
<표 Ⅱ-9> 한국어 금지 화행의 전략 및 표현(이은희, 2014:68) ····· 33
<표 Ⅱ-10> 연구자별 한국어 요청, 금지 화행 전략 세분화 ····· 40
<표 Ⅱ-11> 금지 화행 전략 분석틀 ····· 43
<표 Ⅱ-12> 한국어교육에서 화용적 실패 관련 분류 ····· 54
<표 Ⅱ-13> 본 연구를 위한 화용적 실패 분석틀 ····· 57
<표 Ⅲ-1> 금지 화행 상황 설정을 위한 상황적절성 조사 결과 ····· 59
<표 Ⅲ-2> 본 실험을 위한 담화완성테스트 설문 상황 ····· 64
<표 Ⅲ-3>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1-10) ····· 65
<표 Ⅲ-4>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1-10) ····· 66
<표 Ⅲ-5>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1-10) ····· 68
<표 Ⅲ-6>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명령]) ····· 70
<표 Ⅲ-7>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명령]) ····· 71

<표 Ⅲ-8>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명령]) …… 73
<표 Ⅲ-9>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요청/부탁]) …… 74
<표 Ⅲ-10>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요청/부탁]) …… 75
<표 Ⅲ-11>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요청/부탁]) …… 77
<표 Ⅲ-12>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권유]) …… 78
<표 Ⅲ-13>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권유]) …… 79
<표 Ⅲ-14>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권유]) …… 80
<표 Ⅲ-15>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친) …… 82
<표 Ⅲ-16>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친) …… 83
<표 Ⅲ-17>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친) …… 84
<표 Ⅲ-18>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소) …… 86
<표 Ⅲ-19>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소) …… 86
<표 Ⅲ-20>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소) …… 88
<표 Ⅲ-21>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화자>청자) …… 90
<표 Ⅲ-22>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화자>청자) …… 90
<표 Ⅲ-23>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화자>청자) …… 92
<표 Ⅲ-24>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화자=청자) …… 93
<표 Ⅲ-25>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화자=청자) …… 94
<표 Ⅲ-26>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화자=청자) …… 95
<표 Ⅲ-27>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화자<청자) …… 96
<표 Ⅲ-28>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화자<청자) …… 97
<표 Ⅲ-29>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화자<청자) …… 98
<표 Ⅲ-30>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1) …… 99
<표 Ⅲ-31>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1) …… 100
<표 Ⅲ-32>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1) …… 102
<표 Ⅲ-33>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2) …… 103

<표 Ⅲ-34>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2) …… 104
<표 Ⅲ-35>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2) …… 105
<표 Ⅲ-36>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3) …… 106
<표 Ⅲ-37>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3) …… 107
<표 Ⅲ-38>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3) …… 108
<표 Ⅲ-39>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5) …… 110
<표 Ⅲ-40>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5) …… 111
<표 Ⅲ-41>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5) …… 112
<표 Ⅲ-42>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6) …… 113
<표 Ⅲ-43>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6) …… 114
<표 Ⅲ-44>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6) …… 115
<표 Ⅲ-45>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7) …… 116
<표 Ⅲ-46>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7) …… 117
<표 Ⅲ-47>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7) …… 118
<표 Ⅲ-48>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8) …… 119
<표 Ⅲ-49>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8) …… 120
<표 Ⅲ-50>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8) …… 121
<표 Ⅲ-51>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9) …… 122
<표 Ⅲ-52>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9) …… 123
<표 Ⅲ-53>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9) …… 124
<표 Ⅲ-54>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10) …… 126
<표 Ⅲ-55>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10) …… 126
<표 Ⅲ-56>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10) …… 128
<표 Ⅲ-5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요인별 분석 …… 131
<표 Ⅲ-58> 본 연구에서 화용적 실패의 의사소통 장애 유발 빈도 …… 149
<표 Ⅳ-1> 기능 변인에 관한 교육 내용 …… 154

<표 Ⅳ-2>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교육 내용(이은희, 2014:217) …… 156
<표 Ⅳ-3>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분류 예시(성천, 2019:41) …… 157
<표 Ⅳ-4> 본 연구의 금지 화행 전략 분류 체계 …… 158
<표 Ⅳ-5> 한국어 금지 어휘의 교수 방법(김영란, 1999:187) …… 160
<표 Ⅳ-6> 교육용 한국어 금지 표현 항목의 등급화(이은희, 2014:188) …… 161
<표 Ⅳ-7> 금지 표현에 관한 교육 내용 예시 …… 163
<표 Ⅳ-8> 어휘적 완화장치 분류(황선영, 2014:436) …… 165
<표 Ⅳ-9> 금지 화행 교육을 위한 역할극 수업 모형 …… 170
<표 Ⅳ-10> 수업 개요 …… 172
<표 Ⅳ-11> 1차 시연 기록 활동지 …… 175
<표 Ⅳ-12> 2차 실연 기록 활동지 …… 178
<표 Ⅳ-13> 최종 평가 활동지 …… 179

[그 림] 차 례

[그림 Ⅰ-1] 본 연구의 조사 절차 …… 16
[그림 Ⅱ-1]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 1987)의 공손 전략 …… 48

Ⅰ.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한국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언어지식뿐만 아니라 그 언어의 사회문화에 관한 지식, 예컨대 그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특유한 문화 구조 등의 지식 또한 요구된다. 황(Huang, 2007)에서는 상이한 언어문화에서 나타나는 화행의 차이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 모든 화행은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특정 맥락에서 일어나는 발화 행위는 다른 언어 문화권에서 다르게 수행될 수도 있다. 셋째, 동일한 화행임에도 불구하고 언어 문화권에 따라 청자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인과 서로 다른 문화 환경에서 성장해 온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인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학습자들은 한국어 화행 지식을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활용하려면 한국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화행을 수행할 수 있는 '화용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고급 수준의 목표어 능력을 갖춘 학습자라 할지라도 교육 없이는 학습자의 사회화용적 능력이 결국 모어 화자만큼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토머스(Thomas, 1983)를 비롯한 많은 화용론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즉, 사회생활에서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화용적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화용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화행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화행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화행 교육 관련 다양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화행 연구는 주로 거절, 불평, 요청, 사과 등에 집중해 왔으나 금지 화행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은희(2014)에서는 금지 화행이 '금지'라는 의미로 인해 교육적 측면에서 중시되지 않았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금지' 화행만을 단독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극히 드물고, 국어학 분야에서도 금지 화행은 문법 범주에서 일부 다루거나 지시 또는 요청 화행의 관점에서 일부 다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지 화행은 청자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발화 행위로서, 케르브라-오레치오니(Kerbrat-Orecchioni, 1996)의 체면 위협 행위(Face Threatening Act: FTA) 분류 기준[1]에 의하면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금지 화행은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공손성(politeness)에 관련된 내용은 필수적으로 연구되고 교수되어야 한다. 한편, 학습자가 담화 상황에 적절한 금지 화행 전략 또는 표현 형식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어색함 또는 무례함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화용적 실패로 이어진다. 이경숙(2012)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외국인 학습자들의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오류보다 화용적 실패에 더욱 민감하고 수용하기 어려워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간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서는 전략 사용 양상뿐만 아니라 금지 화행에서 나타난 화용적 실패 양상에도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

1) 케르브라-오레치오니(Kerbrat-Orecchioni, 1996:51-52)에서는 체면 위협 행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은 금지, 명령, 요청, 충고 등 있으며 청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으로는 반박, 비난, 욕, 조롱 등 있다. 화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은 약속, 제안 등 있으며 화자의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으로는 고백, 사과, 자기비하, 자기비판 등이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 분야를 놓고 보면 금지 화행 교육이 이렇게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기존의 한국어 금지 화행 연구는 모두 질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통계 수치를 통하여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전략만을 추출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학습자에 맞는 금지 화행 교육 방안을 마련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금지 화행에 대해 양적 연구 방식을 취하여 한국어 교육에서의 금지 화행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보다 풍성히 하고자 한다. 우선 고급 수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나타난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 집단 간의 차이점 및 원인을 탐구할 예정이다. 화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 공손성 등 요소에 대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금지 화행 수행 시 상이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서로 다른 전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 수행 양상을 변인별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금지 화행을 실현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범하는 화용적 실패 양상 및 원인을 밝힐 것이다. 끝으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구체적인 금지 화행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하였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금지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둘째,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화용적 실패 양상은 어떠한가?

셋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적절한 금지 화행 교육 내용 및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1.2. 선행 연구

1.2.1. 금지 화행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연구에서 금지를 명령 발화의 하위 부류로 간주하여 구분하는 데에 반하여 금지 화행을 독립적인 화행으로 분류하고 다룬 연구는 프레이저(Fraser, 1974), 바흐-하르니쉬(Bach-Harnish, 1979), 리치(Leech, 1983)가 있다. 프레이저(Fraser, 1974)에서는 발화 수반 행위를 크게 두 가지, 즉 일상 수행동사(vernacular performative verbs)와 의례적 수행동사(ceremonial performative verbs)로 구분하였고 발화문의 명제에 대해서는 청자가 이행하게 되는 화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여 일상 수행동사를 또 다른 8개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중에서 '금지하다(prohibit)'는 권위 행사 행위(Act of Exercising Author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바흐-하르니쉬(Bach-Harnish, 1979)에서는 발화 수반 의도에 따라 발화 수반 행위를 6개의 유형으로 대별하였는데 일반적인 통보적 발화 수반 행위(communicative illocutionary acts)가 그 중 하나이다. 해당 논의에 따르면, 금지 화행(prohibitives)은 통보적 발화 수반 행위에 속하는 지시 화행(directives)의 하나로 간주되고 수행동사로 '금하다(forbid)', '금지하다(prohibit)', '제한하다(restrict)' 등이 존재한다. 한편, 리치(Leech, 1983)에서는 수행동사를 화행동사의 한 하위 종류로 보고 있고 이를 5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 지시동사(directive verbs)의 하나로 '금지하다(forbid)'를 설정하였다.

금지 화행이나 금지 표현에 관해 국내에서 수행된 독립적인 연구는 한국어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국어학 분야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금지 화행이나 금지 표현을 하나의 독립된 주제로 탐

색한 연구는 김영란(1998, 1999), 성은실(2010), 이은희(2013, 2016), 팜밍리(2017), 성천(2019)에서 확인된다.

김영란(1998)에서는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금지 화행'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소설과 드라마 대본에서 금지 의미가 핵심 의미로 사용되는 자료를 상황과 함께 추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한국어 금지 화행을 실현하는 금지 표현의 형식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한국어 금지 표현의 통사적 구조는 금지 표현을 사용하는 화자의 언표내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 제1유형과 금지를 당하는 청자에 중점을 둔 제2유형으로 금지 표현 유형을 나누었고 해당 유형에 포함되는 금지 표현들도 함께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 금지 표현의 기능은 의미 기능과 화행 기능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도 금지 화행이 하나의 독립적인 범주로 논의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서 김영란(1999)에서는 한국어 금지 표현에 대한 김영란(1998)의 국어학적 논의와 한국어 교재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 금지 어휘와 금지 문형을 나누어 이에 대한 교수 방법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금지 표현의 교수 순서를 정하였고 하나의 효과적인 교수법을 탐색하였다.

성은실(2010)에서는 우선 금지 화행이 성립하는 조건을 살펴보았고 명령, 충고, 경고, 위협 화행의 특징 및 금지 화행과의 상관성을 정리함으로써 금지 화행의 개념에 대해서 화용론의 관점에서 재정의를 하였다. 이어서 표현의 관습화 정도에 중점을 두어 구어체와 문어체 말뭉치에서 금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들을 추출한 후 '화자', '청자', '행위'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금지 화행의 실현 기제를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는 금지 표현 목록을 고정적으로 설정하여 금지 표현의 형태, 통사, 의미, 화용론적 특징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정확한 통계 수치를 이용하지 못하고 양적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지 표현을 선정하는 데에 신뢰도와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또한 금지 화행이 체면 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인식하

였음에도 공손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은희(2013)에서는 금지 화행 전략보다 금지 화행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리치(Leech, 1983)의 화용적 척도를 한국어 금지 표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어 금지 표현 세부 기능을 [명령], [요청], [권유], [부탁], [격려/기원]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드라마 대본을 자료로 분석하여 한국어 금지 표현을 추출하고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이 표현들이 갖는 세부 기능도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기존의 지시 화행 전략의 틀을 한국어 금지 화행에 맞게 보완하였고 전략별로 한국어 금지 표현을 범주화하였다. 이어서 한국어 교재에서 다루는 금지 표현 항목을 다각도로 살펴보았고 DCT를 이용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금지 화행 수행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금지 표현의 교육 내용에 초점 맞춰 교육용 금지 표현 항목을 선정하고 배열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형태적으로 유형화가 가능한 금지 표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형태적으로 유형화가 어려운 간접적인 금지 표현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어서 이은희(2016)에서는 학습자의 모국어나 모문화의 영향이 화용적 오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한국어교육의 수요가 많은 중국어권, 일본어권, 베트남어권, 몽골어권 학습자 각 30명씩을 대상으로 그들의 중간언어를 분석하여 한국어 금지 화행 수행 양상을 조사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 모어에 상관없이 한국어 학습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제시할 공통 교수 내용과 언어권별로 학습자의 금지 화행 수행 특성에 초점을 맞춘 개별 교수 내용으로 교수 내용을 구분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팜밍리(2017)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금지 표현 사용 양상을 대조하였다. 분석한 결과 강한 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국인 모어 화자와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두 집단은 모두 직

접 금지 표현을 선호하고 청자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기 위해서 간접 금지 표현을 보다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에 비해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은 직접적인 금지 표현을 선호하고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금지 표현을 사용할 때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많이 나고 특이한 경향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금지 표현 교육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예비 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여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금지 표현 사용 양상에 있어서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성천(2019)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주화행과 보조화행을 구분하여 두 집단이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각자 사용하는 공손 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양상 분석 결과로는 주화행에서 전반적으로 중국인 학습자가 명시적 금지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는 '하지 마세요.' '그만 하세요.' 등과 같은 단정적이고 명시적인 '강한 금지' 전략의 사용 빈도가 매우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금지 화행 수행 시 학습자가 배운 가장 간단하고 익숙한 표현을 상대적으로 고빈도로 사용하는 언어적 습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지 화행의 높은 체면 위협 정도를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한국인 모어 화자는 강한 금지를 피하고 간접적인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명확히 인식시켜야 하고 한국어 숙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공손 전략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리하자면 한국어 금지 화행의 전략 및 표현, 교육 내용까지 보다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는 이은희(2014)를 들 수 있으나, 이 연구는 역시 한국인 모어 화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한국어 학습자의 금

지 화행 수행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은희(2014)의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면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팜밍리(2017), 성천(2019)에서는 학습자의 금지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지만 그러한 양상이 일어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으며, 양상 분석도 변인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상황을 일일이 분석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금지 화행에 작용하는 변인들을 세분화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학습자의 금지 화행 수행 과정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논의하는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금지 화행에 나타난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고찰하는 연구가 아직 공백인 상황이다 보니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금지 화행에 관한 연구가 다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리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고 금지 화행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본고는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전략 사용 양상을 단순히 대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양상이 발생한 원인, 사회적 변인에 대한 학습자의 민감성, 화용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을 함께 분석하여 파악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한국어 금지 화행 교육 방안을 고안하고자 한다.

1.2.2. 화용적 실패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제2언어에서 나타난 화용적 실패를 논의한 연구는 한상미(2005)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금지 화행 관련 연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 활발히 진행되지 못한 실정이다. 화용적 실패와 관련된 연구로 한상미(2005) 외에 손세모돌(2009), 이정란(2010), 이경숙(2012), 신상현(2013), 최지은(2014), 강연주(2018), 호가옥(2019) 등을 들 수 있다.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화용적 실패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의 주요 내용은 <표 Ⅰ-1>과 같이 연구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표 Ⅰ-1> 한국어 화용적 실패에 관한 선행 연구 개요

연구자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한상미	(2005)	중·고급 수준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 모어 화자와의 대화에서 일으키는 의사소통 문제를 화용적 실패의 관점에서 밝힘	중·고급의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 40명 (재미 교포 학습자 집단 20명, 비교포 학습자 집단 20명)	역할 수행(role enactment)을 통하여 여섯 가지 상황에서의 한국인 모어 화자와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대화 자료를 수집한 다음 전사 학습자의 발화 의도가 모호하거나 화용적 실패 판정이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회상(retrospection) 기법을 사용 발화 생산 및 이해 측면, 학습자 변인에 따른 화용적 실패 양상 및 의사소통 장애 유발 여부 분석
	(2012)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담화에 나타난 화용적 문제를 담화표지에 초점을 맞춰 논의	총 11개국의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70명(총 7개의 팀으로 나눔)	각 팀은 또 다시 찬반 두 팀으로 나누어 다른 주제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함 토론 담화는 비디오로 촬영하여 3차에 걸친 전사 후에 담화표지의 화용적 기능별 화용적 문제를 분석
손세모돌(2009)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함축 관련 화용적 오류 분석	중국에서 출간된 13종의 한국어 교재의 회화 부분 내용	호칭과 지칭,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혼용, 정보량을 포함한 세 가지 차원에서 대화함축을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를 분석

이정란 (2010)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담화에 드러난 화용적 문제 분석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15명(중국인 10명, 일본인 2명, 캐나다 1명, 호주 1명, 재미교포 1명)	고급 학습자가 수업에서 신문 요약 및 개인 주제를 발표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에 전사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 토머스(Thomas, 1983)와 한상미(2006)를 참조하고 화용언어적 문제와 사회화용적 문제를 구분하여 화용적 실패 분석
이경숙 (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가 수행하는 요청 화행에서 나타난 화용적 실패 및 원인을 분석하여 한국어 화용 교육 시사점 제안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20명(중급 학습자와 고급 학삽자 각 10명) 및 한국인 모어 화자	학습자와 모어 화자에게 18가지 상황에 관한 역할 수행을 실시하고 녹화 및 녹음 맥락에 맞지 않는 발화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인터뷰 실시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3차 전사한 후에 화용적 문제 요인별 및 숙달도별로 화용적 실패 양상을 분석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요청 화행 교육 방안 제시
신상현 (2013)	외국인 유학생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구어 발화에 나타난 화용적 실패를 밝히고 집단별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마련	정규 기관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은 외국인 유학생 그룹 및 정규 과정의 교육이 아닌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한 여성 결혼이민자 그룹 각 3개(모든 그룹 내 베트남인, 일본인, 중국인 각 1명 포함)	각 팀에서 일상적인 주제로 포커스 그룹 형식의 대화를 실시하여 녹음한 후에 전사 전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토머스(Thomas, 1983)에 근거하여 화용적 실패 양상 분석 및 의사소통 문제 발생률 계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 제시

염수 (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양상 및 화용 능력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힘	한국인 모어 화자 45명 및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119명(3급 32명, 4급 35명, 5급 31명, 6급 21명 포함)	화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에게 모두 수용성 판단테스트(AJT)를 실시하며 화용적 생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습자 집단에게만 객관식 담화완성테스트(DCT) 진행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 및 생산 측면에서의 화용적 실패를 상황별, 숙달도별, 한국 거주 기간별 통계 처리 분석
최지은 (2014)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대화에서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칭찬 화행에 일어난 화용적 문제 분석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 집단 및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역할 수행을 통해 영어권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대화 자료를 수집 및 전사 수집된 자료에 대해 화용적 문제 요인별, 사회적 관계별, 숙달도별 3차에 걸친 분석 맥락에 맞지 않는 학습자의 발화 내용 및 칭찬 상황에 따른 부담감을 파악하기 위해 후속 인터뷰 실시
강소아 (2017)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대화에서 드러난 화용적 문제를 분석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 30명(중급 학습자 및 고급 학습자 각 15명) 및 한국인 모어 화자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본인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역할극(role playing) 진행하여 녹화한 후에 전사 수집된 360개의 발화 자료에 대해 화용언어적 측면 및 사회화용적 측면에서 숙달도별, 변인별(친밀도, 사회적 지위) 분석 화용적 문제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회상 기법을 통해 학습자의 의도를 파악

강연주 (2018)	한국어 화용적 문제에 관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인식 차이를 밝힘	한국인 모어 화자 5명, 고급 한국어 학습자 4명(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1명, 일본인 1명, 중국인 1명)	국내 한국어 교재 대화문을 분석하고 그 중에 드러난 의사소통 문제 사례를 추출 추출된 의사소통 사례를 면담 자료로 하여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에게 각자 2시간 정도 심층 면담 실시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언어 표현의 담화 기능, 언어적 공손성 실현, 사회적 관계, 체면, 가치관 등 5개의 주제에 대한 두 집단의 인식 차이를 질적으로 분석
호가옥 (2019)	중국인 한국어 고급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로 구성된 소집단 토의에서 드러난 화용적 실패 및 의사소통 장애 양상을 관찰하고 그 원인을 밝힘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소집단 토의 교육 방안 마련	한국인 4명, 중국인 12명, 총 16명을 소집단 토의를 위한 팀으로 구분 각 팀은 한국인 1~2명, 중국인 고급 학습자 2~4명, 총 4~5명으로 무작위로 구성	화용적 실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제로 각 팀에게 소집단 토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녹음 및 녹화 수집된 8개의 토의 자료를 바탕으로 의사소통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화용적 실패에 초점을 맞춰 분석 화용적 실패 및 의사소통 장애 발생 시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토의 참여자들에게 회상 자극 실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소집단 토의 교육 방안 구안

상술한 선행 연구를 주제별로 보면 특정 화행에서 나타난 화용적 문제를 다룬 연구는 이경숙(2012), 최지은(2014) 등 있고, 토론/토의 담화에서 드러난 화용적 실패를 분석한 연구는 한상미(2012), 호가옥(2019) 등을 들 수 있으며, 발표 담화에 일어난 화용적 문제를 논의한 연구는 이정란(2010)이 있고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화용적 실패에 관한 분석 연구로 손세모돌(2009)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 결혼이민자

를 대상으로 한 화용적 문제 연구로 신상현(2013)이 있으며 화용적 실패에 대한 한국어 학습자와 모어 화자의 인식 차이를 밝힌 강연주(2018)의 연구까지 주제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거의 모든 연구가 화용적 문제와 관련된 토머스(Thomas, 1983)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며 한상미(2005)에서 제시한 화용적 실패 분석틀을 참조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대부분이 역할극 혹은 역할 수행 방법을 활용하였으나, 염수(2013)에서는 화용적 실패에 대한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 능력과 생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자 수용성판단테스트(AJT) 및 담화완성테스트(DCT)를 실시하였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금지 화행 교육 방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화용적 실패 분석을 전문적으로 다루기보다 전체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여길 것이다. 즉, 특정 화행 중 금지 화행에서 드러난 전략 사용 양상 및 화용적 실패 양상 두 가지를 모두 논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화용적 실패 논의와 관련해서는 양적으로 접근하는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을 고려하여 역할극보다 더 효율적인 자료 수집 방법인 담화완성테스트를 채택하며, 한상미(2005)를 비롯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틀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절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다.

1.3. 연구 방법 및 대상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금지 화행 전략 수행 양상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주관식 서면 담화완성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s: DCT)를 사용하였다. DCT는 CCSARP[2)]에서도 널리 사용되었던 연구 방법이다. 서면 DCT는 또 다시

주관식 DCT와 객관식 DCT로 나뉠 수 있다. 객관식 DCT는 응답자로 하여금 연구자가 미리 설정한 문항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항 선정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실험 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제공된 문항들이 응답자에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으니 금지 화행 수행 시 학습자의 진정한 전략 사용 양상을 파악하는 데에 불리하다. 주관식 DCT는 응답자에게 상황 설명을 제시한 뒤 주어진 상황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답을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상대적으로 다양한 언어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DCT의 단점에 대해서 골라토(Golato, 2003)에서는 DCT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발화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활동을 고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DCT를 조사 도구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양적 분석을 위해 많은 수의 피험자들의 응답 자료를 짧은 시간 내 확보해야 하며, 실제로 '녹음, 녹화 후 전사'의 방법으로 다수의 연구 대상자 발화를 관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금지 화행의 주화행 분석을 위해서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보조화행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 분석을 실시했다. 화용적 실패 분석은 연구자가 의뢰한 두 명의 한국어교육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연구자 본인도 분석의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양적 통계 분석만으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실험 후 조사 대상에게 인터뷰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

2) CCSARP(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는 1980년대 미국에서 언어행위에 교차 문화적으로 어떠한 변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블럼-쿨카(Blum-Kulka), 하우스(House), 카스퍼(Kasper) 등의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다. 호주 영어, 미국 영어, 캐나다 불어, 덴마크어, 독일어, 히브리어,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8개국, 국가별 400명을 대상으로 요청과 사과 화행을 연구하였다. (Blum-Kulka & Olshtain, 1984:197, 황선영, 2016 재인용).

본 실험에서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그리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중국인 모어 화자를 포함한 세 집단에 대해 각 50명을 모집하여 조사하였다. 연령에 따른 변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령대는 20대로 한정하였으며, 직업은 대학생, 대학원생에 집중하였다. 중국인 모어 화자를 조사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금지 화행을 수행하였을 때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양상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고급으로 한정한 원인은 본 연구의 목적이 화용적 차원에서 학습자의 금지 화행 수행 양상을 고찰하는 데에 있기에 어휘, 문법 등 언어적 오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화용적 능력이 학습자의 한국어 숙달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피 전략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맥락에서 금지 화행을 유연하게 수행하려면 중급 이상의 어휘, 문법 등 언어적 지식이 학습자에게 요구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이 고급 수준에 도달하여야만 해당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가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응답자의 기본적 정보와 연구 절차는 각각 <표 Ⅰ-2>, [그림 Ⅰ-1]로 제시한다.

<표 Ⅰ-2> 본 조사 응답자의 기본적 정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중국인 모어 화자
성별	남	10[3](20%)	25(50%)	25(50%)
	여	40(80%)	25(50%)	25(50%)
합계		50(100%)	50(100%)	50(100%)

3) 주방(2017)에서는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에 대한 교수가 실제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교육 현장에서 남녀를 구분하여 한국어를 가르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성별이라는 요인을 변인 범위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DCT 예비 문항 작성

⇩

인원 모집 및 예비 조사 실시(2020.11.12.~2020.11.15.)

⇩

DCT 문항 수정 및 보완

⇩

참여 대상자 총 150명 모집 및 본 조사 실시(2021.07.25.~2021.08.08.)

⇩

조사 결과 분석

[그림 Ⅰ-1] 본 연구의 조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제퍼슨(Jefferson, 1979)의 제시 기호를 기반으로 금지 화행의 분석틀에 맞게 한상미(2005), 양우정(2017)에서 사용된 것들을 참고하여 다음의 <표 Ⅰ-3>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Ⅰ-3> 제시 기호 설명

기호	설명
CKL/학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Chinese Korean Learner)
KNS/한	한국인 모어 화자(Korean Native Speaker)
CNS/중	중국인 모어 화자(Chinese Native Speaker)
KNS44	한국인 모어 화자 44번 (각 집단 조사 대상 일련 번호 1~50 표시)
#8	상황8(#: DCT 상황, 3: 상황 고유 번호)
OO	인명 표시
(밑줄)	화용적 실패 또는 분석 부분의 예 표시
▷	오류나 실패 요인 표시
√	화용적 실패 수정 내용

Ⅱ. 이론적 배경

2.1. 화행에 관한 이론

2.1.1. 화행 이론

화행 이론(speech act theory)은 영국의 철학 학자 오스틴(Austin)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1955년에 오스틴(Austin)이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행한 일련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말과 행위(How to Do Things with Words)'라는 책으로 출판되면서 연구되기 시작된 분야이다. 오스틴(Austin, 1962)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to say something is to do something)이고 무엇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발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의 발화의 동시에 이 지원자를 채용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다. 오스틴(Austin)은 발화를 단정발화(constative)와 수행발화(performative)로 구분하였다. 단정발화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와 같이 어떠한 상태나 사건을 진술하며 그 내용이 참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발화이다. 이와 달리 수행발화는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할게요.'라고 하는 것처럼 약속, 경고, 명령 등 행위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발화를 가리킨다. 더 쉽게 말하면 단정발화는 그 진술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연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맥락적(contextual)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데 반하여 수행발화는 어떠한 행위를 행하는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맥락적 그리고 텍스트적 조건(textual conditions)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쉬프린(Schiffrin, 1994)에서 언급하였다.

또한 오스틴(Austin, 1962)에서는 화자가 말을 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행위를 발화 행위(locutionary act),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발화 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발화 행위는 결정적인 의의(sense)와 지시(reference)를 갖고 있는 문장을 발화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발화 수반 행위는 발화 행위 그 자체 외에 명령, 경고, 거절, 사과, 칭찬 등의 의사소통력(communicative force)을 지닌 행위로 이해될 수 있으며, 발화 효과 행위는 발화 행위를 통하여 화자가 청자를 결국 설득하거나 미안하게 만드는 등의 실제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갖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오스틴(Austin, 1962)에서는 적정 조건(felicity conditions)이라는 개념을 제기하였고 이것은 청자가 발화를 화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상황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유일(Yule, 1996)에서는 'I sentence you to six month in prison.'이라는 발화에서 화자가 법정이라는 특정 상황에 처하고 재판장이라는 특정 신분을 갖고 있지 않다면 해당 발화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다.

화행 이론은 오스틴(Austin)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설(Searle)에 의하여 독립적인 학문의 한 분야로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설(Searle, 1969)에서는 오스틴(Austin, 1962)의 발화 행위를 다시 발화 행위(utterance act)와 명제 행위(proposition act)로 구분하여 화행을 발화 행위(utterance act), 명제 행위(proposition act), 발화 수반 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발화 효과 행위(perlocutionary act)를 포함한 네 가지를 세분화하였다. 여기서 새롭게 제기된 명제 행위는 지시하고 예측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설(Searle, 1969)에서는 다양한 화행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분류하기 위해서 오스틴(Austin, 1962)의 적정 조건을 다음의 네 가지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설(Searle, 1969)의 화행의 적정 조건

가.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

나. 예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
다.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
라. 필수 조건(essential condition)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은 화자가 발화 행위를 통하여 전달하는 내용을 말한다. 쉬프린(Schiffrin, 1994)에서 명제 내용은 지시 및 술어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네 가지 조건들 중에서 가장 텍스트적(textual)이라고 언급하였다. 예비 조건(preparatory condition)은 화자나 청자가 발화 행위와 관련된 상황, 맥락, 배경 지식 등의 것을 뜻한다. 이는 발화 수반 행위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것으로 화자가 전제하는 조건이다. 성실성 조건(sincerity condition)은 발화 행위에 대하여 화자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필수 조건(essential condition)은 발화 행위에 따른 객관적인 효과를 가리킨다. 결국 이는 발화의 내용과 상황, 그리고 화자의 의도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은실(2010)에서는 설(Searle, 1969)의 적정 조건을 금지 화행의 경우에 적용시켜 <표 Ⅱ-1>과 같이 금지 화행의 적정 조건을 제시하였다.

<표 Ⅱ-1> 금지 화행 적정 조건(성은실, 2010:12)

조건	금지 화행의 적정 조건
명제 내용	청자의 미래 행위
예비 조건	청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A가 있다. 화자는 청자가 그 행위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는다.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가 있다.

성실성 조건	화자는 청자가 행위 A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
필수 조건	화자는 청자가 행위 A를 하지 않게 하려고 시도한다.

여기서 명제 내용인 청자의 미래 행위는 과거에 이미 행한 적이 있고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와 현재 행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미래에 행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금지 화행의 경우 부정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할 대상, 즉 행위 A가 전제되어야 발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또한, '화자는 청자보다 권위가 있다.'라는 예비 조건에서 말하는 '권위'는 대화 참여자 사이의 상하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연령이나 신분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어 금지 발화를 할 권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지 화행에서의 권위는 전통적으로 인식되는 상하관계보다 구체적인 맥락이나 특정한 발화 상황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2.1.2. 금지 화행에 대한 기본적 논의

1) 금지 화행의 정의 및 범위

그간 국내에서 한국어 금지 표현은 부정법이나 명령법의 범위 내에서 논의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금지 화행은 역시 독립적인 범주가 아닌 명령 화행의 하나의 하위 화행으로 분석해 왔다. 이는 최현배(1971), 임홍빈(1978), 이기용(1979), 채영희(1983), 변정민(1995), 권미영(1995) 등 연구에서 확인될 수 있다.

김영란(1998)에서는 국내 처음으로 한국어 금지 표현을 하나의 독립

된 범주로 묶어 이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김영란(1999)에서는 한국어 금지 표현을 다음과 같은 <표 Ⅱ-2>로 정리하였다.

<표 Ⅱ-2> 금지 표현의 정의와 구성 요소(김영란, 1999:175)

금지 표현	정의	[X는 Y가 Z를 못하도록 금지하다]
	구성요소	참여자1 {X}: 행위자(agent) 참여자2 {Y}: 수동자(patient) 금지 대상 {Z}: 행위(act)

<표 Ⅱ-2>와 같이 한국어 금지 표현은 금지를 하는 행위자로서의 참여자1 {X}와 금지를 당하는 수동자로서의 참여자2 {Y}, 그리고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를 담은 명제 {Z}로 이루어진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행위자 {X}, 수동자 {Y}, 그리고 행위 {Z}를 한국어 금지 표현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보고 있다. 그리고 금지 표현의 기능에 관하여 김영란(1998)에서는 이를 의미 기능(semantic function)과 화행 기능(speech act function)으로 나누어 설명한 바 있으며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김영란(1998)의 금지 표현 기능 분류

기능	특징
의미 기능 (공통 의미)	[X는 Y가 Z를 못하도록 금지하다]
화행 기능	[+행위] ➡ [-행위] 예시: 어깨 잡지 마세요.
	[+행위1] ➡ [-행위1] + [+행위2] 예시: 살살하지 말고 있는 힘껏 하세요.
	[-행위] ➡ [+행위] 예시: 오늘처럼 치마하나 못건지고 빙빙돌다 오지말구.

<표 Ⅱ-3>에서 보여 주듯이 금지 표현의 사전 의미를 바탕으로 공통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X는 Y가 Z를 못하도록 금지하다'라는 추상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어서 한국어 금지 표현은 각 맥락에서 어떠한 구체 의미로 확장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소설과 드라마 대본 자료를 토대로 참여자1{X}와 참여자2{Y}, 그리고 금지 대상{Z}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였다. 결과로 참여자1{X}는 [사람], [초자연적 존재], [관습], [규칙], [제도] 등의 속성을 지닐 수 있으며, 참여자2{Y}는 [사람], [새] 그리고 [초자연적 존재] 등으로 대치가 가능하고 금지 대상{Z}는 [물리적 행위]와 [심리적 행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지 표현의 화행 기능은 의미 기능만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금지 표현을 실제로 사용할 때 참여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화행적인 기능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X}는 {Y}에게 그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X}는 {Y}에게 하던 [행위1]을 그만두고 {X}가 바라는 다른 [행위2]의 상태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것, 그리고 {X}는 {Y}에게 원래 하지 않으려던 행위를 금지하여 그 행위를 하도록 만들거나 다른 행위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 세 가지 금지 표현 화행 기능 중에서 첫 번째 기능, 즉 어떠한 행위가 결여되도록 하는 기능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성은실(2010)에서는 화행들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상충되고 교차하는 유사성의 복잡한 망을 형성하고 있다는 고츠-힌델랑(Gotz-Hindelang, 1982)의 관점을 받아들이면서 금지 화행도 완전히 독립적인 하나의 범주로 보기 어렵고 명령, 충고, 경고, 위협 등 다양한 세부 화행들과 특징적인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세부 화행들의 특징 및 금지 화행과의 상관성은 성은실(2010)에서 <표 Ⅱ-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4> 관련 화행의 특징 및 금지 화행과의 상관성(성은실, 2010:16)

세부 화행	특징	금지 화행과의 상관성

<table>
<tr><td>명령 화행</td><td>청자의 미래 행위 A를 하게 함.</td><td>금지 화행의 상위 화행</td></tr>
<tr><td>충고 화행</td><td>청자 행위 A의 긍정적 결과 R을 예측.</td><td rowspan="3">행위 A를 하도록 하는 경우와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 모두 사용되어 금지 화행의 하위 화행으로 볼 수 없음.
추론에 의해 금지의 기능을 함.
금지하는 언표내적[4] 효력의 강도에 차이가 있음.</td></tr>
<tr><td>경고 화행</td><td>청자 행위 A의 부정적 결과 R을 알림.</td></tr>
<tr><td>위협 화행</td><td>청자 행위 A의 부정적 결과 R을 발생시킬 것임을 알림.</td></tr>
</table>

성은실(2010)에 의하여 금지 화행은 명령 화행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충고, 경고, 위협 화행들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면밀히 분석해 보면, 금지할 청자의 행위가 전제되어야 발화자의 발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과 청자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시도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금지 화행이 명령, 요청을 비롯한 많은 다른 화행들과 변별되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이은희(2014)에서는 금지 화행을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지시 화행으로 간주하고 금지 화행의 세부 기능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 '부담, 이익의 척도'와 '선택권의 척도'를 두 가지의 기준으로 삼아 드라마 대본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어 금지 표현의 세부 기능을 [부탁], [요청], [명령], [권유], [격려/기원]으로 분류하였다. '부담, 이익의 척도'는 지시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며 누구에게 부담이 주어지느냐에 대한 기준이다. '선택권의 척도'는 화자가 금지를 지

4) 오스틴(Austin, 1962)의 화행 분류의 번역에 관하여 학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며, 성은실(2010)에서는 illocutionary act를 언표내적 행위로 번역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발화 수반 행위라는 한국어 번역을 택하였다.

시한 행위에 대해 청자가 이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른 기준이라고 하였다. 분류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Ⅱ-5>와 같다.

<표 Ⅱ-5> 이은희(2014)의 한국어 금지 화행의 세부 기능 분류

기능	이익 대상	청자 선택권	힘의 크기
[명령]	화자이익	적음	화자>청자
[요청]	화자이익	보통	모두 적용
[권유]	청자이익	조금 많음	모두 적용
[부탁]	화자이익	많음	화자<청자
[격려/기원]	청자이익	아주 많음	모두 적용

이은희(2014)에 의하면 [명령] 기능은 이익의 수혜가 화자에게 있고 부담의 대상이 청자이며, 청자에게 행위 수행에 대한 선택권이 거의 없고 화자의 명령 지시를 위배하면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대부분 경우에 화자의 지시 사항을 순순히 이행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통 청자보다 화자의 사회적인 힘이 더 큰 경우에 이 기능이 수행되고 이러한 기능 상황에서는 대화 참여자의 관계가 상하관계인 경우가 다수이며, 공적인 맥락의 발화에서 많이 사용된다. 예시로는 컴퓨터실에서 조교가 학생에게 게임 중단을 지시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요청] 기능은 대화 참여자의 친소 관계나 사회적인 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금지화행의 세부 기능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능으로서 화자 혹은 제3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청자에게는 부담이 주어지며, 행위 수행에 대한 청자의 선택권이 [명령] 기능보다 많고 [권유] 기능보다 적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예시로는 후배에게 내 시험 성적을 묻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권유] 기능에서는 부담 대상이 없다는 뚜렷한 특징이 있다. 즉 이익은 청자에게 가고 화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행위 수행에 대한 청자의 선택권은 [명령] 및 [요청] 기능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주어지므로 청자가 지시한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시로는 친구에게 눈 오는 날 운전 금지를 권유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부탁] 기능은 [요청]에서 파생된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고 본질적인 기능은 [요청]과 동일하다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다만, 화자 입장에서 단순한 [요청]보다 절실감이 더해지며 행위 이행에 청자에 대한 선택권도 [요청]보다 상당히 많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화자보다 청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거나 청자의 사회적인 힘이 더 강한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이때 '좀', '제발', '부디' 등의 부사를 함께 사용하여 금지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적으로 '부탁하다'라는 명시적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시로는 상사에게 회사 회식 때 노래를 시키지 말 것을 부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격려/기원] 기능은 [권유]의 파생 기능으로 볼 수 있으나 본질적인 기능은 [권유]와 명확히 다르며 금지 화행의 세부 기능 중에서 청자에게 행위 이행에 대한 선택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청자가 지시한 행위를 실제로 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그 행위를 이행할 수 없을 수도 있다. 한국어에서 청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흔히 쓰이는 표현인 '걱정하지 마세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로는 후배에게 나의 건강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본고에서도 역시 다양한 화행들을 구별하는 경계는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지 화행은 명령, 요청 등 다른 화행들과 교차되는 부분이 있다는 성은실(2010)의 관점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금지', '명령', '요청' 등의 요소를 화행 차원에서 분류하기보다는 이은희(2014)의 관점을 바탕으로 '명령', '요청' 등의 요소를 금지 화행의 하위 기능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다시 말하면 본고에서는 이은희(2014)의 한국어 금지 화행의 세부 기능 분류를 받아들이되 다른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세부 기능 분류에 대하여 재고하여야 할 두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

첫째, [부탁] 기능은 [요청]에서 파생된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고 본질적인 기능은 [요청]과 동일하다고 이해해도 된다는 이은희(2014)의 입장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요청]과 [부탁] 기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요청/부탁]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기로 한다. 또한, <표 Ⅱ-5>에 의하면 이은희(2014)는 [부탁] 기능에서 화자의 사회적 힘의 크기가 청자의 그것보다 작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발화 상황에서 화·청자의 사회적 힘의 크기가 동등한 경우, 동기 친구들끼리 '제발 부탁인데 내 성적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발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화자의 사회적 힘의 크기가 더 강한 경우인 선후배 사이에서 역시 이 발화를 어색한 발화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이은희(2014)의 분류 기준에 따라 위 발화가 [요청] 기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탁] 기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서는 금지 표현의 [요청] 기능과 [부탁] 기능을 구별하는 경계가 모호하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다.

둘째, 금지 화행이 성립하는 적정 조건을 살펴보면 [격려/기원] 기능이 금지 화행의 하위 기능으로 분류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남아 있다. 성은실(2010)에서는 형태적으로 기원은 금지 화행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청자가 화자의 통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어긋나기 때문에 금지 화행과는 별개의 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예비 실험을 통하여 [격려/기원] 기능과 관련된 DCT 문항을 완성하였을 때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이 모두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와 같은 단일하고 고정된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한국어에서 기원의 마음을 표현할 때 '걱정 마세요.'와 같은 발화를 이미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격려/기원] 기능에 있어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다시 비교·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본 실험에서 [격려/기원] 기능을 금지 화행의 세부 기능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금지 화행 세부 기능은 [명령], [요청/부탁], 그리고 [권유] 총 세 가지로 갈무리 된다.

2) 금지 화행의 구성단위

블럼-쿨카와 올슈타인(Blum-Kulka & Olshtain, 1984)에서 요청 화행 발화는 시작말(Address Term), 주화행(Head act), 그리고 보조화행(Adjunct to Head act)으로 구성된다고 밝힌 바가 있다. 금지 화행도 이러한 구조에 따라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금지 화행은 보통 처음에 호칭어나 '죄송한데'와 같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시작말로부터 시작하며, 그 뒤에 주화행과 보조화행이 시행된다. 주화행은 화행 분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금지'라는 화행이 일어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보조화행은 주화행의 앞이나 뒤에서 사용되며 '금지'라는 체면 위협 행위를 보상하기 위한 부가적인 수단이다.

OO씨, / 근무 시간에 임의로 자리 이탈하시면 안 돼요. / 다음번부터는 꼭 유의해주세요.

위 예시는 연구자가 DCT를 통해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라는 상황에서 수집한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제 발화 자료이며, 이는 일반적인 금지 화행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 예시에서 금지 발화를 시작하기 위한 수단으로 'OO씨,'로 청자의 주의를 집중시킨 다음에 '자리 이탈하시면 안 돼요.'와 같은 불허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근무지 이탈을 금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자가 다음에 근무 시간에 근무지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요청('유의해주세요.')이라는 보조화행 전략을 부가적으로 사용하였다. 한편으로 금

지 화행이라는 맥락에서 일어나게 되는 발화는 반드시 시작말, 주화행, 보조화행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가. 친구야, 나 정말 진지하게 그 별명 싫어... 그렇게 부르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
나. 친구야, 나 정말 진지하게 그 별명 싫어...

위 예시는 친구에게 공공장소에서 내 별명을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수집한 발화인데 '가'에서는 '친구야,'가 시작말이고 '나 정말 진지하게 그 별명 싫어...'라는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그렇게 부르지 않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금지 발화의 체면 손상 정도를 줄여 주는 것이다. 여기서 금지 화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서대로 '호칭어', '이유 제시', '소망 표현'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소망 표현'은 주화행 전략이고 '이유 제시'는 보조화행 전략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에서는 여전히 '나 정말 진지하게 그 별명 싫어...'라는 이유 제시의 전략이 사용되지만 여기서 이유 제시는 주화행 전략이 되고 보조화행 없이 시작말과 주화행으로만 이루어지는 발화로 간주해야 할 상황이다. 즉, 본 연구에서 금지 화행의 양상을 분석할 때 금지 화행의 실현이 가능하게 만드는 주화행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응답자의 발화에서 반드시 주화행이 포함되어야 하나 보조화행은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같은 발화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그것은 보조화행 전략에 해당할 수도 있고 주화행 전략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금지 화행의 표현 및 전략

금지 화행 전략에 관한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다양한 어휘 및 표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영란(1998)에서는 통사 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한국어 금지 표현을 제1유형과 제2유형으로 나누었으며, 제1유형은 {X는 Y가 Z를 못하도록 금지하다}의 구조를 갖추어 금지를 하는 행위자 {X}의 발화 수반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고, 제2유형은 {Y가 Z를 못하도록}이라는 구조로 나타나 금지를 당하는 수동자 {Y}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유형이다. 드라마 대본과 소설을 연구 자료로 추출한 제1유형에 해당하는 한국어 금지 표현은 {말리~}, {금 (禁) 하~}, {금지 (禁止) 되~}, {허락하/ 되~ + ~지 않~, 허락 안하~}, {삼가(하)~}, {만류 (挽留) 하~}, {금지 (禁止) }, {만류 (挽留) } 등을 들 수 있으며, 제2유형에 속하는 한국어 금지 표현 형식으로는 {동사 + ~지 말~}, {동사 + ~지 못하~}, {안/ 아니 + 되~}, {그만 + 동사}, {못 + 동사}, {작작 + 동사}, {동사 + ~ㄹ 것/ 수/ 필요 없~}, {동사 + ~는 것/ 법 아니~}, {아서라}, {금기 (禁忌) }, {금물 (禁物) } 등이 있다. 빈도로 보면 유형에 상관없이 금지 동사가 들어간 금지 표현이 두 유형에서 모두 압도적인 높은 비율로 사용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동사 범주에 해당하는 금지 표현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대부분의 금지 표현은 제2유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금지 표현의 사용자 {X}가 자신의 발화 수반 행위를 명시적으로 강조하면서 발화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나는 너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린다.'와 같이 발화하는 경우보다 행위자 {X}는 습관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지 마.'라는 발화를 통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금지 표현 분류 결과는 김영란(1998)에서 <표 Ⅱ-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6> 금지 표현의 유형 및 형식(김영란, 1998:84)

	유형	분류	형식
금지 표현의 형식	제1유형 {X는 Y가 Z를 못하도록 금지하다}	금지 동사	{말리~}
			{금 (禁) 하~}
			{금지 (禁止) 되~}
			{허락하/ 되~ + ~지 않~, 허락 안 하~}
			{삼가(하)~}
			{만류 (挽留) 하~}
		금지 명사	{금지 (禁止) }
			{만류 (挽留) }
	제2유형 {Y가 Z를 못하도록}	금지 동사	{동사 + ~지 말~}
			{동사 + ~지 못하~}
		금지 부사	{안/ 아니 + 되~}
			{그만 + 동사}
			{못 + 동사}
			{작작 + 동사}
		금지 형용사	{동사 + ~ㄹ 것/ 수/ 필요 없~}
			{동사 + ~는 것/ 법 아니~}
		금지 감탄사	{아서라}
		금지 명사	{금기 (禁忌) }
			{금물 (禁物) }

성은실(2010)에서는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표현들이 어떻게 금지라는 발화 효과를 가지게 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김영란(1999)의 금지 화행 구성 요소를 참고하여 금지 화행의 실현 기제로서 화자 관련 요소, 청자 관련 요소 그리고 행위 실현 요소 총 세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한 바 있다. 화자 관련 요소는 부정적 감정 표현과 정보 제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정적 감정 표현은 금지할 행위에 대한 화자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청자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정보 제시는 화자가 가지고 있는 금지할 행위에 관한 정보를 청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청자의 행위를 막고자 하는 방식이다. 청자 관련 요소는 청자의 의지나 청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금지 화행 실현 기제들을 말한다. 이 범주에 속하는 기제로는 금지 내용의 직접적 전달과 주의 환기가 있다. 금지 내용의 직접적 전달은 별도의

복잡한 추론이 없어도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금지 내용을 보다 고정적인 금지 표현으로 청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이며, 주의 환기는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금지 내용에 대해서 호칭어나 인용문을 사용하여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제이다. 마지막으로 행위 실현 요소는 금지 대상 행위의 실현 상태에 따라 발화 당시에 아직 실행되지 않은 청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예방, 현재 실행되고 있는 청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중지, 그리고 이미 완료되었으나 미래에 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재발 방지를 포함하여 총 세 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 한편 성은실(2010)은 김영란(1999)에서 제시한 금지 표현들은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기제의 일부에 불과하며 그들을 고정적인 금지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고,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고정적인 핵심 어사들을 동사, 명사, 부사, 간투사로 나누어 <표 Ⅱ-7>과 같이 다시 정리하였다.

<표 Ⅱ-7> 한국어 금지 표현 실현의 핵심 어휘(성은실, 2010:49)

동사	말-
	삼가-
	안 되-
	못쓰-
	금하-
명사	금지
	엄금
	통제/ 제한
부사	그만
	작작/ 적당히
간투사	아서/ 아서라
	에비/ 어비
	쉬/쉿

이어서 이은희(2014)에서는 선행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부적절한 내용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김영란(1998), 성은실(2010)에서 모두 다루지 못했던 부분까지 포함시켜 한국어 금지 표현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분석한 바가 있다. 이에 앞서 이은희(2014)에서 적용한 요청 화행 전략틀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선행 연구에서는 요청 화행 관련 연구의 경우 주로 CCSARP에서 제시한 지시 화행 전략틀을 사용하고 있다. CCSARP에서는 화행의 간접성을 명확히 보여 주는 단계와 해당 전략을 <표 Ⅱ-8>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Ⅱ-8> 간접성 등급화에 근거한 지시 화행 전략(이은희, 2014:53 재인용)

지시 단계	전략
직접적, 명시적 지시 단계 (The most direct, explicit level)	<1>서법에 의한 도출(Mood derivable)
	<2>명백한 수행문(Explicit performatives)
	<3>약화된 수행문(Hedge performatives)
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 (The 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4>발화 의미로부터 도출 (Locution derivable)
	<5>화자 의도 언급(Scoping stating)
	<6>제안성 어구(Suggestory formula)
	<7>예비적 조건 언급 (Reference to Preparatory conditions)
비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 (The nonconventionally indirect level)	<8>확실한 단서(Strong Hints)
	<9>불확실한 단서(Mild Hints)

<표 Ⅱ-8>에서 보여 주듯이 블럼-쿨카 외(Blum-Kulka 외, 1984)에서는 간접성을 기준으로 지시 화행의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직접적, 명시적 지시 단계라고 칭하는 전략으로서 해당 전략을 사용할 때에는 명시적인 명령어를 사용함으로써 발화 의도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며, 서법에 의한 도출, 명백한 수행문, 약화된 수행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명시적 지시 단계보다 간접성을 더 많이 보이고 화자가 의도한 바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라는 전략으로서, 해당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는 발화 의미로부터의 도

출, 화자 의도 언급, 제안성 어구, 예비적 조건 언급 등이 있다. 세 번째는 비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로서 별도의 추론을 통하여 화자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청자에게 의도한 바를 암시적으로 전하는 방식이며, 이 단계에 속하는 전략은 확실한 단서 및 불확실한 단서 두 가지가 있다.

이은희(2014)에서는 직접적, 명시적 지시 단계와 우회적, 관습적 지시 단계의 전략을 수행하는 표현들이 유형화가 가능하므로 CCSARP의 화행 전략 틀을 한국어 금지 화행에 맞게 수정하고 적용하여 이 두 단계에 속하는 한국어 금지 표현들을 분류하였다. 이와 반대로 이은희(2014)에서의 간접 금지 표현은 비관습적, 우회적 지시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이 전략을 수행하는 표현 형태는 화자의 언어 습관이나 개성에 따라 다르고 일회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고정되어 나타나는 표현의 형태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은희(2014)에서 정리한 직접 금지 화행의 전략과 표현은 <표 Ⅱ-9>와 같다.

<표 Ⅱ-9> 한국어 금지 화행의 전략 및 표현(이은희, 2014:68)

전략	표현
서법(명령법)에 의한 표현	‘지 말다’의 명령형 ‘지 말아 주다’의 명령형 ‘지 말아 보다’의 명령형 ‘지 않/말도록/게 하다’의 명령형 ‘그만+동사’의 명령형
명시적 수행 표현	‘금지’ ‘엄금’ 등 명사 ‘금지하다’ 등 수행동사
발화 의미로부터 도출	‘그만 + -(시)아/어야 하(겠)다’의 평서형 ‘그만 + -(시)아/야 되(겠)다’의 평서형 ‘-(으)면 안 되다’의 평서형 ‘-지 못하다’의 평서형 ‘못 + 동사’의 평서형

		‘-(으)면 못 쓰다’의 평서형 ‘-(으)를 수 없다’의 평서형
화자 의도 언급		‘그만/안 + -았/었으면 하다/좋겠다/싶다’의 평서형, 의문형 ‘그만 + -기(를) 바라다’의 평서형 ‘-지 않았으면 하다/좋겠다/싶다’ 평서형 ‘-지 않기를 바라다/원하다’의 평서형 ‘-지 않(으)(시)았으면 하다/좋겠다/싶다’의 평서형 ‘-지 않기를 바라다’의 평서형
제안성 어구		‘-지 않는 게 어떻다’ 의문형 ‘-지 말지 그래(요)?’ ‘안 -는 게 어떻다’의 의문형(어떨까요? 어때요?) ‘-지 말자’ ‘-지 맙시다’ ‘그만 + 동사’의 청유형
예비적 조건 언급	청자의 수행 능력	‘안/그만 + -(으)ㄹ수 없(겠)다’의 의문형 ‘-지 않을 수 없(겠)다’의 의문형
	수행 불필요성 언급	‘-(으)ㄹ 필요 없다’의 평서형
	청자의 의지	‘-지 마(시)ㄹ래(요)?’ ‘-지 마(시)겠다’의 의문형 ‘그만 + -(으)(시)ㄹ래(요)?’ ‘그만 + -(으)(시)겠다’의 의문형
	요청 내용에 대한 청자 허락	‘그만/안 + -(으)면 안 되다’의 의문형

이은희(2014)에 따르면 서법에 의한 표현이란 직접적인 명령형을 통하여 청자의 행위를 가장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이다. 한국어에서 이 범주에 해당하는 표현은 ‘하지 마’, ‘하지 말아 주세요’, ‘하지 많도록 하세요’, ‘그만 하세요’ 등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명시적인 명령

형을 사용한다고 해서 금지 화행의 [명령]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은희(2014)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술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와 같은 명령형 금지 표현은 각자 [격려/기원] 기능과 [권유]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명시적 명령형 금지 표현은 금지 화행의 모든 하위 기능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설(Searl, 1975)에 의하면 명시적 수행 표현은 해당 화행을 실현시키는 매우 명시적인 수행동사가 들어 있는 표현을 가리킨다. 한국어 금지 화행의 경우 '금지하다', '엄금하다', '금하다' 등의 수행동사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은희(2014)에서는 한국어에서는 동사 외에 '주차 금지', '금연 구역' 등과 같은 명사 표현도 명시적인 수행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김영란(1998), 성은실(2010)의 논의를 종합하여 두 연구에서 모두 언급했던 '삼가다[5]'를 명시적 수행 표현의 동사 범주에 포함시키고, 성은실(2010)에서 제시한 '통제[6]' '제한[7]', 그리고 '금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불가'를 명시적 수행 표현의 명사 범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은희(2014)에 의하면 발화 의미로부터의 도출은 직접적인 형식은 아니지만 발화에 담긴 화자의 언표내적인 지시 의도를 청자가 추론을 통하여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것은 화자 본인의 의도라기보다 당위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청자가 의무적으로 하지 말아야 함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국어에서 이에

5)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삼가다'에 관하여 '첫째,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 둘째,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영란(1998)에서는 '시시한 의견은 삼가하라.'에 대하여 '시시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하다'라고 해석하였으며, 성은실(2010)에서도 '~(을/를) 삼가-'의 명령형을 통하여 격식적인 금지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6) <표준>에서는 '통제(统制)'를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이라고 풀이한다. 이 어휘는 청자의 행위가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금지하는 화행을 실현시키는 데 사용 가능하다(성은실, 2010:64).

7) <표준>에서는 '제한(制限)'을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그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 또는 그렇게 정한 한계'라고 풀이한다. 이 어휘는 청자의 행위가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금지하는 화행을 실현시키는 데 사용 가능하다(성은실, 2010:64).

해당하는 표현들은 '-(으)를 수 없다', '그만 + -(시)아/어야 하(겠)다', '-(으)면 안 되다', '-지 못하다' 등이 있다.

화자 의도 언급이란 청자에게 지시 사항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화자의 의도나 청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희망을 언급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은희(2014)에서는 한국어 구어체에서 '바라다', '원하다', '소망하다' 등 화자의 희망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여 '-기를 바래'라고 발화하기보다 '-았/었으면 좋겠다' '-았/었으면 해' 등과 같은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이 전략에 속하는 금지 표현으로는 '그만/안 + -았/었으면 하다/좋겠다/싶다' '-지 않았으면 하다/좋겠다/싶다' '-지 않기를 바라다/원하다' 등을 들 수 있다.

제안성 어구라는 전략은 화자가 제안 형식의 표현을 통하여 청자에게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방법을 가리킨다. 이은희(2014)에서는 '-하는 것이 어때?'와 같은 확실한 제안의 의미를 갖는 표현뿐만 아니라 '-자', '-ㅂ시다'로 나타나는 청유형 어미 표현들도 행위 지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표현들을 제안성 어구에 포함시켜 함께 다루었다. 따라서 한국어 금지 표현 가운데 '안 -는 게 어때?', '-지 않는 게 어때?', '-지 말지 그래', '-지 맙시다', '그만 합시다' 등이 이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비적 조건의 언급은 행위 지시 예비 조건의 가정들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청자에게 의도한 바를 전달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비 조건의 가정에 따라 다시 네 가지 하위 전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는 청자에게 해당 행위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청자의 수행 능력 묻기'라는 전략인데 한국어 금지 표현 중에 '안/그만 + -(으)ㄹ수 없어?', '-지 않을 수 없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는 '-(으)ㄹ 필요 없다'의 문형으로 행위의 불필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행위 수행 불필요성 언급'이라는 전략이다. 셋째는 해당 행위가 수행될 의지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행위를 지시하는 '청자

의지 묻기'라는 전략이며, '-지 마(시)ㄹ래요/겠어요?', '그만 + ㄹ래?/(시)겠어요?'와 같은 한국어 금지 표현이 이 범주에 속한다. 넷째는 요청 내용에 대한 청자의 허락을 구하는 전략인데 '그만/안 + -(으)면 안 돼요?'의 형태로 청자의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어 금지 표현에 관련하여 논의하였는데 본고에서 어떠한 금지 표현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래에 있는 예시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금지 표현의 범위를 결정하고자 한다. 다음은 화자가 친한 친구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도록 다양하게 발화하는 상황이다.

가. 담배 좀 그만 피워.
나. 담배를 안 피우면 안 돼?
다. 담배를 안 폈으면 좋겠다.
라. 담배를 끊는 게 어떠니?
마. 야, 몸 생각해야지.
바. 아이고, 내 폐가 더 썩겠다.

예시에서 보여 주듯이 '가, 나, 다'에서는 각각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그만', 문형 '안 + -면 안 되다'의 의문형, '안 + -면 좋겠다'의 평서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자가 이러한 발화들을 듣는 순간에 화자의 의도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일반적인 금지 표현으로 취급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다, 라, 마'와 같이 금지의 의미를 지닌 어휘나 문형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지 않는 표현들은 금지 발화로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남아 있다. 성은실(2010)에서는 언어 표현인 문장(sentences)과, 문장이 특정 맥락(context)에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발화(utterances)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레빈슨(Levinson, 1983)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어떠한 언어적 표현이 반드시 금지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기보다는 특정 맥락이

나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을 지니고 발화되는 모든 언어적 표현은 금지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다. 즉, 특정 맥락을 떠나서 어떠한 문장이 금지 표현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 발화를 금지 표현으로 간주해도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은실(2010)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에 따라 '라, 마, 바'의 발화를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라'는 '가, 나, 다'보다 직접성이 덜하고 발화상으로 우회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으나, 이때 청자가 별도의 추론 과정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화자의 의도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라'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가, 나, 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 내용과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그것들에 비하여 표현 형식만 다를 뿐이다. 또한, 이 발화는 김영란(1998)에서 제시한 금지 표현 화행 기능의 두 번째 유형인 {X}는 {Y}에게 하던 [행위1]을 그만두고 {X}가 바라는 다른 [행위2]의 상태로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즉, 화자는 청자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그만두고 담배를 끊는 상태로 전화시킴을 바라는 기대에서 '라'와 같은 발화를 하였으며, 여기서 '담배를 끊는 게 어떠니?'는 앞에 '담배를 피우지 말고'라는 어절을 생략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고 '피우다'의 의미와 반대되는 동사 '끊다'로 발화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담배를 끊다'를 청자에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간주하여 '대안 제시'라는 전략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이와 반대로 '마, 바' 경우에는 명시적인 금지 표현의 요소는커녕 담배라는 단어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대화 맥락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몸을 생각해서 술을 좀 줄이자', '건강을 위해서 운동 좀 해야지', '폐병으로 인해 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공기가 탁해서 가슴이 답답하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금지 화행의 명제 내용과 관련 짓기가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친구의 흡연 행위를 금지하는 특정 맥락에서 두 표현을 다시 분석하면 별도의 추론에 의하여 모두 금지 발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의 경우 화자가 친구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청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흡연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바'의 경우 화자는 자신의 폐가 더 썩을 것이라는 예측을 통해 청자가 원인자인 간접흡연의 피해에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흡연 행위의 부정적인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화자가 의도한 바를 청자에게 매우 간접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발화에서 금지 표현의 요소가 발견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맥락이나 배경 지식에 근거하여 청자가 화자의 발화에 함축된 금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함으로써 금지 화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목적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함축적 의미의 금지 표현들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고에서는 화행 표현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화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 있으므로 해당 표현에 금지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지를 잣대로 하여 살펴보기보다는 해당 표현이 금지 화행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키는 전략이 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가~바'의 여섯 가지 표현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금지 화행 전략의 범위 안에 전부 포함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 금지 화행 수행을 목적으로 금지 의미를 나타내는 수행동사, 부사, 문형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적 전략으로 한정하며, 금지의 단서만을 제공하여 청자의 행위를 명시적이지 않게 막는 동시에 금지의 발화수반력(illocutionary force)을 가진 표현들을 간접적 전략으로 분류한다.

한편, 본 연구의 금지 화행 전략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섯 편의 국내 요청[8], 금지 화행 관련 연구들을 선정하고 그들에서 제시한 구체

8) 국내 금지 화행 전략을 다룬 연구는 이은희(2014), 성은실(2019) 두 편 밖에 없기

적인 화행 전략을 <표 Ⅱ-10>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Ⅱ-10> 연구자별 한국어 요청, 금지 화행 전략 세분화

논문	내용
박지영(2006)	직접 전략: 명시적인 요청, 수행문의 사용, 소망의 표시, 제안성 어구의 사용, 의무의 진술 간접 전략: 가능성에 대한 질문, 청자의 의지에 대한 질문, 강한 암시, 약한 암시, 반어적 부정 질문
수파펀 분룽(2007)	예비 요청: 인사하기, 신분 확인시켜 주기, 호칭하기, 사과하기, 부탁하기, 주의 환기하기,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 보상·보답·약속하기, 상황 설명하기, 이유나 근거 제시하기 본요청: 청자의 능력 묻기, 청자의 의지 묻기, 실현 가능성 묻기, 허락 받기, 명시적 요청하기, 화자의 희망 제시하기, 정보 요청 질문하기, 청유하기, 말끝 흐리기 마무리: 감사하기, 사과하기, 부탁하기, 보상·보답·약속하기, 이유나 근거 제시하기
Chu Wen Bo(2011)	주화행 전략: 명시적인 요청, 청자의 의미 묻기, 실현 가능성 묻기, 의무 진술하기, 의도·희망 표출하기, 제안하기, 정보 요청 질문하기, 허락 받기, 말끝 흐리기 보조화행 전략: 상황 점검하기, 사과·부탁·인사하기, 상황 기술하기, 부담 줄이기, 부담 주기, 보상·약속하기
김혜련(2012)	직접 요청: 명시적 요청하기, 수행문 사용하기 청자 중심형 간접 요청: 제안하기, 청자의 의무를 진술하기,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기, 청자의 의지에 대한 질문하기, 허락 구하기 화자 중심형 간접 요청: 청자의 부담 줄여주기, 소망 표현, 허락하기, 약한 암시하기, 약한 암시하기, 강한 암시

때문에 금지 화행 관련 연구만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재구성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 동안 금지 화행을 요청 화행의 일부로 다뤄 왔던 점을 고려하여 금지 화행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요청 화행 관련 연구들에서 제시한 화행 전략 분석틀도 추가로 참조하기로 한다.

문미경(2014)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전략: 명령하기 관례적이고 간접적인 전략: 수행 동사 묻기, 약화된 수행 동사 묻기, 의무 진술하기, 소망 표현하기, 제안성 어구 묻기, 가능성 묻기 비관례적 간접적인 전략: 목적 전달하기, 상황 설명하기, 상황 질문하기, 이유 말하기, 암시하기, 미완성 발화하기
성천(2019)	주화행 명시적 금지 전략: 강한 금지, 행위 속에 상대를 포함, 제안, 불허 표현, 질문하기, 소망 표현, 규칙 제시, 비인칭화 주화행 암시적 금지 전략: 대안 제시, 상황 강조, 화자 느낌/의견 전달, 청자 행위 확인, 생략 금지 안 함 보조화행 금지 전략: 호칭어, 인사하기, 이유/상황 제시, 약속하기, 관심/배려 전달, 감사하기, 사과하기, 가능함 전제, 어려움 전제, 부담 줄이기, 머뭇거리기, 주저하기, 대안 제의, 강조하기, 이해 구하기, 확인하기

선행 연구들의 화행 전략에 대한 분석틀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이뤄진 요청, 금지 화행 관련 거의 모든 연구들은 블럼-쿨카 외(Blum-Kulka 외, 1984)에서 제시한 화행 전략 틀을 적용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한국어 요청, 금지 화행 연구의 상위 전략 분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직접 전략 - 간접 전략', '주화행 전략 - 보조화행 전략', '청자 중심형 전략 - 화자 중심형 전략'이 그것이다. 또한, 전략을 분류하는 기준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되어 있다.

본 연구의 예비 실험에서 회수된 설문지 내용을 살펴보면 시작말을 생략하고 주화행과 보조화행을 사용한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여서 시작말은 본 연구의 전략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주화행 전략은 본 연구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다시 직접적 전략과 간접적 전략으로 구분해서 논의하겠다. 앞서 기술하였듯이 본고에서 금지 의미를 지닌 수행동사, 부사, 문형 등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적 전략으로 분류하며, 명시적인 금지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금지의 단서만을 제공함으로써 청자의

행위를 막도록 하는 화행을 간접적 전략으로 간주한다. 직접적 전략에 속하는 한국어 금지 표현의 형태적 범주화가 가능하나, 이와 달리 간접적 전략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화자의 개성이나 언어 사용 습관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세부 표현 형식도 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유형화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 나타난 전략들과 함께 예비 실험에서 응답자가 다양하게 사용한 전략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의 간접적 전략 분석틀을 구축할 것이다. 보조화행 전략은 주화행 전략의 체면 위협 정도를 낮추고 청자의 부담감을 줄여 주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금지 화행의 구성단위' 부분에서 논의하였듯이 같은 발화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이 발화가 주화행이 될 수도 있고 보조화행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화행 전략과 보조화행 전략 간에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점은 성천(2019)에서 '금지 안 함'은 금지 화행 전략에 포함시켰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발화를 아예 하지 않는 회피 전략의 경우 분석 범위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의 예비 실험에서는 금지 상황에서의 응답자의 발화 의지를 조사하였고, 발화 의지 평균값이 높은 상황만을 추출하여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즉, 본 연구의 예비 실험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주어진 상황에 처할 때 말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조사함으로써 발화 의지가 높은 상황만을 확보한 것이다. 따라서 응답자가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전략을 검토하고 참고한 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된 주화행과 보조화행 전략 분석틀을 바탕으로 예비 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표 Ⅱ-11>과 같이 금지 화행 전략 분석틀을 고안하였다.

<표 Ⅱ-11> 금지 화행 전략 분석틀

주화행 전략	직접적 전략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 (명령법에 의한 표현)	-지 마세요. -지 말아 주세요. -지 않/말도록/게 하세요. 그만 + -(으)세요.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	'금지', '엄금', '통제', '제한', '불가' 등의 명사, '작작' 등의 부사, '금지하다', '삼가다' 등의 수행 동사가 나타나는 표현
		전략3 의무 진술하기	그만 + -아/어/여야 하(겠)여요./되(겠)어요. -지 말아야 하(겠)여요./되(겠)어요. -지 못해요. 못 + -(시)아/어/여요. -(으)ㄹ 수 없어요. -는 것이 아니에요./안 돼요.
		전략4 불허 표현하기	-(으)(시)면 안 돼요. -(으)(시)면 못 써요. -(시)아/어/여서는 안 돼요.
		전략5 불필요성 언급하기	-(으)ㄹ 필요 없어요. -(으)ㄹ 거 없어요. -(으)ㄹ 바 아니에요.
		전략6 소망 표현하기	-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나아요. 안 + -는 것이 좋겠어요./나아요. 그만/안 + -았/었/였으면 해요./좋겠어요./싶어요. -지 않았으면 해요./좋겠어요./싶어요. 그만/안 + -기를 바래요./원해요. -지 않기를 바래요./원해요.

		전략7 제안하기	-지 않아도 돼요. 안 + -아/어/여도 돼요. 안 + -는 것이 좋지 않아요?/좋지 않을까요? 안 + -는 것이 어때요?/어떨까요? -지 않는 것이 어때요?/어떨까요? -지 말지 그래요?
		전략8 청유법 사용하기	-지 말자./맙시다. 그만 + -자./-(으)ㅂ시다.
		전략9 청자 의지 묻기	-지 말래?/마실래요? -지 마시겠어요? 그만 + -(으)ㄹ래?/-(으)실래요? 그만 + -(으)(시)겠어요? 안/그만 + -(으)ㄹ 수 없(겠)어요?/없을까요? -지 않을 수 없(겠)어요?/없을까요?
		전략10 청자 허락 구하기	-지 않으면 안 돼요?/안 될까요? -지 않아도 돼요?/될까요? 안/그만 -(으)면 안 돼요?/안 될까요? 안/그만 해도 돼요?/될까요?
	간접적 전략	전략11 대안 제시하기	담배를 피우시면 다른 데 가서 피우세요.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	손님, 저희 매장에서 피팅룸 동반 입장이 어렵습니다.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전략14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그러다가 몸 상해. (과음 금지)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배달 시켰네요. 냄새 좋네요. (취식 금지)
		전략16 생략하기	저기... 담배 좀...

보조화행 전략	대안 제시하기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피우세요.
	이유/규칙 제시하기	내가 음식을 넉넉히 준비해 놓았으니까 배달 안 시켜도 돼.
	전제하기	급한 일이 없으시면 영화관에서 핸드폰 좀 그만 보세요.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남들 앞에서 내 별명 부르지 마. 창피해.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된다. 그만 마셔.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연구실 자리가 바뀌었나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여기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손님, 저희 매장에서 피팅룸 동반 입장 어려워서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죄송합니다.
	주의 요청하기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시면 안 돼요. 다음번부터 유의하세요.
	감사하기	사장님, 깻잎을 넣지 말아 주세요. 감사해요.

2.2. 공손성에 관한 이론

공손에 관한 연구의 주류에 해당하는 이론은 레이코프(Lakoff, 1973)의 공손 규칙, 리치(Leech, 1983)의 공손 원리, 그리고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 1987)의 공손 전략 등이 있다.

공손(politeness)의 정의에 대하여 레이코프(Lakoff, 1990)에서는 '공

손은 인간의 의사소통 과정에 존재하는 갈등과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안된 대인 관계상의 체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레이코프(Lakoff, 1973)에서는 우선 화용적 능력에 대하여 두 가지 규칙을 제시하였다.

가. 명료하라 (Be clear.)
나. 예의를 지켜라 (Be polite.)

이어서 위 규칙 아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세부적인 공손 규칙(Rules of Politeness)을 제안하였다.

가. 강요하지 마라 (Don't impose.)
나. 선택권을 주라 (Give options.)
다. 청자가 기분 좋게 해주라(Make A feel good-be friendly.)

또한 레이코프(Lakoff, 1973)에서는 공손 규칙이 문화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공손 규칙이 보편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개별 문화와 사회에 따라 어떠한 행위가 예의바른 것이며 어느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 우선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리치(Leech, 1983)에서는 그라이스(Grice)의 협력 원리 접근법을 적용하여 공손 원리(Politeness Principle: PP)를 제안하였다. 리치(Leech, 1983)의 공손 원리에 의하면 의사소통 과정에 협조적이고 공손성을 추구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그는 공손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불손한 표현을 최소화하라(Minimize the expression of impolite

beliefs.)

나. 공손한 표현을 최대화하라(Maximize the expression of polite belief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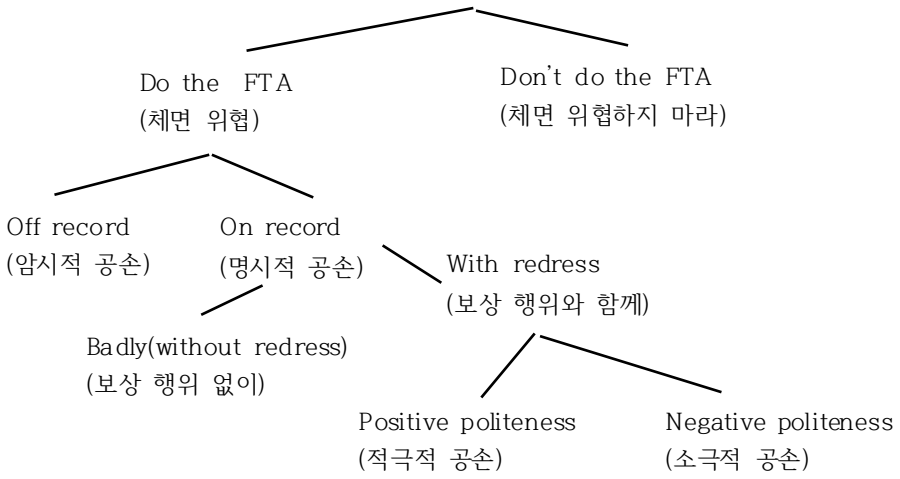
정리하자면 리치(Leech, 1983)는 그의 공손 원리 아래에 청자가 불손하게 생각할 표현을 최소화하라는 소극적 공손(negative politeness)과 청자가 공손하게 생각할 표현을 극대화하라는 적극적 공손(positive politeness)을 포함한 두 가지 공손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 공손 원리에는 또 다시 재량 격률, 관용 격률, 칭찬 격률, 겸손 격률, 동의 격률, 동정 격률 등 여섯 가지 하위 격률[9)]이 설정되어 있다.

재량 격률(tact maxim)은 타인에 대한 비용은 최소화하고 혜택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며, 관용 격률(generosity maxim)은 자신에 대한 이익은 최소화하고 비용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칭찬 격률(approbation maxim)은 타인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며, 겸손 격률(modesty maxim)은 본인에 대한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난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동의 격률(agreement maxim)은 본인과 타인 간의 불일치는 최소화하고 일치는 최대화하라는 것이며, 동정 격률(sympathy maxim)은 본인과 타인 간의 증오는 최소화하고 동정은 최대화하라는 것이다.

---

9) 1. Tact Maxim : a. Minimize cost to other. b. Maximize benefit to other.
2. Generosity Maxim : a. Minimize benefit to self. b. Maximize cost to self.
3. Approbation Maxim :
a. Minimize dispraise of other. b. Maximize praise of other.
4. Modesty Maxim : a. Minimize praise of self. b. Maximize dispraise of self.
5. Agreement Maxim :
a. Minimize disagreement between self and other.
b. Maximize agreement between self and other.
6. Sympathy Maxim :
a. Minimize antipathy between self and other.
b. Maximize sympathy between self and other(노명현, 2012: 309 재인용).

레이코프(Lakoff)의 공손 규칙과 고프먼(Goffman)의 체면(face) 개념에 영향을 받아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 1987)에서는 공손에 관한 이론을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대화의 목적은 화자와 청자 간의 체면 유지에 있다고 밝혔다.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 1987)에 의하면 체면은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적극적 체면은 화자 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미로 상호작용 대상자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의도가 타인들에게 수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한다. 소극적 체면은 화자 자신의 욕구가 타인들에 의해서 방해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들은 명령, 충고, 반박, 거절 등 이러한 체면욕구(face-wants)를 위협하는 모든 언어적 행위를 체면위협 행위(FTA)라고 칭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참여자들은 그러한 위협을 줄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림 Ⅱ-1]과 같이 다양한 언어적 공손 전략(politeness strategy)을 사용한다.



[그림 Ⅱ-1]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78, 1987)의 공손전략

또한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은 체면 위협 심각성 정도를 결정하거나 상황에 따라 화자가 어떠한 공손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를 좌우하는 세 가지 사회적 변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 D)
나. 청자에 대한 화자의 상대적 힘 (relative power: P)
다. 특정 문화에서의 부담에 관한 절대적 정도 (absolute ranking: R)

결과적으로,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에 의해 설정된 체면 위협 정도(weightiness=Wx)를 사회적 거리(D)와 상대적 힘(P), 그리고 부담 정도(R)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Wx = D(S,H) + P(H,S) + Rx$$

위 공식에서 변항(x)은 특정 문화권을 의미하며 Wx의 값은 특정 문화권에서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 및 상대적 힘, 그리고 해당 문화에서 가지는 부담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정 언어행위로 의사소통할 때 화자가 사용하는 전략의 공손 정도는 Wx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는 보통 화청자의 사회적 친분과 관계되며, 상대적 힘은 상하관계와 관련된 요소이고 대화 참여자 사이에 갖는 권위나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거리 및 상대적 힘에 따라 존대법 체계도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적절한 공손 전략을 선택하여야 한다.

리치(Leech)와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의 공손 이론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내세울 만한 점은 두 이론 모두 '일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언어 행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공손성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려는 인간 본연의 성향은 결국 상호작용 대상 간에 서로의 체면(face)을 최대한도로 유지시키려는 책략으로 구현된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이론이

라는 점이다[10]. 이러한 발상법을 바탕으로 공손성을 높이는 세 가지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상대방과의 연대성을 높여주는 표현, 즉 긍정적 공손 표현을 사용하는 것
나. 상대방의 행위를 제약하거나 억제하는 표현, 즉 부정적 공손 표현을 사용하는 것
다. 명백한 부과적 표현, 즉 '비공식적' 표현을 회피하는 것

2.3. 화용적 실패에 관한 이론

2.3.1. 화용적 능력의 정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란 개념은 하임스(Hymes, 1971)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촘스키(Chomsky, 1965)가 언어 능력(Linguistic Competence)에 관한 정의를 문법 규칙에 대한 지식만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문법적 능력뿐만 아니라 언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회문화적 능력까지 의사소통 능력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커넬과 스웨인(Canale & Swain, 1980, 1983)에서는 하임스(Hymes, 1971)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 의사소통 능력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그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문법적 능력(Grammatical competence)과 담화적 능력(Discourse competence),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 그리고 전략적 능력(Strategic competence)을 포함한 네 가지로 그 세부 능력을 구분하여

10) 김진우, 언어와 담화(한국문화사, 2017).

살펴보았다. 여기서 문법적 능력과 사회언어학적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임스(Hymes, 1971)의 논의와 거의 동일하며, 담화적 능력은 언어적 맥락에 적합한 문장을 문어나 구어 텍스트로 다양하게 조직하는 능력을 말하고, 전략적 능력은 불완전한 의사소통 능력을 보완하여 의사소통 과정에 생긴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바흐만(Bachman, 1990)에서는 언어능력(language competence)을 조직적 능력(organizational competence)과 화용적 능력 (pragmatic competence)으로 대별하였다. 조직적 능력이 문법적 능력(grammaticalcompetence)과 텍스트적 능력(textual competence)으로 구성되는데, 문법적 능력은 음운, 어휘, 통사 등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을 구사하는 것과 관계되고, 텍스트적 능력은 문장들을 상호 연결하는 규칙을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 화용적 능력의 하위 범주로 발화수반능력(illocutionary competence)과 사회언어학적 능력(sociolinguistic competence)을 들 수 있으며, 발화수반능력은 언어의 기능적 차원에서 발화에 담긴 언표내적 효력을 발휘함으로써 특정 언어 행위를 이끌어내는 능력을 가리키고,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공손성, 함축, 은유 등 언어의 사회문화적 측면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화용적 능력이란 특정 발화 맥락에 담긴 사회문화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2.3.2. 화용적 실패[11]의 정의 및 유형

11) 화용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해서 학자마다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 '화용적 오류(pragmatic error)', '화용적 문제(pragmatic problem)'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화용적 실패'라는 개념을 채택하기로 한다.

한상미(2005)에서는 의사소통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을 생산의 문제와 이해의 문제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한상미(2005)에 따르면 생산의 문제는 학습자가 목표어를 통하여 발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 문제이며, 이해의 문제는 학습자가 모어 화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발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의사소통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방법으로 채택한 담화완성테스트는 선행 발화 없이 응답자로 하여금 제시된 상황에서 직접 발화하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학습자가 선행 발화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이해의 문제를 관찰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본고는 생산의 문제만을 다루기로 한다. 생산의 문제는 또 다시 문법적 오류와 화용적 실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문법적 오류는 문법 지식 부족으로 인해 문장 또는 발화 내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문법적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선정하였으므로 발화에서 문법적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본고는 화용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의사소통 문제를 다루는 데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 오류의 경우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금지 화행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문법적 오류만을 밝히고자 한다.

넓은 의미에서 화용적 실패는 제2언어 학습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용적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하지 못할 때 초래되는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 토머스(Thomas, 1983)에서는 비교 문화적 차원에서 화용적 실패(pragmatic failure)를 화용언어적 실패(pragmalinguistic failure)와 사회화용적 실패(sociopragmatic failure)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화용언어적 실패는 언어적인 오류로 간주할 수 있으며 잘못된 어휘나 문법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화용적 힘(pragmatic force)을 언어적 부호로 전환할 때의 차이로 생긴 것이다. 여기서 화용언어적 실패와 문법적 오류를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상미(2005)에서 맥락에 적합한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여 발생하는 화용언어적 실패는 목표 '언어 자체'에 관한 문장 내적 지식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법적

오류와 다르다며, 화용언어적 실패는 맥락의 측면에서 발화 의도를 손상시킬 수 있으나 문법적 오류는 문법적 차원에서 발화 정보의 의미 손상과 관계된다고 밝혔다.

사회화용적 실패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적인 맥락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으며 비교 문화의 관점으로 언어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옛날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오면서 활발한 인적 및 문화적 교류를 통하여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두 나라의 이데올로기가 상이하므로 서로 다른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가지고 다른 패턴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사회문화적으로 수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고 각자 특징적인 면을 갖추고 있기 마련이다. 이때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불일치나 충돌이 일어나면 사회화용적 실패를 유발한다. 또한, 토머스(Thomas, 1983)에서는 화용적 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째, 청자가 화자의 본래 의도와 다르게 화자의 발화를 약하거나 강하게 이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둘째, 화용적 실패는 청자가 요청의 의도로 했던 화자의 발화를 명령으로 추론하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셋째, 화용적 실패는 청자가 화자가 의도했던 바와 달리 화자의 발화를 모호하게 인식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넷째, 화용적 실패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담긴 의도를 청자가 정확히 해석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화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의 체계가 서로 다를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한 화용적 실패 분석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화용적 실패 관련 선행 연구에 제시된 세부적인 분석틀을 <표 Ⅱ-12>와 같이 연구자별로 정리하였다.

<표 Ⅱ-12> 한국어교육에서 화용적 실패 관련 분류

연구자	화용적 실패	
	화용언어적 실패	사회화용적 실패
한상미 (2005)	1. 호칭 2. 통사적 완화장치 3. 어휘·구 완화장치 4. 보조화행 5. 존대법 6. 화용적 관례어 7. 담화표지 8. 비언어적 요인	1. 사회적 거리 2. 간접성의 정도 3. 가치관 4. 부담의 정도
이정란 (2010)	1. 격식적 표현 2. 담화표지 3. 관례적 표현 4. 공손성	1. 격식적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 2. 사고 중심의 차이
이경숙 (2012)	1. 호칭 2. 존대법 3. 통사적 완화장치 4. 관례어 5. 비언어적 요인	1. 사회적 거리 2. 가치관
신상현 (2013)	1. 호칭 2. 담화표지와 맞장구 3. 대화 내용의 일관성 4. 통사적 완화장치	1. 가치관 2. 상대 국가에 대한 편견 3. 간접성의 정도
최지은 (2014)	1. 어휘·구 2. 담화표지 3. 완화장치 & 강화장치 4. 비언어적 요인	1. 부담의 정도 2. 상대적 힘
강소아 (2017)	1. 호칭 2. 어휘·구 3. 완화장치 4. 보조화행 5. 존대법 6. 관례어 7. 비언어적 요인	1. 사회적 거리 2. 간접성의 정도 3. 가치관 4. 부담의 정도 5. 사회적 체계

선행 연구를 검토한 결과 화용적 실패에 대한 논의는 모두 화용언어적 실패와 사회화용적 실패로 나누어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화용언어적 실패와 사회화용적 실패를 구별하는 경계가 명확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경숙(2012)에서는 언어적 표현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구성원으로써 소재한 문화 공동체의 사회, 역사, 관습 등의 요소로부터 복합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표현의 적절성은 단순한 언어적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믿음 체계 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친한 친구에게 과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맥락에서 응답자가 “술로 기분전환하지 말고 몸에 대해 좋은 운동을 하세요.”라고 발화한 것은 화용언어적 실패 중 존대법 실패에 해당하는 사례가 되며, 또한 화청자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친한 친구 사이에 보통 반말을 사용한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화용언어적 요인과 사회화용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학습자의 발화에서 나타난 대우법만 해체나 해라체로 고쳐 주면 화용적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가지 화용적 실패 가운데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경우 통사적 완화장치나 존대법 등의 화용언어적 문제만 바로잡으면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례를 화용언어적 실패로 분류하며, 해당 발화에서 드러난 화용언어적 문제를 수정하여 복원시켜도 여전히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어색하거나 무례한 느낌을 가져오는 경우를 사회화용적 실패로 처리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위와 같이 선행 연구에 제시된 화용적 실패 분석 체계를 참고하며, 예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게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서면 DCT로 자료를 수집한 상황이라 구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담화표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비언어적 요인도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어휘·구 완화장치를 부적절하게 사

용하여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어휘·구 완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제 의자를 그만 차 주세요.”의 경우 ‘좀’과 같은 어휘 완화장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화용적 실패가 유발될 만큼 발화의 체면 위협 정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한국어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용언어적 실패의 경우 어휘·구 완화장치와 담화표지, 비언어적 요인을 제외하고 호칭, 통사적 완화장치, 존대법 그리고 관례어로 분류해서 살펴볼 것이다. 둘째, 사실 학습자 발화의 부담의 정도와 간접성 정도는 그들이 인식하는 화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 및 고유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사회화용적 실패는 사회적 관계와 가치관 두 가지로만 나누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화용적 실패를 유발하는 요인 및 분석 내용을 <표 Ⅱ-13>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표 Ⅱ-13> 본 연구를 위한 화용적 실패 분석틀

화용적 실패	분석 단위	분석 내용
화용언어적 실패	호칭	금지 화행을 시작할 때 상대방을 부르거나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요소를 맥락에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화용적 실패를 초래한 경우
	통사적 완화장치	의문문, 연결 구문, 가정법, 시제 등을 포함한 금지 화행의 부담감이나 체면 위협 정도를 줄이는 표현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오해나 불손을 불러일으킨 경우
	존대법	청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여야 할 존대 어휘, 어미, 조사 등을 부적절하게 선택하여 화용적 실패를 유발한 경우
	관례어	‘죄송하지만’,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등과 같이 관습적으로 쓰는 고정 표현을 부자연스럽게 사용하여 화용적 실패가 발생한 경우
사회화용적 실패	사회적 관계	사회적 거리 및 상대적 힘에 따른 화청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화용적 실패가 일어난 경우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한 학습자의 부적절한 발화 내용으로 인하여 공손성을 위반하거나 모호함을 유발한 경우

Ⅲ. 금지 화행 조사 및 결과 분석

3.1. 금지 상황 설계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을 살펴보면 히지리다와 손(Hijirida & Sohn, 1986)에서는 친족 관계(kinship), 나이(age), 지위/신분(rank/status)이 요청 화행에 영향을 끼친 가장 대표적인 변인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은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나 화행 관련 대부분의 연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변인으로 설정한 사회적 거리와 상대적 힘은 본 연구의 사회적 변인으로 삼겠다. 이 두 가지 사회적 변인은 블럼-쿨카, 하우스와 카스퍼(Blum-Kulla, House & Kasper, 1989)의 요청 화행 전략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채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이은희(2014)에서 제시된 금지 화행 세부 기능을 또한 변인으로 삼는다. 아울러 이은희(2014)에서는 가족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에서 화청자의 사이가 친한 경우 금지의 [명령] 기능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화청자의 사이가 소원한 경우 [권유], [부탁], [격려/기원] 기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DCT 문항을 설계하였다.

예비 실험은 한국인 모어 화자와 고급 수준 중국인 학습자 각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연령은 모두 20대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금지 화행 발화 양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각 상황은 학습자의 한국 생활에서 일어날 가능성과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위를 말로 금지하겠다는 의지를 1~5점('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척도로 표시하여 조사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나타난 상황적절성 조사의 결과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금지 화행 상황 설정을 위한 상황적절성 조사 결과

기능	사회적 거리	상대적 힘	상황	상황 발생 가능성 평균값 (한국인)	금지의지 평균값(한국인)	상황 발생 가능성 평균값(중국인)	금지의지 평균값(중국인)
[명령]	소	화자>청자	상황1: 부하 직원에게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	4.3	4.5	3.2	4.0
			상황7: 학생에게 연구실 자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	4.1	4.1	3.9	3.6
[요청/부탁]	친	화자>청자	상황2: 동아리 활동실에서 사이 좋은 후배에게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말함	4.5	3.6	3.6	3.9
		화자=청자	상황8: 룸메이트에게 밤늦게 노트북으로 작업하지 말 것을 말함	4.3	4.1	4.5	4.0
			상황10: 공공장소에서 친구에게 내 별명을 부르지 말 것을 말함	4.1	3.7	3.6	3.8
		화자<청자	상황14: 연구실 선배에게 심부름 자주 시키지 말 것을 말함	4.0	2.3	3.7	3.6
	소	화자>청자	상황6: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시 깻잎을 넣지 말 것을 말함	4.3	4.0	4.8	4.5
		화자=청자	상황3: 영화관에서 옆 사람에게 핸드폰을 자꾸 보지 말 것을 말함	4.2	3.7	4.1	3.3
		화자<청자	상황12: 손님들에게 피팅룸 동반 입장하지 말 것을 말함	4.1	4.3	3.2	3.8
			상황15: 직장 상사에게 경박한 말투로 대화하지 말 것을 말함	3.9	2.3	3.9	4.2
[권유]	친	화자>청자	상황11: 내 생일날 후배에게 배달을 시키지 말 것을 권유	4.3	4.5	3.3	3.5
		화자=청자	상황16: 친구에게 법 먹듯이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을 권유	4.4	4.4	3.9	4.2
		화자<청자	상황4: 코로나 시국에 선배에게 술집/클럽에 가지 말 것을 권유	4.1	2.6	3.3	3.6

[기원/격려]	친	화자>청자	상황5: 직장 후배에게 눈이 오는 날에 내가 운전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함	3.4	3.6	2.4	3.3
		화자=청자	상황13: 친구에게 내가 혼자 밤길을 걷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함	3.9	3.9	4.3	4.1
		화자<청자	상황9: 선배에게 중요한 택배 대신 수령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함	4.0	4.2	4.0	3.6

우선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예비 실험에서 [격려/기원] 기능과 관련된 DCT 문항을 완성하였을 때 학습자 집단과 모어 화자 집단이 모두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와 같은 단일하고 고정된 표현을 사용하였고 두 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다시 비교·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격려/기원] 기능 관련 문항을 제외한 다음에 수행한 예비 실험에서 상황 발생 가능성 평균값과 금지 의지 평균값이 모두 3.5 이상[12]인 상황6, 상황7, 상황8, 상황10, 상황16을 금지 화행 상황 설정을 위한 적절한 화행으로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상황8 및 상황10은 모두 사회적 거리가 가깝고 화자의 상대적 힘이 청자와 동등한 [요청/부탁] 기능에 해당한다. 상황8에서 특히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응답에 있어서 10명의 응답자 중의 1명만 '너무 피곤해서 미안한데 밤늦게 노트북 하지 말아줘'라고 금지 의미의 요소가 명시적으로 들어 있는 금지 표현을 발화하였는데 나머지 9명의 응답자들이 모두 '이유 제시하기'와 '대안 제시하기' 등의 간접적 전략에 속하는 표현으로 금지 화행을 수행하였다. 이와 반대로 상황10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금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전형적인 금지 표현으로 발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최대한으로 다양한 금지 표현을 다루고자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둘 중에 상황10을 본 실험의 문항으로 채택

12) 이는 평균값 3.5 이상인 것은 실제 생활에서 그러한 금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평균값 3.5 이하의 경우 현실에서 그러한 금지 상황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할 것이다.

상황6은 식당에서 음식 주문 시 점원에게 깻잎을 넣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인데 피실험자가 응답한 설문지를 살펴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10명 중에 1명만 '저가 깻잎을 못먹어서 넣지 말아주세요'라고 답하였고 나머지 9명의 응답자들은 모두 '넣지 말다'와 같은 의미를 지닌 동사 '빼다'로 발화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집단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앞에 논의하였듯, 이 상황에서 '빼다'라는 표현으로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것은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안 제시하기'라는 전략에 해당하나, 두 집단 간의 대조를 통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금지 화행 교육 방안에 보다 다양한 금지 표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 문항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구어에서 어떠한 것을 전혀 넣지 말라고 말할 때 '넣지 말다'보다는 '빼다'를 훨씬 선호하는 한국인의 언어 사용 습관을 감안하여 상황 설정에 관해서 '완전히 넣지 말 것'이 아닌 '일부만 넣지 말 것'이라면 응답자가 '넣다'와 반대되는 동사 '빼다'만으로 금지 화행을 수행하기에 곤란을 겪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금지 표현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해당 문항은 카페 직원에게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말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상황 발생 가능성 평균값 및 금지 의지 평균값이 3.5 미달인 문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피실험자에게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상황2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의 금지 의지 평균값은 2.9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서의 선후배 관계는 한국만큼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서 취식 금지의 동아리실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후배가 음식을 먹더라도 그냥 넘어가요.', '아주 친한 후배에게 금지하는 말을 못 해요.'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의 금지 의지를 제고할 수 있게 '사이좋은 후배'를 대신하여 '아는 후배'로 제시하겠다.

상황14는 막내인 내가 연구실 선배에게 심부름 자주 시키는 것을 금

지하는 경우인데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금지 의지 평균값은 2.3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가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로는 '선배님이 심부름 자주 시켜도 상관없어요. 제가 막내니까요.' '솔직히 심부름하는 게 고생만 하지 실제로 제가 손해를 보는 게 별로 없어요.'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즉,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금지 의지가 낮은 것은 엄밀한 선후배 관계 및 자신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지 않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 '막내'라는 전제를 제시하지 않고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해당 문항을 '선배에게 심한 장난을 하지 말 것'으로 바꿀 것이다. 이 경우 화자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체면이 손상됨으로써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금지 의지가 높아져 풍부한 금지 표현을 수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상황3은 영화관에서 옆에 앉은 사람이 핸드폰을 자꾸 보고 거기서 나온 불빛이 영화 관람에 방해가 돼서 그 행위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금지 의지 평균값이 3.3으로 나와 기준치 3.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피실험자의 실제 응답 양상을 살펴봤을 때 상황6과 유사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즉, 응답자들은 동사 '보다'에 의한 금지 표현(예: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핸드폰을 그만 보실래요?') 보다 동사 '끄다'를 통한 표현 형식(예: '핸드폰을 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핸드폰을 꺼 주시겠어요?')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금지 표현의 사용 양상을 관찰하는 데에 유용한 문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되는 금지 상황을 참고하여 상황3과 비슷한 맥락을 가진 것으로 'KTX에서 뒤에 앉은 사람에게 내 의자를 차는 것을 금지'를 채택할 것이다.

상황11 및 상황12의 경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이 응답한 상황 발생 가능성의 평균값은 각각 3.3, 3.2로 기준치 3.5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황11에 대한 인터뷰 결과 '중국에서 보통 선배가 밥 사 주는데 후배가 먼저 배달을 시키자고 제안할 리가 없는 것 같아요.'라고 답하였는데 실제로 자기와 친하게 지내는 선배라면 후배로서 선배에게 밥을 사

주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어진 맥락은 선배의 생일날을 전제로 하므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후배가 먼저 배달을 시키자고 제안하는 가정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상황12에 관한 인터뷰 결과로는 중국인 학습자 한 명이 '저는 친구와 같이 하나의 피팅룸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이런 금지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어요.'라고 설명하였으며, 다른 한 명이 '중국에서 피팅룸 동반 입장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피팅룸 벽에 붙어 있는 '동반 입장 불가'와 같은 스티커를 본 적이 있긴 해요.'라고 말하였다. 한편, 상황11 및 상황12 실제로 발생이 가능할지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생각을 수치로 보면 각각 4.3, 4.1로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어떠한 중국인 학습자가 자신이 한국에서 상황11 및 상황12와 똑같은 경우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상황들이 한국에서의 실생활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입장에서는 위 상황들이 한국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이다. 또한, 위 상황들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중국인 학습자들의 평균값이 높지 않을지라도 금지 의지 평균값이 모두 기준치 3.5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정말로 상황11 및 상황12에 처한다면 그래도 말로 금지 화행을 수행하겠다는 뜻이고 이 점은 역시 학습자들이 다양한 표현으로 응답한 설문지 자료에서 확인된다. 종합해 보면 이 두 개의 문항은 금지 화행 수행 양상을 살피는 데에 지장이 되지 않아 수정할 필요 없이 본 조사에 적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황4는 코로나 시국에 선배에게 클럽에 가지 말 것을 권유하는 경우인데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금지 의지 평균값은 2.6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왔고 한국인 응답자 중에도 두 명이 발화하지 않는 회피 전략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금지 의지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인 두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는 1점이나 보였으며 그 원인은 역시 한국의 무거운 선후배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사후 인터뷰에서도 한국인 응답자들이 대부분 이 상황에서 굳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따

라서 상황4는 중국인 학습자와 대조하는 측면에서 금지 화행 수행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금지 화행 관련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DCT 문항들을 참조하여 해당 기능에서 화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의 점장에게 폭설 날에 운전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상황을 설정하게 되었다.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걸쳐서 최종적으로 <표 Ⅲ-2>와 같이 본 실험을 위한 DCT 문항을 작성하였다.

<표 Ⅲ-2> 본 실험을 위한 담화완성테스트 설문 상황

기능	사회적 거리	상대적 힘	상황
[명령]	소	화자>청자	상황4: 학생에게 연구실 자리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
[요청/부탁]	친	화자>청자	상황1: 동아리 활동실에서 아는 후배에게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말함
		화자=청자	상황9: 공공장소에서 친구에게 내 별명을 부르지 말 것을 말함
		화자<청자	상황5: 선배에게 심한 장난을 하지 말 것을 말함
	소	화자>청자	상황6: 카페 직원에게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말 것을 말함
		화자=청자	상황2: KTX에서 뒤에 앉은 사람에게 내 의자를 차지 말 것을 말함
		화자<청자	상황8: 손님들에게 피팅룸 동반 입장하지 말 것을 말함
[권유]	친	화자>청자	상황10: 내 생일날 후배에게 배달을 시키지 말 것을 권유
		화자=청자	상황7: 친구에게 밥 먹듯이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을 권유
		화자<청자	상황3: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의 점장에게 폭설 날에 운전하지 말 것을 권유

3.2.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분석

본 장에서 금지 화행 전략은 전체 집단별, 상황별, 사회적 변인별로 분석하였으며,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그리고 중국인 모어 화자 세 집단 간에 유사점 및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화행 전략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 26.0을 활용하여 먼저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 두 집단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고,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 전략에 대해서만 다시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을 추가하여 세 집단에 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는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이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더 가까운지 아니면 양국 모어 화자 집단의 양상이 서로 더 비슷한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습자 집단의 주화행 전략 사용 양상의 특징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보조화행 전략 분석은 보조적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응답자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양적 분석보다 질적으로 빈도 분석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 외에 차이가 생긴 원인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실험 후 조사 대상에게 면담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3.2.1. 집단별 전체 분석

모든 금지 상황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3>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1-10)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2.94	1.531	6.143***	.000

	KNS	50	11.28	1.144		
전략2	CKL	50	10.58	.758	-3.097**	.003
	KNS	50	11.20	1.195		
전략3	CKL	50	10.24	.476		
	KNS	50	10.38	.567		
전략4	CKL	50	10.88	.824		
	KNS	50	10.68	.794		
전략5	CKL	50	10.18	.388		
	KNS	50	10.06	.274		
전략6	CKL	50	11.02	1.040	4.473***	.000
	KNS	50	10.28	.536		
전략7	CKL	50	10.30	.544		
	KNS	50	10.26	.443		
전략8	CKL	50	10.04	.198		
	KNS	50	10.08	.274		
전략9	CKL	50	10.28	.607		
	KNS	50	10.14	.405		
전략10	CKL	50	10.26	.633		
	KNS	50	10.24	.555		
전략11	CKL	50	11.64	.985		
	KNS	50	11.48	.677		
전략12	CKL	50	10.68	.741	-3.631***	.000
	KNS	50	11.26	.853		
전략13	CKL	50	10.44	.611	-5.102***	.000
	KNS	50	11.28	.911		
전략14	CKL	50	10.16	.370		
	KNS	50	10.18	.388		
전략15	CKL	50	10.28	.497	-4.759***	.000
	KNS	50	11.00	.948		
전략16	CKL	50	10.08	.274		
	KNS	50	10.20	.404		

*P<.05 **P<.01 ***P<.001

<표 Ⅲ-4>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1-10)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12.94	1.531	17.080	.000	학-한	1.660***	.000
	KNS	50	11.28	1.144			학-중	1.180***	.000
	CNS	50	11.76	1.661			한-중	-.480	.103
전략2	CKL	50	10.58	.758	14.087	.000	학-한	-.620***	.000
	KNS	50	11.20	1.195			학-중	.280	.109
	CNS	50	10.30	.505			한-중	.900***	.000
전략6	CKL	50	11.02	1.040	12.513	.000	학-한	.740***	.000
	KNS	50	10.28	.536			학-중	.560***	.000
	CNS	50	10.46	.646			한-중	-.180	.245
전략12	CKL	50	10.68	.741	7.904	.001	학-한	-.580***	.000
	KNS	50	11.26	.853			학-중	-.500**	.002
	CNS	50	11.18	.774			한-중	.080	.614

전략13	CKL	50	10.44	.611	31.465	.000	학-한	-.840***	.000
	KNS	50	11.28	.911			학-중	-1.560***	.000
	CNS	50	12.00	1.245			한-중	-.720***	.000
전략15	CKL	50	10.28	.497	20.773	.000	학-한	-.720***	.000
	KNS	50	11.00	.948			학-중	.060	.657
	CNS	50	10.22	.465			한-중	.780***	.000

*P<.05 **P<.01 ***P<.001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전략1 '명시적인 금지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전략11 '대안 제시하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직접적인 금지보다 다른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금지하는 편이었으며 이에 비하여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체면 위협 가능성이 가장 높은 명령법에 의한 명시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전략1 '명시적인 금지하기',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6 '소망 표현하기',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중국인 학습자와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전략2와 전략15의 사용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전략 사용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모국어인 중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전략2의 경우 학습자 집단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금지 의미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수행동사, 부사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수행동사, 부사의 종류도 훨씬 더 풍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자 집단이 주로 수행동사 '금지하다/금지되다'에 편중하여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에 비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작작', '불가하다', '자제하다','삼가다' 등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수행부사, 형용사, 동사를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보였다. 전략1, 전략6, 전략12의 사용에 관하여 중국인 모어 화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비슷한 양상

이 나타났다. 이시하라와 코엔(Ishihara & Cohen, 2014)[13]에 따르면 이는 학습자의 목표어의 언어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략13의 경우 평균치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가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에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12.00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학습자의 이러한 전략의 사용의 경우 모국어 전이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Ⅲ-5>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1-10)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38	10.4%%	41	12.2%	53	14.8%
이유/규칙 제시하기	152	41.5%	80	23.7%	95	26.5%
전제하기	17	4.6%	22	6.5%	18	5.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62	16.9%	62	18.4%	45	12.6%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13	3.6%	13	3.9%	24	6.7%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25	6.8%	58	17.2%	47	13.1%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38	10.4%	32	9.5%	26	7.3%
주의 요청하기	7	1.8%	25	7.4%	18	5.0%
감사하기	14	3.9%	4	1.2%	32	9.0%
합계	366	100%	337	100%	358	100%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세 집단 중에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보조화행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한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다른 두 집단보다 총 337회로 보조화행 전략을 매우 낮은 빈도로 구사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금지 화행 수행 시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보조화행 전략을 적게 사용한다는 성천(2019)에서 내린 결론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중국인 학습자가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거나 화목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보조화행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금지 화행을 보다 조심스럽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3) 이시하라와 코엔(Ishihara & Cohen, 2014)에 따르면 학습자의 화용 능력의 부족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는 타언어의 화용적 규범의 영향, 목표어의 언어능력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차이가 많이 나는 개별적인 보조화행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CKL10#1: OO야, **동아리방에서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날 수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미안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먹지 마.
KNS16#7: 야, 이제 술보다는 다른 취미를 만들어서 집중을 해봐라. **술 마시면 결국 건강 나빠지고 시간 버리는 거 말고 더 있냐?**
KNS46#1: OO아 있잖아, 우리 원래 활동실에서는 뭐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다음에는 조심해줘.**

개별 보조화행 전략을 살펴보자면 우선 세 집단에서 제일 선호하는 보조화행 전략은 모두 '이유/규칙 제시하기'이었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각 전략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난 데에 비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 '이유/규칙 제시하기' 전략이 압도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치상으로 한국인 모어 화자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하였다. CKL10#1는 취식 금지의 동아리 활동실에서 후배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는 상황에서 수집한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인데 먼저 "동아리방에서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날 수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라는 금지의 원인이나 정해진 규칙을 밝힌 다음에 청자의 행위를 보다 합리적으로 막고자 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유를 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문형을 분석하자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모두 전제 의미를 나타내는 '-(으)ㄴ/는데'와 이유나 근거를 나타내는 '-아/어/여서'를 많이 사용한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학습자 집단에서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전략을 25회 사용하였고 빈도수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중국인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이는 중간언어의 특성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문 KNS16#7 친구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에서 술 대신에 다른 취미를 만든다는 대안을 제시한 후에 "술 마시면 결

국 건강 나빠지고 시간 버리는 거 말고 더 있냐?”라는 반문을 통하여 술을 많이 마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강조하고 청자로 하여금 그 심각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금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이 전략은 다른 보조화행 전략과 달리 청자의 체면을 보호하기보다는 반문구나 강조하는 문형을 통하여 화자의 심정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청자로 하여금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함으로써 금지의 효과를 높여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의 요청하기’는 학습자 집단이 겨우 7회 제일 적게 사용하는 전략이었지만 중국인 모어 화자 및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각각 18회, 25회로 학습자 집단의 두세 배 정도가 되는 전략이었다. 이는 역시 학습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예문 KNS46#1은 동아리실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후배의 행위를 금지하는 상황인데 마지막에 “다음에는 조심해줘.”라는 표현으로 발화를 끝낸 것이다. 여기서 다음에 조심하라는 말은 이번에 그냥 넘어갔지만 같은 행동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는 성은실(2010)에서 제시한 이미 실행된 행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의 금지 화행 실현 기제에 해당한다.

3.2.2. 변인별 전략 분석

1) 기능에 따른 분석

상황4는 금지 화행의 **[명령] 기능을 가진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6>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명령])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16	.370		

	KNS	50	1.06	.240		
전략2	CKL	50	1.14	.351	-2.816**	.006
	KNS	50	1.38	.490		
전략3	CKL	50	1.10	.303		
	KNS	50	1.24	.431		
전략4	CKL	50	1.40	.495	2.214*	.029
	KNS	50	1.20	.404		
전략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10	.303	2.333*	.022
	KNS	50	1.00	.000		
전략7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9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0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1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2	CKL	50	1.02	.141		
	KNS	50	1.02	.141		
전략1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5	CKL	50	1.08	.274		
	KNS	50	1.10	.303		
전략16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P<.05 **P<.01 ***P<.001

<표 Ⅲ-7>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명령])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2	CKL	50	1.14	.351	7.559	.001	학-한	-.240**	.002
	KNS	50	1.38	.490			학-중	.040	.608
	CNS	50	1.10	.303			한-중	.280***	.000
전략4	CKL	50	1.40	.495	5.235	.006	학-한	.200*	.019
	KNS	50	1.20	.404			학-중	.260**	.002
	CNS	50	1.14	.351			한-중	.060	.477
전략6	CKL	50	1.10	.303	3.755	.026	학-한	.100*	.011
	KNS	50	1.00	.000			학-중	.080*	.040
	CNS	50	1.02	.141			한-중	-.020	.605

*P<.05 **P<.01 ***P<.001

상황4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각각 전략4 '불허 표현하기',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였고 구체적인 선호 전략이 다르지만 이 상황에서의 두 집단의 전략 사용 양상은 주로 직접적인 전략에 집중한 결과가 나왔다. 즉, 우회적으로 해당 행위를 금지하기보다는 두 집단에서 모두 명백하고 직접적인 방식을 취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은희(2014)에서 [명령] 기능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직접적 금지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 원인은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소원하고 화자의 상대적 힘이 강하며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화였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의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4 '불허 표현하기', 전략6 '소망 표현하기'의 사용 양상 차이는 .05의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사후 분석에 의하면 전략2의 경우 학습자 집단은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양상과 매우 가까웠다. 이는 학습자 집단이 모국어로부터 전이를 받아서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을 선호하지 않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연구실 규칙상 자리 양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리 양도는 불가가 원칙이에요.", "연구실 자리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라고 발화하는 등 이 전략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였다. 즉, 명백한 [명령] 상황에서 상대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한다는 경우, 체면 위협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모어 화자는 '금지', '불가' 등과 같이 금지 의미가 뚜렷한 수행동사가 들어 있는 표현을 통한 규칙을 내세움으로써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략4와 전략6의 사용 양상에 대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아직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학습자 집단이기에 이러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8>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명령])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3	7.7%	3	8.6%	4	10.5%
이유/규칙 제시하기	15	38.5%	7	20.0%	4	10.5%
전제하기	3	7.7%	1	2.9%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2	5.1%	0	0	0	0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5	12.9%	2	5.7%	10	26.4%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7	17.9%	17	48.6%	14	36.8%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2	5.1%	1	2.9%	4	10.5%
주의 요청하기	2	5.1%	4	11.3%	2	5.3%
감사하기	0	0	0	0	0	0
합계	39	100%	35	100%	38	100%

KNS12#4: 연구실 자리 양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도를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KNS14#4: 연구실 자리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배정된 자리를 지켜주세요.**

CKL33#4: 배정된 연구실 자리 양도는 금지인데요. **2 번 하면 연구실 자리 배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CKL39#4: 선생님, 연구실 자리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시면 안 돼요. **또 연구실 규칙을 위반하시면 연구실 이용 자격이 상실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표 Ⅲ-8>에 따르면 다른 상황보다 여기서는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모두 보조화행 전략을 다양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학습자 집단에서 '이유/규칙 제시하기' 전략을 제일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규칙 위반 시 화자가 자신의 금지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정해진 규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선호하는 전략은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은 이미 양도한 자리에 대해 발화하는 것이므로 앞에 언급했던 원칙을 강조하여 금지된 행동과 반대되는 정상 상

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목적으로 예문처럼 양도를 취소하라거나 배정된 자리를 지켜달라고 말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4]. 그러나 학습자 집단이 이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한국인 집단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도 이 전략을 상대적 많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 습관의 간섭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없다. 그 외에 학습자 집단이 사용한 보조화행 전략 중에 비중이 10% 넘는 또 다른 전략은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였다. 이는 금지된 행위를 행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그 심각성을 인지하게 하여 금지 화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수단이다.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이러한 전략의 사용은 모국어의 전이로 나타난 보조화행 전략 사용 양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상황1, 2, 5, 6, 8, 9는 금지 화행의 **[요청/부탁] 기능을 가진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9>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요청/부탁])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7.82	1.240	4.931***	.000
	KNS	50	6.82	.720		
전략2	CKL	50	6.40	.606	-2.358	.020
	KNS	50	6.76	.894		
전략3	CKL	50	6.14	.351		
	KNS	50	6.14	.351		
전략4	CKL	50	6.48	.646		
	KNS	50	6.48	.580		
전략5	CKL	50	6.04	.198		
	KNS	50	6.00	.000		
전략6	CKL	50	6.62	.780	3.197**	.002
	KNS	50	6.22	.418		

14) 이는 이은희(2014)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이은희(2014)에서는 '후배에게 동아리 방 벽에 사진 부착 금지하기'는 이미 붙어 있는 사진에 대해 발화하는 것이므로 붙이지 말라고 하는 금지 표현이 사용될 수 있지만 이미 붙인 것을 떼어 내라는 지시 표현도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략7	CKL	50	6.08	.274	2.064*	.042
	KNS	50	6.00	.000		
전략8	CKL	50	6.00	.000		
	KNS	50	6.04	.198		
전략9	CKL	50	6.26	.527		
	KNS	50	6.14	.405		
전략10	CKL	50	6.24	.625		
	KNS	50	6.24	.555		
전략11	CKL	50	7.06	.767		
	KNS	50	7.10	.416		
전략12	CKL	50	6.46	.579	-2.677**	.009
	KNS	50	6.78	.616		
전략13	CKL	50	6.22	.418	-4.400***	.000
	KNS	50	6.80	.833		
전략14	CKL	50	6.00	.000		
	KNS	50	6.02	.141		
전략15	CKL	50	6.10	.303		
	KNS	50	6.26	.487		
전략16	CKL	50	6.08	.274		
	KNS	50	6.20	.404		

*P<.05 **P<.01 ***P<.001

<표 Ⅲ-10>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요청/부탁])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7.82	1.240	11.591	.000	학-한	1.000***	.000
	KNS	50	6.82	.720			학-중	.580**	.006
	CNS	50	7.24	1.098			한-중	-.420*	.046
전략2	CKL	50	6.40	.606	9.090	.000	학-한	-.360**	.008
	KNS	50	6.76	.894			학-중	.200	.135
	CNS	50	6.20	.404			한-중	.560***	.000
전략6	CKL	50	6.62	.780	7.864	.001	학-한	.400***	.001
	KNS	50	6.22	.418			학-중	.380***	.001
	CNS	50	6.24	.431			한-중	-.020	.861
전략7	CKL	50	6.08	.274	4.261	.016	학-한	.080*	.013
	KNS	50	6.00	.000			학-중	.080*	.013
	CNS	50	6.00	.000			한-중	.000	1.000
전략12	CKL	50	6.46	.579	3.898	.022	학-한	-.320**	.006
	KNS	50	6.78	.616			학-중	-.180	.119
	CNS	50	6.64	.525			한-중	.140	.225
전략13	CKL	50	6.22	.418	11.051	.000	학-한	-.580***	.000
	KNS	50	6.80	.833			학-중	-.580***	.000
	CNS	50	6.80	.808			한-중	.000	1.000

*P<.05 **P<.01 ***P<.001

<표 Ⅲ-10>에 따르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 두 집단이 사용한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6 ‘소망 표현하기’, 전략7 ‘제안하기’,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의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뚜렷한 차이가 난 해당 전략들 중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학습자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로 사용한 방식인 전략2를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략12 및 전략13은 모두 간접적 전략에 속한다.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11 ‘대안 제시하기’가 간접적인 금지 전략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요청/부탁] 기능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암시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도한 바를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인터뷰에서 해당 상황들이 약간은 ‘요청’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한 표현으로 금지한다면 거절 당할 수도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금지 화행의 성격이 [요청/부탁]일 때 이익의 수혜자가 화자이고 청자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이기에 체면 위협 가능성이 높은 직접적 전략을 사용한다면 상대방이 해당 요청이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15]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학습자 집단은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에 속하는 ‘그만 + 동사’, ‘-지 말다’의 명령형 표현을 다른 전략보다 굉장히 비번하게 사용하였으며 금지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보다 더 두드러졌다.

사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상황6, 7, 13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전략7 ‘제안하기’를 구사한 양국 모어 화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오히려 금지를 요청할 때 학습자 집단에서 “얼음 조금만 넣어 주시는 게 어

15) 이는 ‘요청’ 성격을 지닌 불평 상황에서의 중국인 학습자의 전략 사용 양상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룸메이트가 청소하지 않을 때 불만이 있지만 청소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발화하기 때문에 전략3(시정 요청/제안)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강한 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룸메이트를 불쾌하게 만들어 결국 룸메이트가 청소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양우정, 2017:69).

떻습니까?", "얼음 많이 안 넣어 주셔도 돼요."와 같은 제안성 어구를 통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의 약한 한국어 능력에 따른 특정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략2의 경우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학습자 집단과의 매우 가까운 양상이 드러났다. 따라서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 습관이 한국어 학습 및 운용 과정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표 Ⅲ-11>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요청/부탁])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28	15.0%	23	13.5%	30	15.3%
이유/규칙 제시하기	40	21.4%	18	10.5%	37	18.9%
전제하기	3	1.6%	2	1.2%	2	1.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50	26.7%	45	26.5%	35	17.9%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2	1.1%	2	1.2%	4	2.0%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9	4.8%	26	15.3%	20	10.2%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36	19.3%	31	18.2%	22	11.2%
주의 요청하기	5	2.6%	19	11.2%	14	7.1%
감사하기	14	7.5%	4	2.4%	32	16.4%
합계	187	100%	170	100%	196	100%

CKL25#2: 실례하지만 자리를 차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CKL33#8: 고객님 죄송한데요. 피팅룸에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KNS37#9: **공적인 장소에서 날 별명으로 부르는 건 좀 별로인거 같아.** 자제해줄 수 있겠니?

<표 Ⅲ-11>에 의하여 '이유/규칙 제시하기' 및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전략은 주화행에는 물론 보조화행에서도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모두 빈도 높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금지를 요청할 때 두 집단은 모두 예문 CKL25#2, KNS37#9에서 나온 것처럼 정당한 이유, 정해진 규칙을 제시하거나 부탁하는 사람으로서의

간절한 마음과 같은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금지 의미를 지닌 화자의 요청이나 부탁이 받아들여지도록 다른 기능에서 자주 등장하지 않은 전략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감사하기' 등은 화자의 소망, 사과 또는 감사의 뜻을 표하는 부가적인 수단으로 여기서 비중 있게 사용되었다.

상황3, 7, 10은 금지 화행의 **[권유] 기능을 가진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2>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권유])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3.96	.638	4.625***	.000
	KNS	50	3.40	.571		
전략2	CKL	50	3.04	.198		
	KNS	50	3.06	.240		
전략3	CKL	50	3.00	.000		
	KNS	50	3.00	.000		
전략4	CKL	50	3.00	.000		
	KNS	50	3.00	.000		
전략5	CKL	50	3.14	.351		
	KNS	50	3.06	.240		
전략6	CKL	50	3.30	.544	2.854**	.005
	KNS	50	3.06	.240		
전략7	CKL	50	3.22	.418		
	KNS	50	3.26	.443		
전략8	CKL	50	3.04	.198		
	KNS	50	3.04	.198		
전략9	CKL	50	3.02	.141		
	KNS	50	3.00	.000		
전략10	CKL	50	3.02	.141		
	KNS	50	3.00	.000		
전략11	CKL	50	3.58	.538		
	KNS	50	3.38	.567		
전략12	CKL	50	3.20	.452	-2.604*	.011
	KNS	50	3.46	.542		
전략13	CKL	50	3.18	.629	-3.003**	.003
	KNS	50	3.66	.939		
전략14	CKL	50	3.16	.370		
	KNS	50	3.16	.370		
전략15	CKL	50	3.10	.303	-5.454***	.000

	KNS	50	3.64	.631		
전략16	CKL	50	3.00	.000		
	KNS	50	3.00	.000		

*P<.05 **P<.01 ***P<.001

<표 Ⅲ-13>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권유])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3.96	.638	11.526	.000	학-한	.560***	.000
	KNS	50	3.40	.571			학-중	.520***	.000
	CNS	50	3.44	.733			한-중	-.040	.759
전략6	CKL	50	3.30	.544	4.219	.017	학-한	.240**	.004
	KNS	50	3.06	.240			학-중	.100	.230
	CNS	50	3.20	.404			한-중	-.140	.094
전략12	CKL	50	3.20	.452	4.544	.012	학-한	-.260*	.017
	KNS	50	3.46	.542			학-중	-.300**	.006
	CNS	50	3.50	.614			한-중	-.040	.712
전략13	CKL	50	3.18	.629	17.911	.000	학-한	-.480**	.007
	KNS	50	3.66	.939			학-중	-1.040***	.000
	CNS	50	4.22	.996			한-중	-.560**	.002
전략15	CKL	50	3.10	.303	24.978	.000	학-한	-.540***	.000
	KNS	50	3.64	.631			학-중	.020	.824
	CNS	50	3.08	.340			한-중	.560***	.000

*P<.05 **P<.01 ***P<.001

[권유] 기능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즐겨 구사한 세 개의 전략은 순서대로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예: "야, 너 건강부터 챙겨."),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예: "점장님, 이런 날에 운전하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전략12 '이유 제시하기'(예: "내가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야.")였고 모두 간접적인 전략에 해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청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유할 때 직접적인 금지 전략보다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이는 이익을 얻는 쪽이 청자이고 그에게 부여된 선택권이 상당히 큰 [권유] 기능의 경우에서 금지의 부담감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습자 집단의 선호에 의해 사용된 전략은 순서에 따라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예: "술을 많이 마시지 마."), 전략11

‘대안 제시하기’(예: “지하철 타는 게 더 안전하고 빠를 것 같아요.”), 전략6 ‘소망 표현하기’(예: “배달 시키지 않으면 더 좋을 걸.”)였으며, 이 중에서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은 압도적인 빈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다. 즉, 다른 두 기능보다 [권유] 기능은 금지 의미가 가장 약하지만 금지의 의미를 가장 완곡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알맞기에 사회적 화용까지 고려한다면 [권유] 기능의 선택이 해당 화행에서는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들의 선택과는 달리 금지의 정도가 강한 명령법에 의한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을 여전히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다.

또한, 통계적으로 전략1, 6, 12, 13, 15의 사용 양상에 있어서 두 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드러났다. 사후 분석에 따르면 전략6과 15의 경우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은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매우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국어의 전이로 인한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전략13의 경우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이므로 이는 모국어 전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략1, 12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 집단의 이러한 양상은 한국어 지식의 결핍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Ⅲ-14>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권유])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7	5.0%	15	11.4%	19	15.3%
이유/규칙 제시하기	97	69.3%	55	41.7%	54	43.5%
전제하기	11	7.9%	19	14.4%	16	12.9%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10	7.1%	17	12.9%	10	8.1%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6	4.3%	9	6.8%	10	8.1%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9	6.4%	15	11.4%	13	10.5%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0	0	0	0	0	0
주의 요청하기	0	0	2	1.4%	2	1.6%
감사하기	0	0	0	0	0	0
합계	140	100%	132	100%	124	100%

CKL1#3: 점장님,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차를 운전하시지 않은 거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CKL41#7: 술을 그만 좀 마셔라. **이대로 마시면 몸이 망가진다.**

KNS2#10: **내가 요리를 워낙 많이 준비해서** 배달은 안 시켜도 괜찮을 거 같은데.

KNS30#7: 야, 또 좋은 인연이 있겠지... 술 좀 적당히 마시고, **여자 떠나보냈다고 네 간도 떠나보낼 일 있냐?**

[권유] 기능에 속하는 예시 상황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보조화행 전략을 사용하는 빈도는 각각 140회, 132회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권유] 기능과 같은 성격의 상황 자체는 화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화자가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의 조심스러운 모습을 고빈도의 보조 전략 사용을 통하여 보여주었다. 다시 말하면 [권유] 기능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화자가 상관할 바가 아닌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남의 일에 굳이 간섭하는데도 그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금지를 당한 청자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므로[16] 예문 CKL1#3처럼 금지의 원인을 명백히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략 '이유/규칙 제시하기' 역시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해당 행위가 금지되면 청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곧 그 행위가 행해지면 부정적인 결과가 수반됨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청자로 하여금 행위 수행에 의한 불이익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문 CKL41#7과 같이 그 부정적인 결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거나 예문 KNS30#7처럼 반문의문문으로 그 결과를 강조하거나 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 제시하는 등 부가적인 전략들이 풍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6) 이점은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 한 명이 [권유] 기능을 가진 금지 상황에 관하여 "제 이익이 손해되는 게 아니라서 굳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금지를 통해 타인을 권유할 때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하였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 가운데도 비슷한 응답이 나왔다.

2) 사회적 거리에 따른 분석

상황1, 3, 5, 7, 9, 10은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친근한 경우**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5>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친)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8.12	1.081	5.780***	.000
	KNS	50	6.94	.956		
전략2	CKL	50	6.18	.388	-2.813**	.006
	KNS	50	6.48	.646		
전략3	CKL	50	6.08	.274		
	KNS	50	6.06	.240		
전략4	CKL	50	6.30	.463		
	KNS	50	6.40	.495		
전략5	CKL	50	6.18	.388		
	KNS	50	6.06	.240		
전략6	CKL	50	6.86	.990	3.643***	.000
	KNS	50	6.28	.536		
전략7	CKL	50	6.22	.418		
	KNS	50	6.26	.443		
전략8	CKL	50	6.04	.198		
	KNS	50	6.06	.240		
전략9	CKL	50	6.12	.480		
	KNS	50	6.06	.240		
전략10	CKL	50	6.08	.274		
	KNS	50	6.20	.495		
전략11	CKL	50	6.78	.648	2.536*	.013
	KNS	50	6.46	.613		
전략12	CKL	50	6.22	.465	-2.376*	.019
	KNS	50	6.46	.542		
전략13	CKL	50	6.44	.611	-4.719***	.000
	KNS	50	7.16	.889		
전략14	CKL	50	6.16	.370		
	KNS	50	6.18	.388		
전략15	CKL	50	6.20	.452	-5.002***	.000
	KNS	50	6.88	.849		
전략16	CKL	50	6.02	.141		
	KNS	50	6.06	.240		

*P<.05 **P<.01 ***P<.001

<표 Ⅲ-16>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친)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8.12	1.081	14.406	.000	학-한	1.180***	.000
	KNS	50	6.94	.956			학-중	.820***	.000
	CNS	50	7.30	1.313			한-중	-.360	.112
전략2	CKL	50	6.18	.388	6.257	.002	학-한	-.300**	.003
	KNS	50	6.48	.646			학-중	.000	1.000
	CNS	50	6.18	.388			한-중	.300**	.003
전략6	CKL	50	6.86	.990	8.201	.000	학-한	.580***	.000
	KNS	50	6.28	.536			학-중	.420**	.005
	CNS	50	6.44	.611			한-중	-.160	.281
전략11	CKL	50	6.78	.648	3.694	.027	학-한	.320**	.009
	KNS	50	6.46	.613			학-중	.220	.070
	CNS	50	6.56	.541			한-중	-.100	.408
전략12	CKL	50	6.22	.465	4.299	.015	학-한	-.240*	.036
	KNS	50	6.46	.542			학-중	-.320**	.006
	CNS	50	6.54	.676			한-중	-.080	.482
전략13	CKL	50	6.44	.611	29.614	.000	학-한	-.720***	.000
	KNS	50	7.16	.889			학-중	-1.340***	.000
	CNS	50	7.78	1.055			한-중	-.620***	.001
전략15	CKL	50	6.20	.452	20.493	.000	학-한	-.680***	.000
	KNS	50	6.88	.849			학-중	.000	1.000
	CNS	50	6.20	.452			한-중	.680***	.000

*P<.05 **P<.01 ***P<.001

화자와 청자의 사이가 친한 경우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전체에서 1, 2, 3위로 많이 사용한 전략들은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전략13과 전략15가 모두 간접적 전략에 속하지만 전략13은 화자의 마음속의 감정을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며 전략15는 반문 혹은 강조의 문형으로 금지의 의미를 부각시켜 금지 강도를 높여 주는 방법이다. 사후 인터뷰에서 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친한 사람들끼리는 굳이 말을 돌려서 할 필요가 없으며 선후배 사이에서 역시 후배가 그 선배와 친하면 말을 편하게 해도 괜찮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친한 관계에서 금지 사항을 명시적으로 전달하여도 화청자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17]. 한국어 모어 화자 집단과는 조금 다르게도 학습자 집단에서 1-3위로 사용된 전략들은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6 '소망 표현하기', 전략11 '대안 제시하기'인 결과가 나왔다. 이 중에서 전략6은 '-지 않았으면 해요./좋겠어요./싶어요.'의 평서형 등의 표현으로 실현되는 비교적 완화된 금지 전략이며, 전략11은 직접적 금지 대신 다른 행동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즉, 학습자 집단은 친한 관계에서 행위를 금지할 때 오히려 완곡한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편, 전략1, 2, 6, 11, 12, 13, 15에 대한 두 집단의 사용 양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사후 분석에서 전략2, 15의 경우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매우 유사한 사용 양상이 나타난 것이므로 학습자의 이러한 전략 사용 양상은 모국어의 화행 체계나 언어 습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략13의 경우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사이에 아주 현저한 차이가 나서 모국어 전이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전략1, 6, 11, 12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특별한 전략 사용 양상이 드러난 것은 목표언어 지식의 부족이 반영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Ⅲ-17>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친)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16	6.8%	25	10.9%	30	13.8%
이유/규칙 제시하기	111	46.8%	60	26.1%	66	30.4%
전제하기	14	5.9%	21	9.1%	18	8.4%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59	24.9%	62	27.0%	45	20.7%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8	3.4%	11	4.8%	12	5.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18	7.6%	38	16.5%	28	12.9%

17) 금지 표현은 무엇보다 가족 관계처럼 매우 친밀한 관계인지 아닌지에 따라 표현의 사용 양상이 많이 다르다며, 한국에서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도 공손한 표현은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이은희, 2014:107).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4	1.7%	2	0.8%	2	0.9%
주의 요청하기	5	2.1%	11	4.8%	16	7.4%
감사하기	2	0.8%	0	0	0	0
합계	237	100%	230	100%	217	100%

CKL5#5: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민하니까** 다음에 그런 장난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KNS6#10: 야, 뭐 하러 배달을 시켜. **나 요리 잘한다니까?**

<표 Ⅲ-17>에 따르면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세 집단에서 모두 가장 선호하여 사용한 보조화행 전략은 '이유/규칙 제시하기'였으며 전략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가 뒤를 이었다. 특히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전략은 화청자의 관계가 소원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화청자가 서로 친근한 경우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이는 대화 참여자끼리 서로 친밀할 때 예문 CKL5#5처럼 청자에게 내면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더 편하고 또한 충분한 공감을 얻을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자 집단보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또 다른 감정 표현 방식인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예문 KNS6#10 참조). 한편, 화청자의 사회적 거리가 소원한 경우와 대조하여 보았을 때, 전략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주의 요청하기', '감사하기'는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모두 낮은 빈도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사후 인터뷰를 통해 그 원인은 어느 정도의 공손성을 갖춘 이러한 보조적인 전략들이 친한 사이에서 사용된다면 오히려 청자에게 거리감이 느껴지게 하고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 있다는 데에 모종의 동의가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상황2, 4, 6, 8은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소원한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18>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소)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4.82	.800	3.276***	.001
	KNS	50	4.34	.658		
전략2	CKL	50	4.40	.606	-2.238*	.027
	KNS	50	4.72	.809		
전략3	CKL	50	4.16	.422		
	KNS	50	4.32	.513		
전략4	CKL	50	4.58	.642	2.537*	.013
	KNS	50	4.28	.536		
전략5	CKL	50	4.00	.000		
	KNS	50	4.00	.000		
전략6	CKL	50	4.16	.370	3.055**	.003
	KNS	50	4.00	.000		
전략7	CKL	50	4.08	.274	2.064*	.042
	KNS	50	4.00	.000		
전략8	CKL	50	4.00	.000		
	KNS	50	4.02	.141		
전략9	CKL	50	4.16	.370		
	KNS	50	4.08	.274		
전략10	CKL	50	4.18	.482		
	KNS	50	4.04	.198		
전략11	CKL	50	4.86	.639		
	KNS	50	5.02	.319		
전략12	CKL	50	4.46	.646	-2.647**	.009
	KNS	50	4.80	.639		
전략13	CKL	50	4.00	.000	-2.585*	.011
	KNS	50	4.12	.328		
전략14	CKL	50	4.00	.000		
	KNS	50	4.00	.000		
전략15	CKL	50	4.08	.274		
	KNS	50	4.12	.328		
전략16	CKL	50	4.06	.240		
	KNS	50	4.14	.351		

*P<.05 **P<.01 ***P<.001

<표 Ⅲ-19>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소)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4.82	.800	6.114	.003	학-한	.480***	.001
	KNS	50	4.34	.658			학-중	.360*	.013
	CNS	50	4.46	.676			한-중	-.120	.402
전략2	CKL	50	4.40	.606	11.550	.000	학-한	-.320*	.011

	KNS	50	4.72	.809			학-중	.280*	.027
	CNS	50	4.12	.385			한-중	.600***	.000
전략4	CKL	50	4.58	.642	4.973	.008	학-한	.300**	.007
	KNS	50	4.28	.536			학-중	.300**	.007
	CNS	50	4.28	.454			한-중	.000	1.000
전략6	CKL	50	4.16	.370	7.255	.001	학-한	.160***	.001
	KNS	50	4.00	.000			학-중	.140**	.003
	CNS	50	4.02	.141			한-중	-.020	.663
전략7	CKL	50	4.08	.274	4.261	.016	학-한	.080*	.013
	KNS	50	4.00	.000			학-중	.080*	.013
	CNS	50	4.00	.000			한-중	.000	1.000
전략12	CKL	50	4.46	.646	3.802	.025	학-한	-.340**	.007
	KNS	50	4.80	.639			학-중	-.180	.147
	CNS	50	4.64	.563			한-중	.160	.197
전략13	CKL	50	4.00	.000	5.623	.004	학-한	-.120	.070
	KNS	50	4.12	.328			학-중	-.220***	.001
	CNS	50	4.22	.465			한-중	-.100	.130

*P<.05 **P<.01 ***P<.001

화청자 간 사회적 거리가 소원한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제일 선호하는 세 개의 전략은 순서대로 전략11 ‘대안 제시하기’,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였으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 때에 1-3위의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감정을 전달하는 개인적 방식 대신에 정당한 이유를 밝히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이성적인 방식을 사용하여 금지 의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강해졌다. 다만, 어떤 때에는 금지라는 발화수반력을 확보하도록 친하지 않은 청자에게도 ‘금지하다’와 같은 수행단어를 통하여 허락되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는 소원한 관계가 보통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지므로 이은희(2014)에서의 명시적 수행 표현은 사적인 맥락보다 공식적인 상황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는 관점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가 소원한 경우 학습자 집단에서 1-3위로 선호되는 전략은 관계가 친밀할 때였던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6 ‘소망 표현하기’, 전략11 ‘대안 제시

하기'로부터 전략11, 전략1, 전략4 '불허 표현하기'의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 중에서 변화가 나타난 지점은 전략6보다 전략4를 구사하는 빈도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즉, 소원한 관계에서 학습자 집단은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을 언급하는 방식보다 '-(으)면 안 되다'에 의한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의도가 아닌 특정 규칙 등에 따라 그 행위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함을 전달하는 형식에 편중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라는 변인은 학습자 집단의 주화행 전략 사용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두 집단은 전략1, 2, 4, 6, 7, 12, 13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을 추가하여 실시한 사후 분석에 의하면 전략1, 4, 6, 7, 13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의 한계로 생긴 독특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모두 전략7 '제안하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학습자 집단에서 제안성 어구(예: "얼음을 넘 많이 안 넣어 주셔도 됩니다.")를 통하여 금지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소원한 사람에게 초면에 제안 성격의 표현을 쓰는 것이 다소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으며 화용적 실패 발생이 쉽다고 여겨진다. 전략2의 경우 학습자 집단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보다 중국인 모어 화자와의 그 전략의 사용 양상이 더욱 유사하였다. 그리하여 모국어 언어 습관의 간접성 때문에 학습자 집단 사이에 이러한 양상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표 Ⅲ-20>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소)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22	17.1%	16	15.0%	23	16.3%
이유/규칙 제시하기	41	31.8%	20	18.7%	29	20.6%
전제하기	3	2.3%	1	0.9%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3	2.3%	0	0	0	0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5	3.8%	2	1.9%	12	8.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7	5.4%	20	18.7%	19	13.5%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34	26.4%	30	28.0%	24	17.0%
주의 요청하기	2	1.6%	14	13.1%	2	1.4%
감사하기	12	9.3%	4	3.7%	32	22.7%
합계	129	100%	107	100%	141	100%

화청자의 사회적 거리가 소원한 경우 보조화행 전략은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학습자 집단에서 각각 141회, 129회로 실현되고 있으나,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겨우 107회만 실현되었다. 이는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학습자 집단이 화청자 간의 소원한 관계를 의식하여 금지 화행으로 인한 긴장된 분위기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한국인 집단보다 더욱 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화청자의 사이가 친한 상황에 비하여 전략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의 비중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모두 대폭 감소하는 동시에 전략 '감사하기', '주의 요청하기', 특히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의 비율은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도하게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실례 및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두 집단 모두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전략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을 통하여 화자의 공손한 태도를 표시하고 사회적 거리가 소원한 청자의 체면을 지켜 주는 것이다.

3) 상대적 힘에 따른 분석

상황1, 4, 6, 10은 **청자보다 화자가 가진 상대적 힘이 더 큰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1>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화자>청자)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4.78	.790	4.698***	.000
	KNS	50	4.18	.438		
전략2	CKL	50	4.28	.536	-3.114**	.002
	KNS	50	4.70	.789		
전략3	CKL	50	4.18	.388		
	KNS	50	4.30	.505		
전략4	CKL	50	4.70	.678		
	KNS	50	4.60	.700		
전략5	CKL	50	4.14	.351		
	KNS	50	4.06	.240		
전략6	CKL	50	4.28	.536	3.694***	.000
	KNS	50	4.00	.000		
전략7	CKL	50	4.28	.497		
	KNS	50	4.22	.418		
전략8	CKL	50	4.04	.198		
	KNS	50	4.02	.141		
전략9	CKL	50	4.02	.141		
	KNS	50	4.00	.000		
전략10	CKL	50	4.06	.240		
	KNS	50	4.00	.000		
전략11	CKL	50	4.78	.582	-2.842**	.005
	KNS	50	5.04	.283		
전략12	CKL	50	4.18	.388	-2.474*	.015
	KNS	50	4.40	.495		
전략13	CKL	50	4.12	.328		
	KNS	50	4.18	.438		
전략14	CKL	50	4.04	.198		
	KNS	50	4.00	.000		
전략15	CKL	50	4.12	.328		
	KNS	50	4.30	.647		
전략16	CKL	50	4.00	.000		
	KNS	50	4.00	.000		

*P<.05 **P<.01 ***P<.001

<표 Ⅲ-22>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화자>청자)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4.78	.790	9.413	.000	학-한	.600***	.000
	KNS	50	4.18	.438			학-중	.320*	.022
	CNS	50	4.46	.788			한-중	-.280*	.045
전략2	CKL	50	4.28	.536	7.907	.001	학-한	-.420***	.001
	KNS	50	4.70	.789			학-중	.000	1.000
	CNS	50	4.28	.454			한-중	.420***	.001
전략6	CKL	50	4.28	.536	7.964	.001	학-한	.280***	.000
	KNS	50	4.00	.000			학-중	.180*	.012

	CNS	50	4.10	.303			한-중	-.100	.162
전략11	CKL	50	4.78	.582	4.285	.016	학-한	-.260**	.005
	KNS	50	5.04	.283			학-중	-.180*	.050
	CNS	50	4.96	.450			한-중	.080	.381
전략12	CKL	50	4.18	.388	3.352	.038	학-한	-.220*	.026
	KNS	50	4.40	.495			학-중	-.220*	.026
	CNS	50	4.40	.571			한-중	.000	1.000

*P<.05 **P<.01 ***P<.001

화자의 상대적 힘이 청자보다 큰 경우 학습자 집단에서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와 전략11 '대안 제시하기'는 동일하게 높은 빈도로 구사되었으며, 전략4 '불허 표현하기'가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이와 비슷하게 전략 사용의 빈도를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1-3위를 차지한 전략들은 순서에 따라 전략11 '대안 제시하기',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4 '불허 표현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경우에 두 집단이 모두 어느 정도는 직접적인 금지 전략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구체적인 선호 전략에 관하여서는 차이가 다소 발견되었다. 인터뷰 결과, 한중국인 학습자는 화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에게 그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해도 상관없다고 하였다. 이는 화자의 사회적 힘이 더 클 때, 하급자인 청자가 행동 이행에 대한 선택권을 거의 가지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므로 화자가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데에 부담이 덜하고 자유로울 수도 있다는 인식에 의한 결과로 보인다. 아울러 전략1, 2, 6, 11, 12에 대한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후 분석의 결과에 비추어 보면 전략2의 경우 학습자 집단의 사용 양상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쪽보다는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학습자 집단이 전략2를 덜 사용한 현상은 모국어의 언어 문화적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전략1의 경우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집단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모국어의 전이로 인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전략6, 11, 12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양상에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 집단의 이러한 전략 사용 양상은 목표언어인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23>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화자>청자)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13	9.7%	18	14.6%	18	11.9%
이유/규칙 제시하기	59	44.0%	27	22.0%	28	18.5%
전제하기	12	9.0%	20	16.3%	16	10.6%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6	4.5%	5	4.1%	3	2.0%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8	6.0%	3	2.4%	15	9.9%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14	10.4%	35	28.5%	25	16.6%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6	4.5%	3	2.4%	5	3.3%
주의 요청하기	5	3.7%	10	8.1%	13	8.7%
감사하기	11	8.2%	2	1.6%	28	18.5%
합계	134	100%	123	100%	151	100%

KNS7#4: OO학생분, 연구실 자리 양도는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KNS8#1: 앗, 혹시 여기서 취식 금지인데 **모르셨나요?**

빈도수로 보면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보조화행 전략 사용 횟수는 151회로 가장 많은 보조화행 전략을 사용하였고 학습자 집단이 134회,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123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경우에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각각의 보조적 전략을 골고루 사용하는 편이었으며 학습자 집단에서는 전략 '이유/규칙 제시하기'가 압도적인 높은 비도로 구사된 것으로 보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부가적인 수단으로 '이유/규칙 제시하기'가 많이 사용되지 않은 원인은 보조화행 전략보다 주화행 전략이 선호되었다는 데에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즐겨 사용하는 전략은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금지 화행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가 앞에의 금지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강조함으로써 상대적 힘이 자신보다 약한 청자에게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드러났다(예

문 KNS7#4, KNS8#1 참조).

상황2, 7, 9는 **화자와 청자가 가진 상대적 힘이 동등한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4>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화자=청자)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4.82	.941	5.267***	.000
	KNS	50	3.86	.881		
전략2	CKL	50	3.02	.141		
	KNS	50	3.14	.405		
전략3	CKL	50	3.00	.000		
	KNS	50	3.00	.000		
전략4	CKL	50	3.00	.000		
	KNS	50	3.02	.141		
전략5	CKL	50	3.00	.000		
	KNS	50	3.00	.000		
전략6	CKL	50	3.12	.385		
	KNS	50	3.06	.240		
전략7	CKL	50	3.02	.141		
	KNS	50	3.00	.000		
전략8	CKL	50	3.00	.000		
	KNS	50	3.06	.240		
전략9	CKL	50	3.22	.418		
	KNS	50	3.14	.405		
전략10	CKL	50	3.16	.370		
	KNS	50	3.16	.370		
전략11	CKL	50	3.12	.328		
	KNS	50	3.10	.303		
전략12	CKL	50	3.10	.303	-2.556*	.012
	KNS	50	3.30	.463		
전략13	CKL	50	3.16	.370	-5.048***	.000
	KNS	50	3.74	.723		
전략14	CKL	50	3.04	.198	-2.021*	.046
	KNS	50	3.16	.370		
전략15	CKL	50	3.16	.422		
	KNS	50	3.14	.351		
전략16	CKL	50	3.06	.240		
	KNS	50	3.12	.328		

*P<.05 **P<.01 ***P<.001

<표 Ⅲ-25>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화자=청자)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4.82	.941	18.080	.000	학-한	.960***	.000
	KNS	50	3.86	.881			학-중	.920***	.000
	CNS	50	3.90	.886			한-중	-.040	.825
전략12	CKL	50	3.10	.303	4.397	.014	학-한	-.200**	.008
	KNS	50	3.30	.463			학-중	-.020	.788
	CNS	50	3.12	.328			한-중	.180*	.017
전략13	CKL	50	3.16	.370	17.750	.000	학-한	-.580***	.000
	KNS	50	3.74	.723			학-중	-.660***	.000
	CNS	50	3.82	.661			한-중	-.080	.509
전략14	CKL	50	3.04	.198	2.072	.130	학-한	-.120	.059
	KNS	50	3.16	.370			학-중	-.100	.116
	CNS	50	3.14	.351			한-중	.020	.752

*P<.05 **P<.01 ***P<.001

화청자의 상대적 힘이 동등한 경우 전략1 '명시적 금지'는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모두에서 가장 선호된 방식으로 나타났으나, 이 전략이 출현한 빈도는 두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학습자 집단은 다른 전략보다 전략1을 훨씬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 말다', '그만 + 동사'의 명령형에 의한 명시적인 표현으로 금지 화행을 실현하는 경향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보다 학습자 집단에서 더 강하게 드러났다. 즉,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청자에게 해당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상황이므로 금지의 부담도가 여전히 적은 편이기에 직설적인 방식이 선호되는 것은 분명하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의 사용 빈도가 화자의 상대적 힘이 더 큰 경우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여 2위를 차지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학습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결론적으로 자신과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특히 친구 신분을 가진 청자에게 감정이나 입장 전달 (예: "밖에서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건 좀 그렇다야.")을 통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방식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사이에는 선호되며 청자의 상대적 힘이 더 클 경우 선호되지 않는 데에 반해 학습자 집단에

서는 이러한 사회화용적 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Ⅲ-24>에 의하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전략1, 12, 13, 14의 사용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탐구하기 위하여 사후 분석을 살펴본 결과 전략1, 13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습자 집단에게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난 것은 목표언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전략12 '대안 제시하기'의 경우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매우 비슷한 양상이 도출되었다. 이는 학습자의 한국어 사용에 모국어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전략14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 집단을 추가하여 같이 비교·분석하였을 때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Ⅲ-26>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화자=청자)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5	4.6%	8	7.3%	13	13.6%
이유/규칙 제시하기	40	37.0%	15	13.6%	28	29.5%
전제하기	5	4.6%	1	0.9%	2	2.1%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26	24.1%	36	32.7%	24	25.3%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5	4.6%	9	8.2%	7	7.4%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10	9.4%	17	15.5%	12	12.6%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16	14.8%	12	10.9%	6	6.3%
주의 요청하기	0	0	10	9.1%	0	0
감사하기	1	0.9%	2	1.8%	3	3.2%
합계	108	100%	110	100%	95	100%

<표 Ⅲ-26>에서 보여 주듯이 상대적 힘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 동일한 경우 학습자 집단 및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각각이 보조화행을 사용하는 총 빈도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학습자 집단에서 여전히 가장 선호하는 보조적 방식이 전략 '이유/규칙 제시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제일 빈번하게 등장하는 전략은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인 것으로 보이며, 이 전략은 동시에 학습자 집단의 선호 전략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화자의 힘이 더 강한 경우와 비교하면 전략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의 비중이 두 집단에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금지 발화를 할 때의 부가적인 수단으로 사회적 지위가 자신과 동등한 청자에게 감정 또는 개인적 입장을 직접 밝히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두 집단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지 발화에 따른 화청자 간의 긴장감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두 집단 각각에서 보조화행 전략이 다양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황3, 5, 8은 **청자보다 화자가 가진 상대적 힘이 더 작은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27>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화자<청자)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3.34	.557		
	KNS	50	3.24	.431		
전략2	CKL	50	3.28	.454		
	KNS	50	3.36	.525		
전략3	CKL	50	3.06	.240		
	KNS	50	3.08	.274		
전략4	CKL	50	3.18	.388		
	KNS	50	3.06	.240		
전략5	CKL	50	3.04	.198		
	KNS	50	3.00	.000		
전략6	CKL	50	3.62	.697	3.378***	.001
	KNS	50	3.22	.465		
전략7	CKL	50	3.00	.000		
	KNS	50	3.04	.198		
전략8	CKL	50	3.00	.000		
	KNS	50	3.00	.000		
전략9	CKL	50	3.04	.198		
	KNS	50	3.00	.000		
전략10	CKL	50	3.04	.198		
	KNS	50	3.08	.274		
전략11	CKL	50	3.74	.633	3.565***	.001
	KNS	50	3.34	.479		

전략12	CKL	50	3.40	.495		
	KNS	50	3.56	.577		
전략13	CKL	50	3.16	.370	-2.318*	.023
	KNS	50	3.36	.485		
전략14	CKL	50	3.08	.274		
	KNS	50	3.02	.141		
전략15	CKL	50	3.00	.000	-6.476***	.000
	KNS	50	3.56	.611		
전략16	CKL	50	3.02	.141		
	KNS	50	3.08	.274		

*P<.05 **P<.01 ***P<.001

<표 Ⅲ-28>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화자<청자)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6	CKL	50	3.62	.697	8.111	.000	학-한	.400**	.000
	KNS	50	3.22	.465			학-중	.360**	.001
	CNS	50	3.26	.443			한-중	-.040	.715
전략11	CKL	50	3.74	.633	6.336	.002	학-한	.400**	.001
	KNS	50	3.34	.479			학-중	.160	.159
	CNS	50	3.58	.575			한-중	-.240*	.036
전략13	CKL	50	3.16	.370	7.308	.001	학-한	-.200*	.036
	KNS	50	3.36	.485			학-중	-.360***	.000
	CNS	50	3.52	.544			한-중	-.160	.092
전략15	CKL	50	3.00	.000	28.730	.000	학-한	-.560***	.000
	KNS	50	3.56	.611			학-중	-.100	.206
	CNS	50	3.10	.303			한-중	.460**	.000

*P<.05 **P<.01 ***P<.001

상대적 힘이 화자가 청자보다 작은 경우 학습자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은 전략11 '대안 제시하기'였으며, 2위를 차지한 전략은 전략6 '소망 표현하기'였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고빈도로 선택한 전략들은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와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임이 밝혀졌다. 두 집단의 선호 전략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으나, 이 전략들은 모두 어느 정도의 간접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 두 집단이 모두 완곡한 표현을 선호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전략6은 금지 요소가 들어 있는 직접적 전략에 해당하지만 이은희(2014)에 의하면 화자 의도를 언급함으로써 암시

적으로 금지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18]. 아울러 화자의 상대적 힘이 크거나 동등한 경우와 비교하여 두 집단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던 전략 1 '명시적 금지하기'는 화자의 힘이 더 작은 상황에서의 사용 빈도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상대적 힘에 따른 상하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을 선호하고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금지 표현을 구사하는 데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표 Ⅲ-28>에 따르면 두 집단은 전략6, 11, 13, 15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분석 결과에서는 전략11 및 전략15의 경우에 학습자 집단이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였다. 이는 모국어의 규범이 한국어 사용 과정에서 중간언어적 전이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학습자 집단에서 그러한 전략 사용 양상이 생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전략6, 13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 학습자의 이러한 양상은 한국어 지식의 결핍과 관련되어 설명될 수 있다.

<표 Ⅲ-29>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화자<청자)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20	16.2%	15	14.4%	22	19.6%
이유/규칙 제시하기	53	42.7%	38	36.5%	39	34.8%
전제하기	0	0	1	1.0%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30	24.2%	21	20.2%	18	16.1%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0	0	1	1.0%	2	1.8%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1	0.8%	6	5.8%	10	8.9%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16	12.9%	17	16.3%	15	13.4%
주의 요청하기	2	1.6%	5	4.8%	5	4.5%
감사하기	2	1.6%	0	0	1	0.9%
합계	124	100%	104	100%	112	100%

18) 이은희(2014)에서는 화자 의도 언급은 지시 사항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화자의 의도를 언급함으로써 우회적으로 행위를 지시하는 형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자보다 화자의 상대적 힘이 작은 경우 세 집단에서 학습자 집단이 보조화행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총 124회로 나타난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사용한 보조 전략 빈도수는 세 집단 중 제일 적은 104회로 나타났다. 이는 화자가 상대적 힘을 가지지 못할 때 금지 화행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보조적 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학습자 집단 사이에서 더 분명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해당 상황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선호하는 전략들을 살펴보면 모두 '이유/규칙 제시하기'가 1위,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가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 힘이 동일한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화자의 사회적 힘이 더 강한 경우와 대조하여 두 집단에서 전략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의 비율이 모두 많이 상승했다는 점이다. 이는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청자와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 집단 모두 전략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우호적이고 공손한 태도를 보여 주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3. 상황별 전략 분석

상황1은 동아리 활동실에서 아는 후배에게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30>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1)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16	.370	3.055**	.004
	KNS	50	1.00[19]	.000		
전략2	CKL	50	1.14	.351	-2.167*	.033
	KNS	50	1.32	.471		
전략3	CKL	50	1.08	.274		

	KNS	50	1.06	.240		
전략4	CKL	50	1.30	.463		
	KNS	50	1.40	.495		
전략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10	.303	2.333*	.024
	KNS	50	1.00	.000		
전략7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9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10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1	CKL	50	1.16	.370		
	KNS	50	1.06	.240		
전략12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3	CKL	50	1.00	.000		
	KNS	50	1.04	.198		
전략1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5	CKL	50	1.04	.198		
	KNS	50	1.12	.328		
전략16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P<.05 **P<.01 ***P<.001

<표 Ⅲ-31>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1)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 차이	P
전략1	CKL	50	1.16	.370	4.385	.014	학-한	.160**	.007
	KNS	50	1.00	.000			학-중	.020	.735
	CNS	50	1.14	.351			한-중	-.140*	.019
전략2	CKL	50	1.14	.351	2.704	.070	학-한	-.180*	.028
	KNS	50	1.32	.471			학-중	-.040	.623
	CNS	50	1.18	.388			한-중	.140	.087
전략6	CKL	50	1.10	.303	2.516	.084	학-한	.100*	.036
	KNS	50	1.00	.000			학-중	.020	.672
	CNS	50	1.08	.274			한-중	.080	.092

*P<.05 **P<.01 ***P<.001

19)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데이터를 처리하였을 때 해당 전략을 사용하면 2로 입력하였고, 사용하지 않으면 1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치가 1로 나타난 것은 이 집단이 해당 전략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한다.

<표 Ⅲ-30>에 의하면 상황1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모두 전략5, 7, 8, 10, 12, 14, 16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은 모두 전략4 '불허 표현하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표현 문형을 살펴보면 모두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제한함을 나타내는 '-면 안 되다'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강한 금지보다 전략4와 같은 조금 완화된 방식을 통하여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 집단의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 전략6 '소망 표현하기'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사후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전략1의 경우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이 상황에서 전략1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데에 비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아 명시적인 금지(예: "동아리 활동실에서 음식을 먹지 마." "야, 그만 먹어.")를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수행하는 편이었다. 전략2와 전략6의 경우 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없었지만 평균치를 보면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양상이 유사한 동시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사후 인터뷰 결과 한 중국인 학습자는 "제가 상황1에서 중국어로 발화한다면 '금지'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대학교에서 이런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라고 응답하였다. 전략6의 경우 학습자 집단(예: "죄송하지만 동아리 활동실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뿐만 아니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예: "在活动室里吃东西会影响其他人, 最好还是不要在这里吃。/활동실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여기서 먹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에서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는 역시 모국어의 영향으로 인한 화석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Ⅲ-32>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1)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8	25.8%	9	27.3%	11	28.9%
이유/규칙 제시하기	13	41.9%	5	15.2%	11	28.9%
전제하기	0	0	0	0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0	0	0	0	1	2.7%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1	3.2%	0	0	0	0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5	16.1%	13	39.4%	3	7.9%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1	3.2%	0	0	1	2.7%
주의 요청하기	3	9.8%	6	18.1%	11	28.9%
감사하기	0	0	0	0	0	0
합계	31	100%	33	100%	38	100%

KNS37#1: OO아, 활동실에서 음식물을 먹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음식을 먹는 건 좀 그렇지 않니?**

CKL41#1: 활동실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되는 규칙이 있어. **배고프면 휴게실에서 먹어.**

KNS50#1: 동아리 활동실 내에서 음식물 취식 금지인 거 모르니? 다 같이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규칙이니까 **다음부터는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상황1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보조화행 사용의 총 빈도수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각자 가장 선호하는 전략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했다. 학습자 집단이 '이유/규칙 제시하기' 전략을 제일 많이 사용한 것과 달리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전략을 높은 빈도로 사용하였다. 금지 의미를 표현할 때 화자가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나 규칙을 설명함으로써 금지 화행을 정당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문 KNS37#1처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오히려 "음식을 먹는 건 좀 그렇지 않니?" 등 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반문을 통하여 자신의 불만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편이었다. 이는 중국에서 선배와 후배가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이인 반면에 선후배

관계가 엄격한 경우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낮은 후배에게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두 집단 모두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은 '대안 제시하기'였다. 예문 CKL41#1에서 보여주듯이 앞에 금지라는 체면 위협 행위를 보상하기 위하여 휴게실에서 먹어도 된다는 새로운 대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의 요청하기' 전략의 사용 비율은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습자 집단은 예시 KNS50#1과 같은 '재발 방지'에 관한 전략을 상대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편이었다고 평가할 수있다.

상황2는 KTX에서 뒤에 앉은 사람에게 내 의자를 차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33>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2)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38	.490		
	KNS	50	1.26	.443		
전략2	CKL	50	1.02	.141		
	KNS	50	1.02	.141		
전략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4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전략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04	.198		
	KNS	50	1.00	.000		
전략7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전략9	CKL	50	1.16	.370		
	KNS	50	1.08	.274		
전략10	CKL	50	1.14	.351		
	KNS	50	1.04	.198		

전략11	CKL	50	1.10	.303		
	KNS	50	1.02	.141		
전략12	CKL	50	1.08	.274	-2.669**	.009
	KNS	50	1.28	.454		
전략13	CKL	50	1.00	.000	-2.585*	.013
	KNS	50	1.12	.328		
전략1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5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전략16	CKL	50	1.06	.240		
	KNS	50	1.12	.328		

*P<.05 **P<.01 ***P<.001

<표 Ⅲ-34>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2)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2	CKL	50	1.08	.274	6.561	.002	학-한	-.200**	.003
	KNS	50	1.28	.454			학-중	.020	.766
	CNS	50	1.06	.240			한-중	.220***	.001
전략13	CKL	50	1.00	.000	3.811	.024	학-한	-.120**	.008
	KNS	50	1.12	.328			학-중	-.040	.368
	CNS	50	1.04	.198			한-중	.080	.073

*P<.05 **P<.01 ***P<.001

상황2에서는 두 집단 모두 전략3, 5, 14를 사용하지 않았다.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의 사용에 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습자 집단의 전략12, 전략13의 사용 양상은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사용 양상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성은 학습자의 모국어 발화 습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략12는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이었지만 학습자 집단에서는 저빈도로 나타났다. '이유/규칙 제시하기' 전략은 보통 보조화행 전략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가 "죄송한데 계속 의자가 흔들려서요."라는 발화와 같이 이유를 언급함으로써 주화행 전략을 대신하여 금지 화행의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나

타났다. 해당 상황에서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소원한 경우임을 고려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들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직접적 금지를 될 수 있는 대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상황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전략16 '생략하기'가 이번 상황에서는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모두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비교적 '생략하기'를 많이 사용한 것에서도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학습자 집단에서 제일 선호하는 전략은 '명시적 금지하기'였으며 "발로 제 의자를 차지 마세요." "제 의자를 그만 좀 차세요."라는 발화를 통하여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줄을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발화를 통해 분명하게 금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35>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2)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1	2.9%	0	0	0	0
이유/규칙 제시하기	18	51.4%	9	26.5%	20	64.5%
전제하기	0	0	0	0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0	0	0	0	0	0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0	0	0	0	1	3.2%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0	0	1	2.9%	1	3.2%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16	45.7%	12	35.3%	6	19.4%
주의 요청하기	0	0	10	29.4%	0	0
감사하기	0	0	2	5.9%	3	9.7%
합계	35	100%	34	100%	31	100%

KNS8#2: 죄송한데 **발이 자꾸 제 자리에 닿는데** 조금만 조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NS22#2: 저기요, **의자가 계속 울리는데** 발 좀 조심해주시겠어요?

CKL21#2: 저기, **제가 정신이 없어 좀 쉬고 싶은데** 제 좌석을 발로 차지 마세요.

KNS11#2: 저기 혹시 죄송한데 의자에 기대고 있기가 조금 불편해서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상황2에서는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모두에서 '이유/규칙 제시하기' 및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의 전략 사용이 집중되었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을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이들에게서 보조화행 전략 '이유/규칙 제시하기'의 사용 빈도가 낮게 나타난 원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불손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이유/규칙 제시하기'를 주화행 전략으로 직접 사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할 이유를 제시한 다음에 그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주의 요청하기'를 부가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따라서 '주의 요청하기' 전략의 사용 비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많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방이 전혀 친분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청자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기 위하여 그 사람의 이해를 구하거나 미리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전략도 두 집단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보조화행 전략으로 '이유/규칙 제시하기'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발이 자꾸 자리에 닿는다거나 의자가 계속 울린다거나 하는 등 금지의 이유가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에, 학습자 집단의 경우 대부분 응답자들이 설문지 작성 시 상황 설명 부분에 나온 내용을 참조하여 예문 CKL21#2처럼 정신이 없어서 쉬고 싶다는 이유를 단일하게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황3은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점장에게 폭설 날에 운전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36>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3)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02	.141		
	KNS	50	1.02	.141		

전략2	CKL	50	1.04	.198		
	KNS	50	1.00	.000		
전략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24	.431	2.979**	.004
	KNS	50	1.04	.198		
전략7	CKL	50	1.00	.000		
	KNS	50	1.04	.198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9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10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1	CKL	50	1.56	.501	2.466*	.015
	KNS	50	1.32	.471		
전략12	CKL	50	1.02	.141		
	KNS	50	1.06	.240		
전략13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14	CKL	50	1.08	.274		
	KNS	50	1.02	.141		
전략15	CKL	50	1.00	.000	-7.000***	.000
	KNS	50	1.50	.505		
전략16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P<.05 **P<.01 ***P<.001

<표 Ⅲ-37>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3)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6	CKL	50	1.24	.431	4.324	.015	학-한	.200**	.006
	KNS	50	1.04	.198			학-중	.040	.579
	CNS	50	1.20	.404			한-중	-.160*	.028
전략11	CKL	50	1.56	.501	2.999	.053	학-한	.240*	.016
	KNS	50	1.32	.471			학-중	.100	.311
	CNS	50	1.46	.503			한-중	-.140	.157
전략15	CKL	50	1.00	.000	39.350	.000	학-한	-.500***	.000
	KNS	50	1.50	.505			학-중	-.040	.524
	CNS	50	1.04	.198			한-중	.460***	.000

*P<.05 **P<.01 ***P<.001

상황3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모두는 전략3, 4, 5, 8, 10, 16을 사용하지 않았다. 학습자 집단에서 제일 많이 선호하는 전략은 전략11 '대안 제시하기'였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략은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였다. 두 집단에서 제일 선호하는 전략은 다르지만 모두 간접적인 전략에 해당한다는 것과, 두 집단이 이 상황에서 사용한 전략들이 거의 간접적인 전략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화자의 상대적 힘이 약한 경우 두 집단이 모두 직접적인 금지 표현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통하여 금지 의미를 완곡하게 전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이은희(20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두 집단은 전략6 '소망 표현하기', 전략11 '대안 제시하기'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의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세 전략에 대한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 언어 사용 습관이 한국어로 전이된 결과인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습자 집단이 "차를 운전하시지 않은 거 더 좋을 것 같아요."와 같이 전략6에 해당되는 문형 '-지 않는 것이 좋다'로 발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응답에서 많이 발견된 문형 "最好不要..."의 한국어 번역과 서로 대응된다. 이와 달리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소망 표현하기' 전략보다 "점장님 오늘 날씨가 이런데 운전 괜찮으시겠어요?", "밖에 눈이 많이 와서 운전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등과 같은 반문의 의미가 지닌 의문문을 통하여 폭설 날 운전의 위험성을 강조함으로써 청자의 행위를 암시적으로 막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38>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3)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1	2.1%	1	2.4%	3	7.0%

이유/규칙 제시하기	46	95.8%	37	90.2%	36	83.7%
전제하기	0	0	0	0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1	2.1%	0	0	0	0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0	0	1	2.4%	0	0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0	0	0	0	2	4.7%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0	0	0	0	0	0
주의 요청하기	0	0	2	5.0%	2	4.6%
감사하기	0	0	0	0	0	0
합계	48	100%	41	100%	43	100%

CKL16#3: **지금 날씨가 좋지 않고 교통이 너무 복잡해서** 잠시 기다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KNS11#3: 차 끌고 가시게요? **아까 보니까 길 미끄럽던데**.

KNS50#3: 점장님, **오늘 폭설이 내려서 길 미끄럽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오늘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어떠세요?

상황3에서 학습자 집단 50 명의 응답자 중에 48 명이 보조화행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비슷한 보조화행 전략 사용 양상을 보였으며, '이유/제시하기' 전략은 두 집단에서 각각 95.8%, 90.2%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집단은 청자의 행위를 금지하는 목적으로 '날씨가 좋지 않아 위험하다' '교통이 복잡하다' '길이 미끄럽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다'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도를 전달하는 동시에 화자가 청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본고에서 **상황4**인 '학생에게 연구실 자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는 금지 화행의 [명령] 기능에 해당하는 맥락이다. [명령] 기능은 화자의 사회적 힘이 청자보다 클 때만 발생하며 청자에게 부담이 되고 행위 이행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권력이 거의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기능에 따른 전략 양상 분석 부분[20]에서 이미 논의한

내용이기에 여기서는 다시 논술하지 않겠다.

상황5는 선배에게 심한 장난을 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39>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5)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30	.463		
	KNS	50	1.22	.418		
전략2	CKL	50	1.00	.000		
	KNS	50	1.04	.198		
전략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5	CKL	50	1.04	.198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38	.490	2.262*	.026
	KNS	50	1.18	.388		
전략7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9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10	CKL	50	1.04	.198		
	KNS	50	1.08	.274		
전략11	CKL	50	1.04	.198		
	KNS	50	1.00	.000		
전략12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13	CKL	50	1.14	.351	-2.600*	.011
	KNS	50	1.36	.485		
전략1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5	CKL	50	1.00	.000		
	KNS	50	1.06	.240		
전략16	CKL	50	1.02	.141		
	KNS	50	1.06	.240		

*P<.05 **P<.01 ***P<.001

20) 3.2.2장 '1) 기능에 따른 분석' 내용 참조.

<표 Ⅲ-40>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5)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6	CKL	50	1.38	.490	8.739	.000	학-한	.200*	.011
	KNS	50	1.18	.388			학-중	.320***	.000
	CNS	50	1.06	.240			한-중	.120	.123
전략13	CKL	50	1.14	.351	5.940	.003	학-한	-.220*	.016
	KNS	50	1.36	.485			학-중	-.300***	.001
	CNS	50	1.44	.501			한-중	-.080	.376

*P<.05 **P<.01 ***P<.001

<표 Ⅲ-39>를 통하여 상황5에서 두 집단 모두 전략3, 4, 7, 8, 14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습자 집단이 가장 선호하는 전략은 전략6 '소망 표현하기'였으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가 월등히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은희(2014)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해당 상황 맥락에서 강한 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자세히 분석하자면 이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직접적인 금지 표현보다 "선배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선배 장난이 약간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와 같이 청자로 하여금 자신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선배, 장난도 선을 지키셔야죠."라는 발화를 통하여 이 행동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는 상대가 사회적 힘의 크기가 우세한 선배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간접적 전략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달리 학습자 집단은 "이런 심한 건 두 번 다시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라고 발화하여 청자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을 언급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막고자 하는 편이었다. 전략6 '소망 표현하기'는 직접적 금지 전략에 속하지만 강한 금지보다 체면 손상 정도가 더 약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두 집단의 전략6과 전략13의 사용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보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학습자의 이러한 전략 사용 양상에는 학습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Ⅲ-41>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5)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1	2.7%	1	3.0%	0	0
이유/규칙 제시하기	1	2.7%	0	0	1	3.4%
전제하기	0	0	1	3.0%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28	75.7%	21	63.6%	18	62.1%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0	0	0	0	1	3.4%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1	2.7%	5	15.2%	5	17.3%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3	8.1%	2	6.1%	1	3.4%
주의 요청하기	2	5.4%	3	9.1%	3	10.4%
감사하기	1	2.7%	0	0	0	0
합계	37	100%	33	100%	29	100%

CKL13#5: 선배님, **이런 장난을 하실 때마다 제가 좀 불편해요.** 앞으로 이런 장난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KNS5#5: 선배, **진짜 솔직히 가끔씩 장난이 너무 지나치신 것 같아요.** 조금 자제해 주세요.

KNS11#5: 형, 근데 이런 장난 하는 거 저는 좀 그래요. **진짜로. 장난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그래요.**

<표 Ⅲ-41>에 의하면 세 집단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화행 전략은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였다. 즉, 예문 CKL13#5와 KNS5#5에서 보여주듯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이 상황에서 부가적인 전략으로 모두 청자에게 자신의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사실 예문 CKL13#5와 KNS5#5에서 나온 보조화행 전략은 '이유/규칙 제시하기'로 간주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상황 자체가 화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상당히 민감한 문

제인 것과, 화자가 자신의 기분을 배려 받는 목적으로 수행하게 된 금지 화행임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이유 설명보다는 이 전략을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로 분류한 것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은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인데 예문 KNS11#5처럼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청자에게 털어놓은 다음에 부사 '진짜로'로 시작된 발화를 통하여 앞에 언급했던 내용을 다시 강조하는 전략이다.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학습자 집단이 이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한국어 지식의 결핍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상황6은 카페 직원에게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2>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6)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26	.443	3.649***	.000
	KNS	50	1.02	.141		
전략2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7	CKL	50	1.06	.240		
	KNS	50	1.00	.000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9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0	CKL	50	1.04	.198		
	KNS	50	1.00	.000		
전략11	CKL	50	1.62	.490	-4.988***	.000
	KNS	50	1.98	.141		

전략12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6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P<.05 **P<.01 ***P<.001

<표 Ⅲ-43>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6)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1.26	.443	7.269	.001	학-한	.240***	.000
	KNS	50	1.02	.141			학-중	.160*	.014
	CNS	50	1.10	.303			한-중	-.080	.214
전략11	CKL	50	1.62	.490	14.070	.000	학-한	-.360***	.000
	KNS	50	1.98	.141			학-중	-.260***	.000
	CNS	50	1.88	.328			한-중	.100	.156

*P<.05 **P<.01 ***P<.001

상황6에서 두 집단이 사용한 주화행 전략은 다른 상황보다 비교적 단순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50 명 응답자 중에 한 명만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를 사용하였고 나머지인 49명의 응답자들은 모두 전략11 ‘대안 제시하기’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 상황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저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세요.”와 같이 특정 행위가 수행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보다 금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행위가 직접 행해지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분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금지 화행을 수행하기 위하여 금지할 행위와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행하도록 하는 전략은 ‘대안 제시하기’로 분류하였다. 이에 비하여 학습자 집단은 전략1, 6, 7, 10, 11의 사용에 집중하였고 전략 사용 양상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중에서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예: “얼음 많이 넣지 마세요.”)가 사용되는 빈도가 한국인 집단보다 많이 높았다.

또한, 두 집단의 전략1과 전략11의 사용 양상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에 근거하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두 전략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통계적 차이는 학습자 한국어 능력의 한계와 관련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 외에 한국인 학습자 집단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면서 학습자 집단에서만 사용되는 전략6 '소망 표현하기'(예: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략7 '제안하기'(예: "얼음 조금만 넣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전략10 '청자 허락 구하기'(예: "혹시 저의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는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세 전략 경우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이는 역시 학습자의 부족한 한국어 실력에 의하여 생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Ⅲ-44>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6)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0	0	0	0	0	0
이유/규칙 제시하기	2	12.5%	3	37.5%	3	9.4%
전제하기	0	0	0	0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0	0	0	0	0	0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0	0	0	0	0	0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0	0	1	12.5%	1	3.1%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3	18.8%	2	25.0%	0	0
주의 요청하기	0	0	0	0	0	0
감사하기	11	68.7%	2	25.0%	28	87.5%
합계	16	100%	8	100%	32	100%

CKL25#6: 얼음을 많이 넣지 마십시오. <u>감사합니다.</u>

KNS20#6: 얼음 조금만 넣어주세요. <u>차가운 거 싫어해서요.</u>

<표 Ⅲ-44>에 따르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사용한 보조화행 전략의 빈도는 다른 상황보다 낮은 편이었고, 이 상황도 다

른 상황에 비하여 조금 특별한 맥락이며 이때 보조화행은 주로 전략2 '이유/규칙 제시하기'로 실현되었다. 이 상황은 화청자 간의 사회적 거리가 소원한 경우이고 [요청]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이는 낯선 사람인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그 요청을 들어주도록 상대방에게 미리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예문 KNS20#6처럼 이유를 제시한다거나 부탁한다는 전략도 가끔씩 나타났다.

상황7은 친한 친구에게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5>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7)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74	.443	5.130***	.000
	KNS	50	1.28	.454		
전략2	CKL	50	1.00	.000		
	KNS	50	1.06	.240		
전략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전략7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전략9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0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1	CKL	50	1.02	.141		
	KNS	50	1.06	.240		
전략12	CKL	50	1.02	.141		
	KNS	50	1.02	.141		
전략13	CKL	50	1.08	.274	-3.334***	.001
	KNS	50	1.34	.479		

전략14	CKL	50	1.04	.198		
	KNS	50	1.14	.351		
전략15	CKL	50	1.10	.303		
	KNS	50	1.06	.240		
전략16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P<.05 **P<.01 ***P<.001

<표 Ⅲ-46>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7)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1.74	.443	19.688	.000	학-한	.460***	.000
	KNS	50	1.28	.454			학-중	.500***	.000
	CNS	50	1.24	.431			한-중	.040	.652
전략13	CKL	50	1.08	.274	16.973	.000	학-한	-.260**	.003
	KNS	50	1.34	.479			학-중	-.500***	.000
	CNS	50	1.58	.499			한-중	-.240**	.006

*P<.05 **P<.01 ***P<.001

<표 Ⅲ-45>에 의하면 상황7에서 두 집단 간에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와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략1과 전략13은 또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각자 최고 빈도로 사용된 전략에 해당하였다. 전략1 경우 학습자 집단에서 금지 부사 '그만'이 포함된 표현(예: "그만 마셔라.") 및 '-지 말다'의 명령형에 의한 표현(예: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 마.")이 주를 이루었다. 전략13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동사 '줄이다'와 부사 '적당히'(예: "네 건강을 생각해서 줄이는 게 어떨까?", "술 적당히 마시고")를 사용하여 청자의 몸을 걱정해주는 차원에서 화자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함으로써 과음하는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이은희(2014)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21]. 그리고 사후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략1에 대한 한국인 모어 화자와

21) '골초 친구에게 금연하도록 말하기'의 상황에서는 청자의 건강을 걱정하거나 흡연의 나쁜 점을 알리거나 혹은 타인에게의 피해를 강조하는 등 간접적인 금지 화행도 상당히 고빈도로 나타났다(이은희, 2014:120).

중국인 모어 화자 두 집단의 사용 양상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이러한 사용 양상을 보인 것은 한국어 지식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전략13 사용 양상의 경우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매우 현저한 차이를 보였고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표현 "少喝点(적당히 마셔라/술 좀 줄여)"은 학습자 집단에서 총 두 번 정도만 발견되었다. 이 역시 모국어의 전이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적지 않게 나타난 부사 '작작[22]'을 통한 표현(예: "술 작작 마시고")은 학습자 집단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 Ⅲ-47>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7)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4	9.1%%	8	18.2%	13	34.2%
이유/규칙 제시하기	22	50.0%	6	13.6%	8	21.1%
전제하기	2	4.5%	0	0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5	11.4%	12	27.3%	8	21.1%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4	9.1%	7	15.9%	5	13.2%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7	15.9%	11	25.0%	4	10.5%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0	0	0	0	0	0
주의 요청하기	0	0	0	0	0	0
감사하기	0	0	0	0	0	0
합계	44	100%	44	100%	38	100%

CKL1#7: 술 그만 먹고! <u>정신 차려 이 자식이.</u>

CKL8#7: 술 적당히 마셔 <u>몸에 안 좋아.</u>

CKL34#7: 술로 기분 전환하지 말고 <u>몸에 대해 좋은 운동을 하세요.</u>

KNS17#7: 얌마 술 적당히 마시고 <u>나와 봐, 지금 보자.</u>

KNS19#7: <u>헤어진 거 잊어버리고</u> 술 고만 마시자.

22) 김영란(1998)에서는 {작작 + 동사}라는 형식이 제 2 유형의 금지 표현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부사 '작작'이 포함된 표현을 금지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KNS20#7: 야 술 그만 마셔. **너 이러다 죽는다.**

상황7에서 학습자 집단은 예문 CKL8#7과 같이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성공적인 금지 화행 수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다르게 한국인 학습자 집단은 예문 KNS17#7, KNS19#7처럼 친구에게 지금 만나자고 제안하거나 헤어진 것을 잊어버리라는 등 친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는 방식을 보조화행 전략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외에 예문 CKL34#7에서 나온 운동과 같이 기분 전환을 위해 술 대신에 활용 가능한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예문 CKL1#7처럼 술을 그만 먹고 정신을 차리라고 하며 주화행 내용을 강조하거나 예문 KNS20#7과 같이 과음의 나쁜 점 혹은 최악의 결과를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 다양한 보조화행 전략들은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모두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황8은 손님에게 피팅룸 동반 입장하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8>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8)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2	CKL	50	1.24	.431		
	KNS	50	1.32	.471		
전략3	CKL	50	1.06	.240		
	KNS	50	1.08	.274		
전략4	CKL	50	1.18	.388		
	KNS	50	1.06	.240		
전략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7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9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0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1	CKL	50	1.14	.351	2.245*	.027
	KNS	50	1.02	.141		
전략12	CKL	50	1.36	.485		
	KNS	50	1.50	.505		
전략1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6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P<.05 **P<.01 ***P<.001

<표 Ⅲ-49>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8)

전략	잡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1	CKL	50	1.14	.351	2.474	.088	학-한	.120*	.040
	KNS	50	1.02	.141			학-중	.020	.730
	CNS	50	1.12	.328			한-중	-.100	.086

*P<.05 **P<.01 ***P<.001

상황8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사용한 전략들은 상대적으로 특정 전략에 그 사용이 집중되어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략은 모두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였고 이 전략은 명시적인 금지 요소가 들어 있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피팅룸은 1인1실 원칙입니다."라는 표현 등을 통하여 정해진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상대방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전략이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전략은 두 집단 모두에서 전략2 '수행문 사용하기'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두 집단 모두에서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명시적인 수행동사 '금지되다', 형용사 '불가하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예: “피팅룸 동반 입장은 금지돼 있습니다.”, “피팅룸에 두 분 입장은 불가합니다,”)으로 해당 행위를 막고자 하는 경향이 또한 강하게 나타났다. 여기서 청자의 사회적 힘이 화자보다 큰 상황임에도 금지 의미가 분명한 수행문이 고빈도로 사용된 것은 청자의 행위 자체가 규칙적으로 금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다른 완화된 금지 표현을 사용하기보다 해당 규정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23].

<표 Ⅲ-48>에 의하면 두 집단의 전략11 ‘대안 제시하기’ 사용 양상에 관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주화행 전략으로 발화 “옆에 피팅룸도 이용할 수 있어요.”와 같이 다른 피팅룸을 사용하라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자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은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보다 학습자 집단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다. 사후 분석 결과에서 학습자 집단의 이러한 사용 양상은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더욱 가까운 것으로 보였다.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 습관이 한국어 운용으로 전이된 결과라고 설명될 수 있다.

<표 Ⅲ-50>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8)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18	46.2%	13	43.4%	19	47.5%
이유/규칙 제시하기	6	15.3%	1	3.3%	2	5.0%
전제하기	0	0	0	0	0	0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1	2.6%	0	0	0	0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0	0	0	0	1	2.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0	0	1	3.3%	3	7.5%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13	33.3%	15	50.0%	14	35.0%
주의 요청하기	0	0	0	0	0	0
감사하기	1	2.6%	0	0	1	2.5%
합계	39	100%	30	100%	40	100%

23) 이은희(2014)에서는 명백한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상황에서는 다른 상황에 비해 비교적 명시적인 직접 금지 표현이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CKL3#8: 저희 피팅룸 좁아서 하나는 한명만 들어가는 규칙이 있어요. **친구 분이 옆 칸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CKL25#8: 원칙에 따라 피팅룸 동반 입장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KNS3#8: 원칙적으로 피팅룸 동반 입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KNS46#8: 손님, 저희 가게 피팅룸은 동반 입장 안 돼서요. **일행 분은 이쪽에서 기다려주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보조화행의 전략에 대한 세 집단의 사용 양상은 매우 비슷한 것으로 보였으며, 주로 '대안 제시하기' 및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에 집중하였다. 전략 '대안 제시하기'의 경우 청자의 동반 입장을 금지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예문 CKL3#8, KNS46#8에서 나온 내용처럼 둘 중 한 명이 다른 피팅룸 이용하거나 잠시 밖에서 기다리라고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략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는 금지 화행의 체면 위협 정도를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화자가 손님의 신분을 가진 청자에게 정해진 규칙을 미리 알려주지 못하여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반적인 화법이라고 볼 수 있다.

상황9는 친구에게 공공장소에서 내 별명을 부르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51>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9)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70	.463	4.068***	.000
	KNS	50	1.32	.471		
전략2	CKL	50	1.00	.000		
	KNS	50	1.06	.240		

전략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5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6	CKL	50	1.08	.274		
	KNS	50	1.04	.198		
전략7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8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전략9	CKL	50	1.06	.240		
	KNS	50	1.06	.240		
전략10	CKL	50	1.02	.141		
	KNS	50	1.12	.328		
전략11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전략12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3	CKL	50	1.08	.274	-2.669**	.009
	KNS	50	1.28	.454		
전략14	CKL	50	1.00	.000		
	KNS	50	1.02	.141		
전략15	CKL	50	1.06	.240		
	KNS	50	1.06	.240		
전략16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P<.05 **P<.01 ***P<.001

<표 Ⅲ-52>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9)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	CKL	50	1.70	.463	8.837	.000	학-한	.380***	.000
	KNS	50	1.32	.471			학-중	.300**	.002
	CNS	50	1.40	.495			한-중	-.080	.403
전략13	CKL	50	1.08	.274	3.423	.035	학-한	-.200**	.010
	KNS	50	1.28	.454			학-중	-.120	.121
	CNS	50	1.20	.404			한-중	.080	.300

*P<.05 **P<.01 ***P<.001

<표 Ⅲ-51>에서 볼 수 있듯이 상황9의 경우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전략은 모두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한 친구에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

의 별명을 부르는 것을 금지할 때 두 집단은 모두 공손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만 + 동사'의 명령형(예: "내 별명을 그만 불러.") 혹은 '-지 말다'의 명령형 표현(예: "그 별명 좀 부르지 마.")의 사용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이는 이은희(2014)에서의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사이가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가 가득 찬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한국어의 경우 공손 표현은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관점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전략1 '명시적 금지하기'와 전략13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에 관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다. 사후 분석 결과에 따라 전략1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습자 집단의 이러한 사용 양상은 중간언어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략13에 속하는 "그 별명은 좀 우리끼리 있을 때만 불러." 등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표현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비중 있게 나타나는 데에 비하여 학습자 집단은 이 전략을 별로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전략10 '청자 허락 구하기'의 경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6 명 정도가 '안+ -(으)면 안 되다'의 의문형에 의한 표현(예: "밖에서는 별명으로 안 부르면 안 되냐?")으로 응답하였는데 학습자 집단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한 명밖에 없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표 Ⅲ-53>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9)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0	0	0	0	0	0
이유/규칙 제시하기	0	0	0	0	0	0
전제하기	3	10.4%	1	3.1%	2	7.7%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21	72.4%	24	75.0%	16	61.6%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1	3.4%	2	6.3%	1	3.8%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3	10.4%	5	15.6%	7	26.9%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0	0	0	0	0	0
주의 요청하기	0	0	0	0	0	0
감사하기	1	3.4%	0	0	0	0
합계	29	100%	32	100%	26	100%

CKL4#9: 나중에 장소 가리지 않고 내 별명 부르지 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어떡해?**

CKL7#9: **친구끼리는 괜찮은데 공공장소에서 이 별명은 수치스럽단 말이야.** 그만 불러줬으면 좋겠어.

CKL31#9: **내 별명을 친구끼리 부를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부르지 마.

KNS3#9: 내 별명을 그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부르지 마. **부끄럽잖아.**

KNS43#9: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랑 있을 땐 별명 부르지 마. **이름 불러 이름.**

<표 Ⅲ-53>을 살펴보면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모두에서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가 보조화행 전략으로써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즉, 두 집단은 모두 예문 CKL7#9, KNS3#9처럼 청자에게 그 별명을 들을 때마다의 심정을 이유 설명하듯이 언급함으로써 보조화행을 실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상황9 자체가 개인적이고 화자의 체면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라 친한 친구로서의 청자와의 좋은 사이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이해심을 받으려는 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예문 CKL31#9 선행절처럼 양보의 의미를 나타내는 '-지만'에 의한 표현을 통하여 친구끼리라는 전제하에 별명을 부르는 것이 허용됨을 먼저 말함으로써 금지의 분위기를 보다 부드럽게 하는 방식과, 예문 CKL4#9, KNS43#9와 같이 반문 또는 반복을 통한 강조 등 여러 가지의 부가적인 전략들이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상황10은 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후배에게 내 생일날 배달을 시키지 말 것을 말하는 경우이며 이 맥락에서 집단별로 사용한 주화행 및 보조화행 금지 전략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54> CKL, KNS 두 집단 주화행 전략 사용 비교(상황10)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P
전략1	CKL	50	1.20	.404		
	KNS	50	1.10	.303		
전략2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3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4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5	CKL	50	1.14	.351		
	KNS	50	1.06	.240		
전략6	CKL	50	1.06	.240		
	KNS	50	1.00	.000		
전략7	CKL	50	1.22	.418		
	KNS	50	1.22	.418		
전략8	CKL	50	1.04	.198		
	KNS	50	1.02	.141		
전략9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0	CKL	50	1.02	.141		
	KNS	50	1.00	.000		
전략11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전략12	CKL	50	1.16	.370	-2.532*	.013
	KNS	50	1.38	.490		
전략13	CKL	50	1.12	.328		
	KNS	50	1.14	.351		
전략14	CKL	50	1.04	.198		
	KNS	50	1.00	.000		
전략15	CKL	50	1.00	.000	-2.064*	.042
	KNS	50	1.08	.274		
전략16	CKL	50	1.00	.000		
	KNS	50	1.00	.000		

*P<.05 **P<.01 ***P<.001

<표 Ⅲ-55> CKL, KNS, CNS 세 집단 주화행 전략 사후분석(상황10)

전략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F	P	사후분석		
							집단	평균차이	P

전략12	CKL	50	1.16	.370	3.143	.046	학-한	-.220*	.014
	KNS	50	1.38	.490			학-중	-.140	.117
	CNS	50	1.30	.463			한-중	.080	.369
전략15	CKL	50	1.00	.000	4.261	.016	학-한	-.080*	.013
	KNS	50	1.08	.274			학-중	.000	1.000
	CNS	50	1.00	.000			한-중	.080*	.013

*P<.05 **P<.01 ***P<.001

<표 Ⅲ-54>를 분석하자면 상황10에서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모두 직접적 전략 중에 금지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전략들과 간접적 전략을 위주로 사용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특히 다른 상황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은 전략5 '불필요성 언급하기', 전략7 '제안하기'에 해당하는 표현(예: "따로 배달 음식을 시킬 필요가 없어.", "음식은 주문 안 해도 될 거 같아.")들이 여기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운용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상황10 자체가 [권유]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화자의 이익이 손해를 입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금지를 나타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본다. 이 점은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가 가장 선호되는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을 상대적 많이 선택한 학습자 집단은 '-지 말다'의 명령형 표현으로 청자에게 금지 의도를 전달하는 경향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보다 조금 강하였다.

한편, 두 집단의 전략12 '이유/규칙 제시하기'와 전략15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의 사용 양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의 결과로 전략12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 간의 차이가 훨씬 더 작다는 점을 감안하여 학습자의 이러한 전략 사용 양상은 한국어 능력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되었다. 전략15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그거 다 먹을 수 있겠어?", "배달까지 시키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등 반문의 표현을 통하여 음식이

이미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배달을 시키지 말라는 금지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습자 집단과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모두 이 전략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학습자의 모국어 전이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표 Ⅲ-56> CKL, KNS, CNS 세 집단 보조화행 전략 사용 빈도(상황10)

전략	CKL		KNS		CNS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대안 제시하기	2	4.2%	6	12.8%	3	7.0%
이유/규칙 제시하기	29	60.4%	12	25.5%	10	23.3%
전제하기	9	18.7%	19	40.4%	16	37.2%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4	8.3%	5	10.7%	2	4.7%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2	4.2%	1	2.1%	5	11.6%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2	4.2%	4	8.5%	7	16.2%
부탁하기/이해 구하기/사과하기	0	0	0	0	0	0
주의 요청하기	0	0	0	0	0	0
감사하기	0	0	0	0	0	0
합계	48	100%	47	100%	43	100%

CKL1#10: 니 맘은 아는데 나 음식을 이미 충분히 준비해 놨어. **더 시키면 많이 낭비할 것 같은데.**

CKL15#10: **먹을 거 많으니까** 우리 배달 시키지 말자.

KNS34#10: 나 지금 음식을 좀 많이 해놨거든? 일단 이것부터 먹고 **부족하면 배달시키자 ㅇㅋ?**

KNS44#10: OO아, 내가 요리하기로 했으니까 배달은 필요없을 것 같아. **차라리 나 음식 준비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표 Ⅲ-56>에서 제시된 총 빈도수를 보면 이 상황에서 세 집단은 모두 보조화행 전략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었다. 이는 청자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처럼 그 행위를 금지하는 경우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보호하기 위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때 예문 CKL15#10처럼 청자의 호의를 뿌리치는 이유를 함께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 '이유/규칙 제시하기'가 보조화행 전략으로 학

습자 집단보다 저빈도로 나타난 원인은 이 전략이 주화행 실현 기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기에 부가적인 수단으로 다른 보조화행 전략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다고 인식된다. 뿐만 아니라 체면 손해의 보상 행위로 예문 CKL1#10처럼 배달을 더 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알리거나 예문 KNS34#10과 같이 배달을 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을 내걸거나 예문 KNS44#10처럼 배달을 시키기보다 화자의 도움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조적인 전략을 통하여 청자에게 그의 마음만 받겠고굳이 배달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3.3. 화용적 실패에 대한 분석

화용적 실패를 논의하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고급 중국인 학습자의 문법적 오류부터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금지 화행에서 발견된 중국인 학습자의 특징적인 문법적 오류는 크게 '부정문 의미의 혼동'과 '혹시의 오용'으로 두 가지가 있으며, 각각 6회, 5회로 발생하였다. 한상미(2005)에 의하면 이 두 가지의 문법적 오류는 모두 '표현 오류'에 해당한다. 문법적 오류는 발화 또는 문장 내적 측면에서 의미 정보의 손상과 관련된 것이며, 한상미(2005)에서는 표현 오류를 낱말 단위의 차원을 넘은 구 차원의 오류라고 정의하였다. 두 가지 문법적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CKL11#2: 저 계속 발로 좌석을 차서 제대로 쉴 수 없어서 <u>**혹시 좌석을 그만 차도 될까요▷(표현 √혹시 제 좌석을 그만 차 주시면 안 될까요)?**</u>
CKL17#2: 저기... <u>**의자를 차지 않으셔도 돼요▷(표현 √의자를 차지 말아 주세요).**</u> 지금 자고 있어요.

중국인 학습자의 금지 화행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법적 오류 사례는 CKL11#2와 같이 학습자가 부정문의 의문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습득하지 못하는 데에서 초래된 것이다. '-지 않아도 되다', '안 + -아/어/여도 되다'의 의문문은 청자의 허락 및 허용을 구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 주어가 1인칭이며, 즉 화자 자신의 부정적 행위에 대해서 청자에게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가 상대방의 부정적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표현으로 "좌석을 그만 차도 될까요?"라고 잘못 발화하여 문법적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경우 금지 화행에서 청자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인 '그만 + -(으)면 안 되다', '안 + -(으)면 안 되다'의 의문문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다. 한편, '-지 않아도 되다'의 평서문은 전략 '제안하기'에 해당하나, 화자가 상대방의 부정적 행위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예문 CKL17#2의 맥락은 뒤에 앉은 사람이 좌석을 차는 행위가 화자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라 그 행위를 허락하기보다 금지하는 의미가 더욱 명확히 전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화자가 "의자를 차지 않으셔도 돼요."라고 발화함으로써 내 의자를 차도 되고 차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모호한 발화를 하게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표현 오류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상술한 표현 오류는 모두 부정문 의미 정보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CKL21#7: **<u>혹시 선배님이 저에게 그런 장난을 치지 마세요.▷(표현 √'혹시'를 삭제함/혹시 선배님이 저에게 그런 장난을 치지 말아 주시겠어요?)</u>** 저는 그 장난이 좀 싫어서 그래서 그런지▷(형태·통사 √'그래서 그런지'를 삭제함) 불편해요.

CKL49#8: 고객님, 우리▷(존대법 √저희) 가게에서 피팅룸 동반 입장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u>혹시 고객님 한 분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표현 √'혹시'를 삭제함/혹시 고객님 한 분께서 조금만 기</u>**

다려 주시겠어요?)

금지 화행에서 드러난 문법적 오류로 중국인 학습자가 부사 '혹시'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혹시'는 화자가 그러리라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말하기를 망설일 때 쓰이는 완화장치로 간주될 수 있으나 의문문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문 CKL21#7, CKL49#8처럼 명령형 구문에서 '혹시'가 사용된 것은 중국인 학습자가 선배나 고객에게 공손성이 높은 발화를 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지만 부사 '혹시'의 의미와 정확한 용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결국 앞뒤가 안 맞는 표현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는 발화의 강요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뚜렷한 문법적 오류가 일으켰기 때문에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는 오히려 어색한 느낌을 주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경우 '혹시'를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뒤에 오는 통사적 장치를 명령형에서 의문문으로 전환할 때 문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표현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빈도는 요인별로 정리하면 <표 Ⅲ-57>과 같다.

<표 Ⅲ-5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요인별 분석

화용적 실패	요인	빈도	백분율
화용언어적 실패	호칭	13	14.0%
	통사적 완화장치	36	38.6%
	존대법	29	31.2%
	관례어	9	9.7%
화용언어적 실패 계		87	93.5%

사회화용적 실패	사회적 관계	4	4.3%
	가치관	2	2.2%
사회화용적 실패 계		6	6.5%
합계		93	100%

<표 Ⅲ-57>을 살펴보면 화용언어적 실패가 전체 화용적 실패 87회에서 93.5%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반면에 사회화용적 실패가 점유한 비중은 6.5%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하여 화용언어적 요인이 금지 화행에서 나타난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는 주된 요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1. 화용언어적 실패 분석

1) 호칭

본 연구에서 호칭이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을 부르거나 가리켜서 말할 때 사용하는 말로서 이름, 대명사, 신분이나 지위를 나타내는 명칭, 직함과 결합된 표현 등을 포함한다[24]. <표 Ⅲ-57>에 의하면 호칭과 관련된 화용적 실패는 총 13회로 전체 화용적 실패에서 14.0%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발생 빈도로 보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경숙(2012)에 따르면 호칭의 오용은 대화 초반부터 한국인 모어화자에게 무례함 및 모호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깊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24) 호칭(부름말)이란 어떤 이를 부르는 데에 쓰는 말이며, 지칭(가리킴말)이란 어떤 이를 가리켜서 말할 때에 쓰는 말이다. 둘을 합쳐서 말할 때에는 호칭이라 하기도 한다(서정수, 1994:894).

CKL10#5: OO야▷(호칭 √선배), 나중에 이런 장난 치지 마, 솔직히 말하면 좀 불편해.

CKL18#6: 오빠▷(호칭 √저기요),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CKL22#8: 당신의 친구▷(호칭 √친구 분)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CKL48#8: 안녕하세요▷(호칭 √손님), 피팅룸 동반 입장은 불가능합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세요.

예문 CKL10#5는 친한 선배에게 심한 장난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학습자는 선배와 자신이 친한 사이라고 판단하여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고 발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선배와의 사이가 친하다고 할지라도 그 선배를 부를 때 친구처럼 'OO야'라고 하는 것이 예의 없게 들릴 수 있으니 이때 '-님'을 붙이지 않고 '선배'라고 부르는 것은 더 적절한 것 같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이 발화는 학습자가 선배를 'OO야'라고 부적절하게 지칭함으로써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무례함을 유발한 화용적 실패로 처리하였다. 한국에서 장사가 잘 되기 위하여 가게 주인이 고객에게 '언니',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요즘의 추세인데 반대로 예문 CKL18#6처럼 손님이 직원에게 '오빠'라고 호칭하는 것은 맥락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결과는 이경숙(2012)[25]의 논의와 그 맥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호칭의 사용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어색함을 주는 상황이라는 점이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예문 CKL22#8 및 CKL48#8은 모두 손님에게 피팅룸 동반 입장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발화이다. '당신[26]'은 높이는 말로 쓸

25) '언니'라는 친족호칭어가 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이 이런 호칭으로 말을 걸어 왔을 때, 한국인 상대방의 반응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이경숙, 2012:54).

26) '당신'은 '자네'와 같이 2 인칭 대명사 중에서 경칭 표현에 속하고, '자네'보다 청자에

수 있는데 직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화자가 손님인 청자에게 예문 CKL22#8처럼 '당신의 친구'라고 호칭하는 것은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불손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며, 이 경우에는 손님을 존경하는 의미로 '친구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문 CKL48#8은 학습자가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호칭어 대신에 '안녕하세요'로 발화를 시작하는 것이고 호칭으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화용적 실패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진행한 사후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직원이 손님에게 '顾客(고객님)'나 '客人(손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你好(안녕하세요)'로 말을 시작하는 것은 더 흔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경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대부분 상황에서 '你好'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라는 응답이 나왔다. 그러므로 이는 중국어 사용 습관에 따라 '你好'를 직역하여 나타난 양상이며 모국어의 부정적인 전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2) 통사적 완화장치

한상미(2005)에 따르면 한국어에서 화행의 강요성을 완화시키는 통사적 장치는 주로 명령문, 의문문, 청유문, 서술문 등을 포함한 문장의 종결법이나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보조동사 구문이나 내포 구문, 연결구문 등과 같은 다양한 장치들로 구성된다. 본 실험에서 학습자가 이러한 통사적 완화장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 유발한 화용적 실패는 총 36회로 38.6%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경칭표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경칭으로서의 기능이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오히려 '당신'이라 불리는 당사자가 스스로 높임을 받기는커녕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아노다리, 2021:22).

CKL9#4: 연구실 규칙 알고 있죠? 이렇게 타인에게 양도하면 안 되는데 **양도하면 어떡해요?▷(통사적 완화장치 √다음에 양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CKL10#1: OO야, 동아리방에서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날 수 있고 청소도 해야 되고, **미안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먹지 마▷(통사적 완화장치 √미안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CKL13#2: 저기요, **의자를 좀 그만 차시죠▷(통사적 완화장치 √의자를 차지 말아 주세요.)?**

예문 CKL9#4는 연구실장으로서의 화자가 연구실 자리를 배정 받은 학생에게 자리 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수집된 발화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의 의견에 따르면 "양도하면 어떡해요?"라는 발화는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을 때 극한 불만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을 책망하는 의미가 담긴 표현인데 위 상황에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자세히 분석하자면 우선 연구실이란 환경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 상대적 공적인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하면 어떡해요?"보다 비교적으로 격식이 있는 표현으로 금지 발화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상황4는 화자 개인의 이득이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위반한 경우라서 화자가 자신의 불만을 직접 표현하기보다 규정을 제시한 후에 '다음에 양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꼭 좀 주의해 주세요.'처럼 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청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해당 대화의 맥락에 훨씬 더 적합하다.

예문 CKL10#1에서는 보조화행과 관례어 '미안하지만'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완화시켰는데 뒤에 금지할 내용을 체면 위협 정도가 굉장히 높은 '-지 말다'에 의한 명령형으로 금지 의미를 전달하였다. 이 내용을 명령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청자가 듣기에는 앞뒤가 잘 안 맞아 어

색하게 느껴진다는 점이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사후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 경우 '먹지 마'를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는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로 구사하면 발화의 직접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화자의 감정을 보다 부드러운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지 화행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발화를 화용적 실패로 처리하였다.

예문 CKL13#2가 보여 주듯이 학습자가 초면의 사람에게 "저기요. 의자를 좀 그만 치시죠?"라고 발화함으로써 공손성이 떨어진 표현을 발화하게 되었다. 해당 발화에 대한 인터뷰 결과, 초면의 상대방에게 '그만 차시죠?'라고 하면 바로 싸움이 붙을 정도로 화가 엄청 났다는 느낌이 든다는 한국어교육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발화의 표현보다는 부담감을 낮춰 주는 보조동사나 의문문[27]을 통한 '의자를 차지 말아 주세요.' 혹은 '의자를 그만 차 주시겠어요?'로 표현하면 금지의 강도를 완화시켜 불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3) 존대법

존대법은 대화 참여자의 관계 속에서 나이, 친밀도, 지위, 공식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실현되며(이경숙, 2012:55), 존대법으로 인한 실패는 대화 맥락에 부적절한 화계[28]를 선택하거나 특정 화계에 맞추어 발화하는 과정에서 존대 어휘, 어미, 조사[29]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27) 이해영(1996)에서는 의문형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원하는 정보 제공의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28) 화계 선택의 실패는 한번 선택이 잘못되면 의사소통 과정 내내 그 오류가 반복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한상미, 2005:104).
29) 존대 어휘어미조사의 실패는 화자가 화계 선택을 제대로 하여 특정화계에 맞추어 대화하는 과정에서 화용언어적 지식의 부족으로 어휘, 어미, 조사와 같은 차원에서 일으키게 되는 부분적인 실패이다(한상미, 2005:104).

말한다(한상미, 2005:103). 존대법과 관련된 화용적 실패는 29회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화용적 실패에서 31.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CKL21#7: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 마!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면 **어떡해요▷(존대법 √어떡해)**?
CKL21#8: 손님, **우리▷(존대법 √저희)** 가게에서 피팅룸 동반 입장이 금지되는 규칙이 있다고 해서 손님이 따로 입장하시면 안 될까요? 좀 **불편을 주어서▷(존대법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CKL27#8: 고객님, **우리▷(존대법 √저희)** 가게에서는 **둘이서▷(존대법 √두 분이서)** 같이 탈의실 **들어가면▷(존대법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요.
CKL33#10: **배달 시키지 마세요▷(존대법 √배달 시키지 마).** 음식을 내가 충분히 차려 놓을 테니까 다들 맛있게 **먹으면 돼요▷(존대법 √먹으면 돼).**
CKL34#7:술로 기분전환하지 말고 **몸에 대해 좋은 운동을 하세요.▷(존대법 √몸에 좋은 운동을 해라)!**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 집단에게서 존댓말과 비격식체 반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예문 CKL21#7은 친한 친구의 과음 행위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수행된 발화이다. 첫 번째 문장을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지 마!”라고 반말로 발화한 점을 살펴보았을 때 해당 학습자는 친한 친구끼리 반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두 번째 문장 발화 시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해요체로 문장을 구사하게 됨으로써 부적절함을 유발하여 화용적 실패가 발생하였다.

예문 CKL21#8 및 CKL27#8은 학습자가 존대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손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발화가 수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손님에게 반드시 존대법을 사용하여 발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예문에서 공

통적으로 나타난 화용적 문제는 '우리'의 겸양어 '저희'의 미사용으로 인한 것이다. '저희'는 자신을 낮춤으로써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높이는 어휘이므로, 화자가 일하는 가게를 지칭할 때 '저희 가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외에 화자가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손님에게 겸양어 '드리다', 높임말 '분'을 통한 '불편을 드려서', '두 분이'가 아닌 '불편을 주어서', '둘이서'라고 발화하는 것은 불손 행위에 해당하기에 화용적 실패로 볼 수 있다.

존대법 오용으로 불손을 불러일으킨 실패뿐만 아니라 후배에게 "배달시키지 마세요."나 친한 친구에게 한 "운동을 하세요."라고 발화하는 것처럼 선후배나 친한 친구 사이에서 과잉 공손 표현을 사용하는 화용적 실패도 존재하였다. 한국에서는 서로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고서는 친한 후배에게나 친한 친구 사이에 존댓말로 대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예문 CKL33#10과 CKL34#7이 보여 주듯이 발화 초반부터 주체 존대 어미 '-시'가 사용된 것을 통하여 학습자가 처음부터 과잉 존대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화용적 실패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인터뷰 결과, 이러한 과잉 공손 표현의 사용은 오히려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거리감 또는 어색한 느낌을 안겨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관례어

한상미(2005)에서는 Ellis(1994)를 인용하여 관례어[30]는 특정 공동체에서 일정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하여 관습적으로 쓰는 표현이며, 일반적

30) 관례어(routines)란 관용적으로 고정된 표현(formulaic speech)의 한 유형으로 분석되지 않고 통째로 학습되는 단위들이다(Ellis, 1994:722). 이는 '고정 표현(formula, formulaic speech, 혹은 formulaic expressions)', '관례적 표현(conventionalized speech)', '정해진 표현(prefabricated language, 혹은 prefabricated speech)'이라고도 한다(한상미, 2005:108 재인용).

으로 하나의 항목처럼 학습되어 사용되는 것이라고 재정의하였다. 한국어에서 관례어는 다시 대화적 관례어와 공손 관례어[31]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연구에서 관례어를 잘못 사용하여 유발된 화용적 실패는 총 9회로, 전체의 9.7%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CKL14#6: **죄송합니다.▷(관례어 √죄송하지만)** 얼음을 조금만 넣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CKL16#2: **안녕하세요.▷(관례어 √죄송한데)** 제 좌석을 차지 마세요.

CKL18#10: **감사해,▷(관례어 √고맙지만)** 음식 넘 많더라... 바달 시키지 마.

CKL21#10: OO야, 음식이 충분해서 배달을 시키는데 필요가 없어, **고생해~▷(관례어 √괜찮아.)**

관례어 오용으로 인한 가장 전형적인 화용적 실패 사례는 학습자가 '죄송한데', '죄송하지만'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로 잘못 발화함으로써 자연스럽지 못한 오류문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양우정(2017)에서는 '미안해요'와 '미안하지만'의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미안해요'는 화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말이고, '미안하지만'은 화자 본인의 잘못 때문에 용서를 구하기보다 겸손히 양해를 구하는 뜻이 담긴 말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32]. 즉, '미안하지만'은 말을 시

31) 대화적 관례어는 일상 대화 속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정된 표현들로, 예를 들어,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버스에서) 좀 내립시다!' 등이 있다. 공손 관례어는 대화적 관례어 특히 정 함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들로,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수고하세요.'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박경자 외, 2001:76).

32) '미안해요'와 '미안하지만'은 그 의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미안해요'는 본인이 잘

작할 때 청자에게 공손한 태도를 표하기 위해서 쓰는 관례어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예문 CKL14#6에서 '죄송합니다'를 '죄송하지만' 혹은 '죄송한데'로 대체하여야 맥락상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객으로서의 화자의 사회적 신분을 고려하면 잘못한 것이 없으면서 '죄송합니다.'로 말을 시작하여 직원인 청자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은 상당히 어색하다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2인의 의견도 존재하였다. '안녕하세요'는 인사말로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CKL16#2에서 제시된 맥락은 상대방에게 인사해야 할 상황이라기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화자 자신의 금지 요청을 자연스럽게 끌어내야 할 경우이므로 초면의 사람인 청자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손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는 관례어 '죄송한데'나 '죄송하지만'으로 구사하는 것이 더욱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하다'는 사회적 거리가 소원하거나 상대적 힘이 화자 자신보다 강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데에 쓰는 격식을 갖춘 표현이다. 따라서 후배를 대상으로 하는 발화라는 점을 감안하면 예문 CKL18#10에서 '감사해'를 '고맙지만'로 바꾸는 것이 화용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예문 CKL21#10에 관해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마지막으로 '고생해'로 말을 끝낸 게 약간 어색해요. 청자에게 배달을 시키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배달을 시키지 말라고 권유하는 경우라면 여기서 '고생해'보다 '괜찮아'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라는 응답 또한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배달을 안 시켜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관례어 '괜찮아'를 사용하는 것이 화용적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못을 저질렀을 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즉 상대방에게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울 때 사용하는 말이다. '미안하지만'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양해를 구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양우정, 2017:99).

3.3.2. 사회화용적 실패 분석

한상미(2005)에서는 사회화용적 실패를 특정 발화 공동체의 문화 특정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이해영(2002)에서는 사회화용적 실패의 원인으로 1)부담의 정도에 따른 문화적 인식의 차이, 2)금지에 대한 문화적 인식의 차이, 3)사회적 관계에 대한 비교문화적 차이 즉, 인식의 차이, 4)가치 판단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화용적 실패를 유발한 발화 요인을 사회적 관계와 가치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는 사회적 거리와 상대적 힘을 기준으로 한 화청자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각 문화권에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판단이 동일하지 않을 때 그에 관해 문화적으로 특징적인 면이 드러난다. 예를 들면,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선후배 관계는 중국 문화에서보다 더욱 수직적인 관계로 받아들여지는 점이 그것이다. 사회적 관계 관련 화용적 실패는 총 4회로, 전체 화용적 실패에서 4.3%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CKL11#5: <u>**선배님 요즘 자주 치는 장난이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데▷(사회적 관계)**</u> 혹시 나중에 이런 장난을 안 쳐도 돼요▷(표현 √이런 장난을 안 치면 안 될까요)?

예문 CKL11#5는 학습자가 친밀도가 높지만 사회적으로는 손윗사람

인 선배에게 ‘건드리다’를 통한 표현으로 발화함으로써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게 된 사례이다. 화자의 불만을 표현하면서도 친하던 선후배 사이에 나쁜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도록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적당히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서 “제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는데”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경고하는 도발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배에게 하는 발화라기에는 체면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적합하지 않으며, 친한 선배와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매우 불리한 발화라는 점이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발화는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입장에서 친한 선배에게 하기에 부적절한 발화임으로 해당 발화를 사회화용적 실패로 처리하였다. 그보다 ‘제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정도의 표현으로 화자 자신의 불쾌감을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공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CKL27#2: <u>발 좀 관리를 잘하시죠.▷(사회적 관계)</u>

예문 CKL27#2는 KTX에서 내 좌석을 차고 있는 모르는 사람에게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상황에서 일어난 발화이며, “발 좀 관리를 잘하시죠.”라는 내용은 초면의 사람에게 하는 발화치고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무례한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발 관리를 잘 하라는 표현은 신분적으로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며, 정말 친한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하거나 장난이 아니라면 막역한 남자 동성 친구끼리 쓰는 말이라고 본다. 따라서 예문 CKL27#2는 주어진 맥락에 적합하지 못한 표현이 되며,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소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공손성이 결여된 발화를 함으로써 사회화용적 실패를 유발한 것이다.

2) 가치관

가치관에 관한 화용적 실패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비모어 화자와 모어 화자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화용적 문제를 말한다. 가치관으로 인한 화용적 실패는 전체 발화 중에서 총 2회가 발생하였고 비중으로 2.2%를 차지하였다.

CKL40#2: 정말 죄송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기차를 타느라 일찍 일어났는데 제 사정 좀 배려해 주시고 **조용히 앉아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가치관)**

예문 CKL40#2는 청자에게 발로 좌석을 차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발화인데 의미상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있으므로 모호함을 유발한 화용적 실패로 처리하였다.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여 "조용히 앉아 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존대법이나 완화장치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으나, 다만 조용히 앉아 있어 달라는 내용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의 의미가 담겨 있어서 화자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발화는 중국인 학습자와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생활해 온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CKL34#1: 일단 여기에서 먹지 말고 **이따가 맛있는 걸 사 줄게▷(가치관).**

예문 CKL34#1은 동아리 활동실에서 선배로서의 화자가 아는 후배에게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발화이다. 추후 인터뷰에서 한 한국인 모어 화자는 동아리실에서 금식이라는 정해진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후행절 '이따가 맛있는 걸 사줄게'라는 내용이 일종의 보상 행위처럼 보여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 화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 아무리 후배라고 해도 아는 사이라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금지를 하면 그 후배의 체면을 손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체면을 살린 행위로 '이따가 맛있는 걸 사 줄게'라는 내용을 썼다는 응답이 나왔다. 따라서 해당 대화 맥락에서 해당 학습자가 타자체면(other-face)[33]을 비교적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한·중 양국의 체면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생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4. 종합논의

지금까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금지 화행 수행 양상에 대해 비교·대조 분석을 통하여 두 집단 간에 드러난 공통점 및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이 절에서 위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금지 화행 수행 특성을 파악하는 동시에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지 화행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3.4.1. 금지 화행 전략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첫째,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주화행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33) Ting-Toomey(1998)는 체면 고려 (face concerns)를 3종류로 나누었다. 즉, '자기체면(self-face)', '타자체면(other-face)', '상호간의 체면(mutual-face)'이다. 자기체면 고려는 자기 이미지가 다른 사람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반면에 타자 체면 고려는 상대방의 이미지를 제1 순위로 보는 것이다. 상호간의 체면은 서로간의 이미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 혹은 관계의 '이미지'나 책임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양우정, 2017:36).

‘명시적인 금지하기’를 제일 많이 사용한 반면에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대안 제시하기’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직접적인 금지 표현보다는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비하여 중국인 학습자 집단에게서는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체면 위협 가능성이 높은 명령법에 의한 명시적인 표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다. 또한, ‘명시적인 금지하기’, ‘수행문 사용하기’, ‘소망 표현하기’, ‘이유/규칙 제시하기’,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를 포함한 6개의 개별 전략 사용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이는 중국인 모어 화자 집단을 추가하여 진행한 일원변량분석을 통한 사후 분석에 의하면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화행 규범 및 언어 습관을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과, 학습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에 기인한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보조화행의 경우 성천(2019)의 논의와 다르게 본 연구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조적인 전략을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함으로써 발화의 부담감을 완화시켜 금지 화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인 모어 화자의 보조화행 양상과 비교하였을 때 중국인 학습자가 보조화행 전략을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발화를 길게 만드는 ‘과잉발화(waffling)[34]’ 경향이 드러났다. 그러나 보조화행 전략을 그저 많이 쓴다고 해서 금지 발화의 체면 위협 정도가 효과적으로 낮춰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발화의 요점이 쉽게 포착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모어 화자에게 해당 발화가 장황하게 들리는

34) 과잉발화 현상에 대해서는 이것이 자신의 발화 의도를 되도록 명백히 하려는 노력(Blum-Kulka & Olshtain, 1986), 혹은 자신의 의도를 협상해나가기 위해서라고(Olshtain & Weinbach, 1993) 분석된 바 있으며 언어 숙달도가 중간 정도일 때 가장 빈번한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Faerch와 Kasper(1989)는 학습자들의 과잉발화가 그들이 초보적인 단계의 숙달도는 넘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모자라는 언어적 능력을 의식한 결과라 보았다(백경숙, 2005:262).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가 맥락에 따라 보조화행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학습자 집단이 금지 화행 전략 및 금지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지 못했다는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특히 학습자들은 '-지 말자'와 같은 청유법을 통한 금지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수행동사 '금지하다/금지되다'에 편중하여 금지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그만 할 수 없을까?', '그만 하면 안 될까요?'와 같은 부정 의미를 가진 의문문을 맥락적이거나 형태적으로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DCT 및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작작', '불가하다', '자제하다', '삼가다' 등 금지 화행을 실현시키는 수행부사, 형용사, 동사를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금지의 뜻이 담긴 명령형·평서형·의문형 표현들을 특정 상황에 근거하여 융통성 있게 구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한국인 모어 화자가 즐겨 사용한 금지 화행 전략 및 금지 표현을 중국인 학습자에게 전면적으로 제시하여 교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금지 상황에 영향을 미친 변인을 기능, 사회적 거리, 상대적 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금지 전략 사용 양상은 이러한 변인들에 따라 크게 달라졌지만 중국인 학습자 집단은 '상대적 힘'이라는 요인에서만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금지 화행 전략을 변인에 따른 구체적인 맥락과 잘 대응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인별로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명령] 기능에서 직접적인 방식을 취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경향이 드러났으나, [요청/부탁] 및 [권유] 기능에서 명시적인 전략보다 완화된 표현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에 따른 이러한 전략 사용의 차이는 중국인 학습자 집단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학습자 집단의 전략 사용 양상은 한국인 모어 화자처럼 금지 표현 세부 기능에 의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가장 선호하여 사용한 전략은 사회적 거리에 따라 다르기 나타났는데,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 때 간단명료하게 금지 발화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에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정당한 이유를 밝히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이성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 집단이 제일 선호한 전략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와 먼 경우에 상관없이 '명시적 금지하기'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개별 전략의 사용에 있어서 변화[35]를 보였다. 즉, 사회적 거리라는 요소는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금지 전략 사용에 모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변인으로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게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대적 힘의 변화에 따른 두 집단의 전략 사용에 있어서는 매우 유사한 양상이 드러났다. 특히 화자의 상대적 힘이 크거나 동등한 경우와 비교하여 두 집단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던 '명시적 금지하기' 전략은 화자의 힘이 더 작은 상황에서의 사용 빈도가 눈에 띄게 하락한 것이 확인되었다. 두 집단의 선호 전략 양상은 역시 명시적인 방식보다 간접성을 지닌 표현임이 조사되었다. 다시 말하면 상대적 힘이라는 변인은 두 집단의 금지 전략 사용에 모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적 설명 제공 시 한국어 발화 상황에서의 사회적 변인에 따른 화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금지 상황에 영향을 끼친 변인이 달라짐에 따라 금지 전략 및 표현도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

넷째, 통계 분석에 근거하여 개별 상황에서의 중국인 학습자와 한국인

35) 본 연구의 조사 결과에 의해 학습자 집단은 친한 관계에서 행위를 금지할 때 전략6 '소망 표현하기'와 같은 완곡한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하여 소원한 관계에서 청자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희망을 언급하는 방식보다 '-(으)면 안 되다'에 의한 표현을 통하여 화자의 의도가 아닌 특정 규칙 등에 따라 그 행위를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함을 전달하는 형식에 편중하여 사용하였다.

모어 화자의 전략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손님에게 피팅룸에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황8의 경우는 두 집단의 전략 사용 양상이 가장 유사했으며, 상황1, 상황3, 상황4, 상황6의 경우 전략 사용 양상은 두 집단 간에 비교적 큰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 중에 특히 상황3과 상황6에서의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전략 사용은 강한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발견되었다. 상황3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하가 편의점 점장에게 폭설이 오는 날에 운전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경우인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절반 이상은 “운전이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운전 괜찮으시겠어요?”와 같은 의문문을 통하여 금지 의도를 상사인 청자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문에 의한 표현은 중국인 학습자 집단의 발화에서 등장하는 빈도가 굉장히 낮았다. 상황6은 카페 직원에게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말 것을 요청하는 경우인데 앞에 논의하였듯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에서는 50 명 응답자 중에 한 명만 ‘명시적 금지하기’(예: “얼음 많이 넣지 마세요.”)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49명 응답자들은 모두 ‘대안 제시하기’(예: “저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전략을 통해서 금지 화행을 수행하였다. 이에 비하여 학습자 집단이 사용한 전략은 ‘명시적 금지하기’, ‘소망 표현하기’, ‘제안하기’, ‘청자 허락 구하기’, ‘대안 제시하기’에 집중하였고 전략 종류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 ‘명시적 금지하기’의 출현 빈도가 한국인 집단보다 훨씬 더 높았다. 물론 금지 표현을 구사할 때 학습자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언어 습관에 따라 발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틀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특정 상황에서 모어 화자의 발화 양상에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면 그것을 학습자에게 제시하여 설명하는 교육 방식은 학습자가 금지 화행을 더욱 자연스럽게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3.4.2. 화용적 실패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모국어로부터 화행 규범의 전이를 받았거나 사회적 변인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금지 화행 전략 사용 양상에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차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화용적 실패가 유발되어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한상미(2005)에서는 학습자의 발화 생산 측면에서 나타난 화용적 실패는 모호성 유발[36], 무례함 유발[37]과 부적절함 유발[38]을 포함한 세 가지 양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미(2005)의 분류에 근거하여 본고에서의 의사소통 장애 유발 빈도는 <표 Ⅲ-58>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Ⅲ-58> 본 연구에서 화용적 실패의 의사소통 장애 유발 빈도

의사소통 장애	빈도	비율
무례함 유발	48	51.6%
어색함 유발	30	32.3%
모호성 유발	15	16.1%
합계	93	100%

본 연구에서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가 유발한 의사소통 장애 유형에 따라 논의를 진행해 보자면 무례함 유발은 48회로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하였으며, 이어서 어색함 유발은 32.3%로 2위를 차지하였고 마지막으로 모호성 유발은 16.1%로 제일 낮은 빈도로 일어난 것으로 알

36) 모호성 유발은 비모어 화자가 한국어에 대한 화용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자신의 발화 의도를 모호하게 전달하여 모어 화자가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화용적 실패의 한 양상이다. 비모어 화자가 발화에서모호성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에서도 목표어에 대한 화용적 지식의 부족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한상미, 2005:141).

37) 무례함 유발은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의 화용언어적, 사회화용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무례함을 대화에 유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한상미, 2005:145).

38) 부적절함 유발은 비모어 화자의 언어 사용이 이상적인 모어 화자 집단이 주어진 대화 맥락에서 발화했을 언어 사용 행위와 화용언어적, 사회화용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불일치하여 어색하거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한상미, 2005:155). 본고에서는 부적절함 유발을 '어색함 유발'로 칭하기로 한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색함을 유발한 경우는 모든 화용적 실패 요인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무례함을 초래한 원인으로는 호칭, 통사적 완화장치, 존대법, 관례어 등을 들 수 있다. 모호성을 유발한 경우는 주로 사회화용적 실패에 집중되어 있었다.

요인별로 살펴보자면 화용언어적 요인은 금지 화행에서 나타난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는 주된 요소였으며, 화용언어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양국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화가 생성되어 사회화용적 실패를 유발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았다. 화용언어적 실패에서 통사적 완화장치를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불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후배나 친한 친구에게 공손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어색함을 유발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종 언어적 완화장치를 금지 표현과 부적절하게 결합시켜 사용하는 것은 본 연구에서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금지 화행에서 대표적인 실패 양상은 통사적 완화장치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공손성을 위반한 발화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휘 완화장치 '혹시'와 '-지 말다' 명령형의 잘못된 결합 사용[39] 및 관례어 '죄송한데', '죄송하지만'의 오용[40]이 또한 전형적인 실패 사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금지 화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변인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고, 다양한 언어적 완화장치와 금지 표현의 적절한 결합 사용에 대한 교육이 학습자에게 보다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

39) '혹시'는 화자가 그러리라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말하기를 망설일 때 쓰이는 완화장치로 간주될 수 있고 의문문과 함께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조사 결과에 의해 예문 "혹시 선배님이 저에게 그런 장난을 치지 마세요." 처럼 명령형 구문에서 '혹시'가 사용된 것은 강요성을 완화시키기보다 오히려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어색함을 유발하게 되었다.

40) 본 연구에서 관례어 사용에서 말을 시작할 때 학습자가 '죄송한데', '죄송하지만'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로 발화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표현이 되었다.

Ⅳ. 금지 화행 교육 방안 설계

4.1. 금지 화행 교육의 목표

화행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목표어에 담긴 언어문화 및 사회문화에 의해서 특정 맥락에 적절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특히 금지 화행은 체면 손상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할 때 청자의 체면에 위협을 가하는 발화를 회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역시 학습자에게 종합적인 언어 능력이 요구된다.

바르도비-할릭(Bardovi-Harlig, 2001)에서는 화용론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목표어 이해 및 화용적 생산 차원에서 제2언어 학습자와 목표어 모어 화자 간에 큰 차이가 드러나게 된다고 기술한 바가 있다. 금지 화행 교육에 대하여 이은희(2014)에서는 모어 화자는 자신의 직관에 의해서 금지 표현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지만, 외국인 학습자에게 금지 표현의 세부 기능에 관한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습자가 이러한 내용을 스스로 습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화행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백경숙(2005)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화행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학습자로 하여금 목표 언어공동체의 규칙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학습자 모국어와 다른 사회언어학적 규범의 존재 자체에 관한 인식을 고취(consciousness raising)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화행 교육의 목적은 목표 언어공동체에서 해당 화행과 관련된 사회언어학적 규범에 대한 인식 형성 및 그러한 규범의 내재화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목표어 화행의 사회언어학적 규칙에 대한 인식이란 목표어를 사용하

는 모어 화자들이 특정 화행을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 목표어 모어 화자들이 사용하기를 선호하는 화행 전략이나 표현들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지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금지 화행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이 필수적이며, 특히 일정 수준의 한국어 실력을 가진 고급 학습자에게 금지 상황의 성격 및 화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복합적으로 인지하고 화용적으로 적합한 전략 및 표현을 선택하여 구사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학습자의 금지 화행 수행 양상 및 화용적 실패 양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맥락에 적절한 금지 전략 및 금지 표현에 초점을 맞춰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지 화행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앞 장의 논의에 근거하여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다양한 변인에 따른 금지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여 판단할 수 있다. 화행을 수행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요소가 바로 대화 맥락이다. 구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전략 및 표현이 다르게 선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순서상 금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학습자에게 가장 먼저 교육시켜야 한다고 본다. 금지 화행 특성상 사회적 변인 외에 기능 요인도 함께 금지 상황에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변인으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학습자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맥락에 맞게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금지 화행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화 맥락을 파악한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적절한 금지 화행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합하지 않은 전략을 사용한다면 화자의 발화 내용이 본의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어 청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거나 의사소통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체계적 이해 및 연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해당 전략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금지 표현 및 언어적 완화장치를 적절히 결합시켜 운용할 수 있다. 금지 화행 전략과 표현이 단순히 일대일로 대응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화청자의 사회적 관계, 체면 위협 정도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금지 표현으로 구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발화의 공손성을 높여 건전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각종 어휘 및 통사적 완화장치를 학습하고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2. 금지 화행 교육의 내용

4.2.1. 각종 변인에 따른 금지 상황 판단

적절한 전략 및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기 전에 선행해야 할 작업은 금지 상황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화행과 달리 금지 상황의 성격에 작용하는 요소로는 공적/사적, 사회적 거리, 상대적 힘 등 사회적 변인뿐만 아니라 기능이란 요인도 금지 화행 이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 수 있다. 앞장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요청/부탁] 및 [권유] 기능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은 명시적인 전략보다 완화된 표현을 선호한 편이었지만 중국인 학습자 집단에서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자면 폭설이 내린 날에 편의점 점장에게 운전하지 말라고 권유할 경우 중국인 학습자 한 명이 “오늘 운전하기가 넘 위험하니까 지하철을 타시지요.”라고 발화했다. 학습자의 응답에서 권유보다 명령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청자인 한국인 모어 화자에게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다. 해당 상황에서는 ‘-는 것이 좋을 것 같다.’나

‘-는 것이 어떻다’의 의문형으로 권유 의도를 표현하는 것이 맥락에 적절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서 기능 변인이 금지 화행 수행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이은희(2014)에 의해 만든 <표 Ⅳ-1>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다. [권유] 기능의 경우 이익의 수혜자가 청자이고 그의 선택권이 비교적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자가 화자의 권고를 따라 금지 화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요성이 강한 표현보다 청자가 쉽게 받아들이는 우회적인 방식을 권장한다.

<표 Ⅳ-1> 기능 변인에 관한 교육 내용

기능	이익 대상	청자 선택권	힘의 크기
[명령]	화자이익	적음	화자>청자
[요청/부탁]	화자이익	보통	모두 적용
[권유]	청자이익	조금 많음	모두 적용

Ⅲ장 양상 분석에서 학습자 집단은 사회적 변인에 따른 화청자 간의 친소관계나 상하관계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모어 화자와 전략을 다르게 사용하고 화용적 실패를 유발하는 모습을 모였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직장의 상사인 편의점 점장에게 명령형 표현으로 금지 의도를 직설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발견되었고, 친한 친구에게 상대방을 높이는 최고 높임의 의미를 가진 종결어미 ‘-습니다’로 발화하는 화용적 실패 사례도 종종 발견되었다.

사회적 변인은 화청자 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성별, 연령, 사회적 거리, 상대적 힘, 공적/사적 등을 들 수 있다. 보통 친소관계는 사회적 거리와 연관되며, 상하관계는 연령, 상대적 힘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변인들이 독립적으로 화행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두 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상대가 사회적 거리가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회의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

서 서로 존댓말로 대화하여야 맥락에 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학습자가 다양한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모국어와 목표어에서 같은 사회적 변인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보이면 전술한 각종 화용적 실패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금지 상황 판단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적 변인이 항상 복잡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오카무라 카나(2014)에서 청자가 윗사람일 때 친밀도보다 상하 거리감을 우선시하는 한국 문화에 비하여 두 가지 요소 중에 친밀도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 인사 화행에서 윗사람에게도 친밀도란 요소를 먼저 고려하는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상하관계 중 거리감보다 친밀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가까운 사이라면 부모님, 선배님, 선생님 등 신분적으로 자신보다 윗사람과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들이 반드시 수직적인 관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한국어에는 한국 특유의 계층 문화가 미치는 영향이 뿌리 깊게 남아 있기 때문에 친밀도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사회적 힘이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일정한 예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사회적 변인 가운데 우선시해야 할 요인이 있다면 그것을 파악하여 학습자에게 강조하여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의 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습자가 금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국어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모국어와 한국어의 사회적 변인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떠한지, 사회적 변인에 따라 존대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학습자에게 교육시켜야 한다.

4.2.2. 한국어 금지 화행 전략의 체계적 이해

전략 사용 양상 분석 시, 금지 화행 전략이 지닌 부담감 정도나 금지 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학습자 집단에게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점을 고려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간접성 정도에 따른 금지 화행 전략의 체계를 교수해야 하며, 다양한 금지 화행 전략 분류 방식에 따른 상위 분류 및 하위 전략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양우정(2017)에서는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과 관련해서 학습자는 수동적으로 교사가 가르쳐 준 언어 지식을 받아들이기보다 그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학습자가 불평 화행 전략에 대한 분류 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하나의 전략 분류 방식에 초점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학습자가 스스로 전략 분류를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나 상위 전략 유형만을 알려주고 학습자가 하위 전략을 맞춰서 분류할 수 있게 유도하는 등의 방식을 제언하였다. 한국어 금지 화행 교육에도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표 Ⅳ-2>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교육 내용(이은희, 2014:217)

<table>
<tr><th>분류 기준</th><th colspan="2">분류 결과</th></tr>
<tr><td rowspan="9">직접 금지 화행</td><td colspan="2">서법(명령법)에 의한 표현</td></tr>
<tr><td colspan="2">명시적 수행 표현</td></tr>
<tr><td colspan="2">발화 의미로부터 도출</td></tr>
<tr><td colspan="2">화자 의도 언급</td></tr>
<tr><td colspan="2">제안성 어구</td></tr>
<tr><td rowspan="4">예비적
조건 언급</td><td>청자의 수행 능력</td></tr>
<tr><td>수행 불필요성 언급</td></tr>
<tr><td>청자의 의지</td></tr>
<tr><td>요청 내용에 대한 청자허락</td></tr>
<tr><td>간접 금지 화행</td><td colspan="2">대안 제시, 원칙 제시, 허락받기 요구, 화자 느낌·기분 전달, 화자 의견 전달, 화제 전환/회피, 협박, 강조, 말끝 흐리기, 주의/배려 요청, 사실 확인 시키기, 타인에 대한 배려 요구, 부연 설명 등</td></tr>
</table>

<표 Ⅳ-3>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분류 예시(성천, 2019:41)

분류 기준	분류 결과
노골적 전략	강한 금지
적극적 공손 전략	행위 속에 상대를 포함, 제안
소극적 공손 전략	불허 표현, 질문하기, 소망 표현, 규칙 제시, 비인칭화
암시적 공손 전략	대안 제시, 상황 강조, 화자 느낌/의견 전달, 화자 행위 확인, 생략

이은희(2014)에서는 간접성 등급화에 근거하여 한국어 금지 화행의 전략을 <표 Ⅳ-2>와 같이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직설적으로 금지 의도를 전달하는 경우를 직접 금지 화행이라고 정의하며, 우회적으로 금지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를 간접 금지 화행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은희(2014)의 분류 양상과 다르게 <표 Ⅳ-3>은 공손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된 결과이다. 금지 화행은 체면 위협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청자 체면 보호를 고려하여 성천(2019)처럼 공손성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금지 화행 전략에 관한 분류는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분류의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분류 결과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미리 기준을 정하기보다 학습자로 하여금 스스로 분류 기준을 모색하고 그 기준에 해당하는 한국어 금지 전략 및 표현을 찾아 유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 방식이 될 수 있다. 학습자가 처음에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예시를 보여 주는 것도 좋은 교육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금지 화행 전략을 분류하는 체계는 <표 Ⅳ-4>와 같다.

<표 Ⅳ-4> 본 연구의 금지 화행 전략 분류 체계

분류 기준	분류 결과
직접적 전략	명시적 금지하기, 수행문 사용하기, 의무 진술하기, 불허 표현하기, 불필요성 언급하기, 소망 표현하기, 제안하기, 청유법 사용하기, 청자 의지 묻기, 청자 허락 구하기
간접적 전략	대안 제시하기, 이유/규칙 제시하기,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결과 제시하기/협박하기,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생략하기

본 연구의 실제 조사에서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의 '명시적인 금지하기', '수행문 사용하기', '소망 표현하기', '이유/규칙 제시하기',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의 전략 사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들을 중심으로 학습자에게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략 교수 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직접적 금지 전략에 해당하는 표현에는 보통 금지 의미를 나타내는 통사적 장치가 들어 있기에 그러한 금지 표현의 형태가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다. 즉, 대화 맥락이 없이도 직접 금지 표현이 어떠한 상위 전략 범위에 속하는지 학습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간접적 금지 표현은 명시적 금지 요소가 담기지 않은 것이므로 같은 표현일지라도 발화 맥락만 바뀌면 금지 전략으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때 학습자가 스스로 간접적 금지 표현을 식별하여 금지 전략으로 분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간접적 금지 전략의 판단 및 분류는 반드시 구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학습자에게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금지 화행 교육의 최종 목표는 전략 이해가 아닌 적절한 전략 사용에 있으므로 수업 과정에 맥락의 중요성을 학습자에게 항상 강조해야 한다.

4.2.3. 한국어 금지 표현의 등급화 학습

본 연구에서 학습자 집단은 몇 개의 한국어 금지 표현에 편중하여 금지 화행을 수행하며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금지 표현을 다양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수행동사, 부사, 형용사, 문형을 비롯한 한국어 금지 표현을 학습자에게 풍부하게 제시하고 전략별로 설명해야 하며,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빈도에 따른 한국어 금지 표현 항목의 등급화와 이에 대한 학습자의 습득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금지 어휘 교육과 관련하여 김영란(1999)에서는 금지 어휘 교수는 일차적으로 사전 의미를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 다음에, 이차적으로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휘의 문맥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금지 어휘의 성격 및 의미를 고려하여 그들을 범주화한 후에 유형별로 가르치는 것이 학습자에게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김영란(1999)에서는 금지 부사가 금지 어휘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이기에 부사를 학습자에게 먼저 교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중에 중지와 금지의 뜻을 모두 지닌 '그만'과 '작작'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가르치고 부정과 금지의 의미가 담긴 '못'은 따로 교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표로 제시하면 <표 Ⅳ-5>와 같다.

<표 Ⅳ-5> 한국어 금지 어휘의 교수 방법(김영란, 1999:187)

<table>
<tr><th colspan="4">어휘</th></tr>
<tr><th>부사</th><th>명사</th><th>동사</th><th>감탄사</th></tr>
<tr><td rowspan="2">그만
작작</td><td rowspan="2">금지
금기
금물</td><td>금하다
금지하다
금지되다</td><td rowspan="3">아서라</td></tr>
<tr><td rowspan="2">말리다
만류하다</td></tr>
<tr><td>못</td><td>만류</td></tr>
<tr><td></td><td></td><td>삼가다
삼가하다</td><td></td></tr>
</table>

김유정(1998)에서는 문법 항목 단계화의 기준으로 1) 사용 빈도, 2) 난이도, 3) 일반화 가능성, 4) 학습자의 기대 문법 등 네 가지를 언급하였으며 그 중에 사용 빈도에 관해서는 해당 언어 자료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서 추출된 빈도수라면 고빈도로 사용되는 항목을 먼저 배열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재욱(2009)에서는 한국어 문법 교육에 관해 학습자에 초점을 맞춘 학습자 중심성을 지지하였다. 그는 김유정(1998)에서 제시한 난이도 기준이 교사 입장에서 세운 것[41]이라고 지적하면서 문법 위계화 기준은 난이도보다 사용 빈도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 또한, 그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고급 학습자의 경우 한국인 모어 화자와의 문법 지식에 관한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고는 한국어 금지 표현의 등급화에 있어서 빈도 정보를 주요 지표로 삼기로 한다.

41) 즉, 첫 번째 단계에서부터 의미적으로 쉬운 문법 항목이 무엇인지를 결정할 때 학습자의 입장보다는 교수자의 입장이 고려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김재욱, 2009: 74).

<표 Ⅳ-6> 교육용 한국어 금지 표현 항목의 등급화(이은희, 2014:188)

순서	표현 형태	교육 등급
1	'-지 말다'의 명령형	초급(1급)
2	'-(으)면 안 되다'의 평서형	초급(2급)
3	'-지 말아 주다'의 명령형	
4	'그만' + 동사의 명령형	
5	'안/그만 + -(으)면 안 되다'의 의문형	중급(3급)
6	'안 + -아/어도 되다'의 평서형	
7	'-지 않/말았으면 좋겠다/하다/싶다'의 평서형	중급(3~4급)
8	'-지 않는 게(것이) 좋(겠)다/낫(겠)다'의 평서형	
9	'-지 말다'의 청유형	
10	'그만' + 의문형	
11	자제하다	
12	'안/그만 + -(으)면 좋겠다/하다'의 평서형	
13	'안 + -는 게 좋겠다/낫다'의 평서형	
14	'그만' + 청유형	
15	'-지 말아 주다'의 의문형	
16	금지(이다/하다)	
17	안 + -는 게 좋지 않을까(요)/어떨까(요)?	
18	'-지 않아도 되다'의 평서형	고급(5~6급)
19	'-지 말다'의 의문형	
20	못 + 동사의 평서형	
21	'-는 게 아니다'의 평서형	
22	'-(으)ㄹ 필요 없다'의 평서형	
23	'불가(능)하다'의 평서형	
24	중단하다	
25	'-지 않으(시)면 안 되다'의 의문형(안 될까요?)	
26	삼가다	
27	'-지 않/말도록 하다'의 명령형	
28	'-(으)ㄹ 수 없다'의 평서형	

<표 Ⅳ-6>은 이은희(2014)가 교육용 항목을 추출하기 위하여 한국어 금지 표현을 고빈도 순으로 위계화 및 등급화를 한 결과이다. 이 표현들은 210명의 한국인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담화완성테스트를 통해서 수집된 구어 금지 표현이기에 '실제성'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국어 금지 표현을 선정하여 배열하기보다, 즉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 '사용 빈도'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위계화한 교육용 항목을 교육 자료로 채택하는 것은 한국인 모어 화자의 전략 사용 양상의 실제성을 고려했을 때 보다 적절하며 학습자가 더 자연스럽게 금지 화행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표현들은 한국인 모어 화자들이 흔히 사용하고 접하게 되는 것이므로 빈도가 낮은 금지 표현들보다 먼저 교육시켜야 한다. 이는 김재욱(2009)에서 말한 모어 화자와의 문법 지식에 대한 거리감을 줄이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표 Ⅳ-6>과 같이 금지 표현을 순서대로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학습자의 응답에서 취식 금지 규칙을 위반한 후배에게 '여기서 먹지 말까?'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금지 화행을 부적절하게 수행하는 문제가 발견되었다. 선배인 화자가 후배인 청자에게 그 행위를 막을 때에는 주어가 2인칭이 될 수 있는 금지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여 결국 의사소통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 경우 문장의 주어로 2인칭이 되는 '-지 말래'를 통한 '여기서 먹지 말아 줄래?'라는 표현으로 발화하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 말다'의 의문형만 교수하기보다 '-지 말다'의 의문형에 속하는 표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실현되는지, 그리고 해당 현태 정보 및 제약 정보와 함께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지 말다'의 의문형을 예시로 금지 표현 교육 내용은 아래 <표 Ⅳ-7>과 같이 마련할 수 있다.

<표 Ⅳ-7>을 살펴보면 우선 <표 Ⅳ-6> 표현 형태 중 명령형,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식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지를 제시해야 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자가 범할 형태적인 오류를 미리 예측하고 강조하는 것도 좋다. 이어서 모든 표현 형식을 일일이 설명하여 제시한다. 의미 정보 제시 단계에서는 학습자로 하여금 해당 표현의 의미와 용법을 인식시키며 특히 주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필수적이다. 또한 예문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학습자의 이해를 심화시킨다. 다음으로 학습자가 맥락에 맞게 해당 금지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어체/문어체, 사적/공적(격식성/비격식성), 변인에 따른 화청자의 사이, 공손성, 체면 위협 정도 등을 포함한 화용적 정보를 학습자에게 교수해야 한다. 그 중에서 특히 화청자 간의 친소관계 및 상하관계가 해당 금지 표현 사용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문법적 오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들이 유의하여야 하는 제약 정보를 인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표 Ⅳ-7> 금지 표현에 관한 교육 내용 예시

<table>
<tr><th colspan="3">‘-지 말다’의 의문형</th></tr>
<tr><td colspan="3">‘-지 말다’의 의문형은 주로 ‘-지 말까’와 ‘-지 말래’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실현된다.
▪ 담배를 피우지 말 거예요? (X)
▪ 새치기를 하지 말게요? (X)
▪ 핸드폰을 보지 말았어요? (X)</td></tr>
<tr><td></td><td>-지 말까</td><td>-지 말래</td></tr>
<tr><td>의미 정보</td><td>‘-지 말까’는 문장의 주어로 1인칭인 ‘나’나 ‘우리’가 오며, 주어가 ‘나’인 경우 (동사에 붙어) 망설임을 나타내 스스로 자신에게 묻거나 듣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고, 주어가 ‘우리’인 경우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지 말자고 권유하거나 제안하는 것이다.</td><td>‘-지 말래’는 문장의 주어로 2인칭이 오며 동사 뒤에 붙어 화자가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를 물어봄으로써 금지의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td></tr>
<tr><td>예문</td><td>◆ 우리 배달을 시키지 말까?
◆ 날씨가 안 좋은데 오늘 나가지 말까?</td><td>◆ 내 별명을 좀 부르지 말래?
◆ 내 성적을 자꾸 묻지 말래?</td></tr>
</table>

화용 정보	주로 격식을 차리지 않는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한다. '-지 말까'는 화자보다 청자가 아랫사람이거나 친구 관계일 때 사용하며, 높임 표현으로는 '-요'가 붙은 '-지 말까요'의 형태로 사용한다. '-지 말까'는 권유나 제안의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명시적인 금지 표현보다 강요성이 약하고 청자의 체면도 덜 손상한다.	주로 비격식적인 구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보통 친구 사이나 사회적 거리가 친밀한 경우, 또는 아랫사람에게 사용한다.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상대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사용할 수 없으나 화청자 간에 친분이 있을 경우에는 높임말의 형태인 '-지 마실래요?'의 표현으로 구사할 수 있다. '-지 말래'는 의문형을 통해 청자의 의향이나 의지를 물어보는 형식이므로 일반적으로 명령형보다 금지의 강도와 체면 위협 가능성이 낮다.
제약 정보	'-지 말까'는 주어가 2인칭이나 3인칭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지 말래'는 주어가 1인칭이나 3인칭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4.2.4. 언어적 완화장치와 전략의 결합 사용

프레이저(Fraser, 1980)는 언어학에서 처음으로 '완화(mitigation)'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화행이 청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 노유경(2016)에서는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완화적 표현의 기능에 관하여 공손함, 모호성[42], 책임 완화[43], 대화 결속력 강화[44] 등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 바가 있다.

42) 이러한 모호성은 레이코프(Lakoff, 1972)에서부터 제기되던 것으로, 완화적 표현은 간접 발화 혹은 우회 발화의 일부로 불리며 메시지의 내용을 모호하게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제시되어 왔다(노유경, 2016:19).

43) 가장 직접적인 기능이자 울타리어 사용의 동기는 책임의 무게가 덜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정보의 정확도, 판단의 강도, 화자의 태도 등에 결부되는 책임이라 할 수 있으며 의미기능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들을 약화시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보의 발신자인 화자에게 지워지는 무게가 함께 덜어지는 것이다(이찬규·노석영, 2012:268).

특히 금지 화행은 청자에게 부담스럽고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화행에 속하므로 해당 화행을 수행할 때 학습자는 적절한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적 완화장치(mitigator)도 함께 결합시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어적 완화장치는 어휘적 완화장치와 통사적 완화장치로 대별할 수 있으며 어휘적 완화장치는 화행의 강요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춘 어휘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황선영(2014)에서 제시한 '어휘적 완화장치 분류'를 활동 재료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표 Ⅳ-8>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좀', '만' 등 어휘적 장치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과 같은 화용적 관례어도 포함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중국인 학습자의 금지 화행 수행 시 어휘적 완화장치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한 '혹시', '좀', '죄송하지만', '저기요' 등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 내용을 마련하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분석 내용을 상기해 볼 때, 예를 들어 '혹시'의 경우 해당 학습자는 발화의 강요성을 줄이는 생각으로 어휘적 완화장치인 '혹시'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해당 어휘를 사용하였지만 '혹시'의 의미와 용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여 결국 문법적 오류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 어휘적 완화장치를 교수할 때에는 학습자에게 이러한 어휘들의 본래의 뜻은 물론 완화장치로서의 의미, 용법, 제약 정보 등 또한 함께 알려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표 Ⅳ-8> 어휘적 완화장치 분류(황선영, 2014:436)

구분	유형
자문 장치(consultive device)	어떻게, 가능하다면, 괜찮으시면
헤지(hedge)[45]	혹시, 그게, 저기, 뭐

44) 울타리어의 사용은 대화 참여자간의 협동을 돕는 기능을 하여 원만한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게 돕는다. 표면에 드러난 것과 같이 불분명한 태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쓰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내용에 확신을 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발화가 둘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마음에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라 볼 수 있다(이찬규·노석영, 2012:268).

45) 여기에서 '헤지(hedge)'는 'maybe, kind of'와 같이 요청 상황을 약화시켜주는 어휘

약화어(downtoner)	좀, 잠깐/잠시, 만, 한/하나, 다름이 아니라
감정 표지(empathetic marker)	죄송하지만/죄송한데요
상호작용 표지(interpersonal marker)	저기요, 있잖아요

블럼-쿨카와 하우스(Blum-Kulka & House, 1989)에서 통사적 완화장치는 화행의 강요성을 낮춰 주는 장치로 의문문, 가정법, 조건문 등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언급된 바 있다. 한국어에서 통사적 완화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언어적 요소에 대해 전혜영(2004)에서는 경어법의 등급상 존대 어미, 피동형, 보조 동사, 종결어미, 선어말어미, 접속어미, 부정의문형, 의문명사화, 인용, 간접 화행, 생략이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한상미(2005)에서는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 보조 동사 구문, 내포 구문, 연결 구문 등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중국인 학습자의 금지 화행 사용 양상에 비추어 볼 때 교육 시 부정의문형(예: '-지 말아 주시겠어요?', '-지 마실래요?'), 의문문, 청유문(예: '-지 말자'), 종결어미(예: '-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조 동사(예: '-아/어/여 주다', '-아/어/여 보다')의 용법에 주안점을 두어 효과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체면 위협 가능성이 높은 문장에서 중국인 학습자들은 보조 용언 '-아/어/여 주다'의 사용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았고 이는 또한 통사적 완화장치 사용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학습자에게 통사적 완화장치로서의 '-아/어/여 주다'의 금지 강요성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강조해야 하며 교육 현장에서 '-아/어/여 주다'가 들어가는 문장과 그렇지 않는 문장을 대조함으로써 완곡한 요청의 느낌과 강제적인 명령의 말투 간의 차이를 학습자에게 인식시켜 교육할 필요가 존재한다.

나 표현이라는 의미로 '화자가 명제의 내용에 대한 판단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완화어, 인칭구문/비인칭구문, 수동태, 서법성 등을 통해 화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완화하는 표현'이라는 광의의 개념과는 의미 범주에 차이가 있다(황선영, 2014:436).

금지 화행의 공손성은 각종 언어적 완화장치뿐만 아니라 보조화행 전략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유 제시', '대안 제시' 등의 보조적인 전략은 청자의 체면을 덜 손상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으니 학습자에게 보조화행의 역할 및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한편, 금지 화행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가 양적으로 모어 화자보다 많다는 '과잉발화' 현상이 발견되었다. 에드몬슨과 하우스(Edmonson & House, 1991)에 의하면 이것은 학습자에게 정형화된(routine) 전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에 발생하는, 발화를 보완하기 위한 학습자들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이 모자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보조화행 전략은 맥락에 맞게 적절히 사용해야 하고 발화가 길수록 공손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학습자에게 반드시 인식시켜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하면 금지 화행의 성공적인 수행은 상황에 맞는 금지 전략 및 금지 표현의 선택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으로 각종 언어적 완화장치의 적절한 사용에 좌우되기도 한다. 즉, 금지 화행의 체면 위협 정도는 다양한 언어적 완화장치를 통해서 다르게 드러날 수 있다. 본 연구의 실제 조사에서 학습자가 공손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지 전략을 적절히 선택하여 운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완화장치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무례함을 불러일으켜 화용적 실패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언어적 완화장치의 결여나 오용으로 인한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감안하였을 때 금지의 강도를 낮춰 주는 어휘·구 및 통사적 완화장치, 화용적 관례어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예문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이러한 언어적 완화장치와 전략의 적절한 결합 사용을 내재화하는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

4.3. 금지 화행 교육의 방법

본고의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한국어 금지 화행 관련 내용의 습득과 활용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역할극(role play)을 교육 방법으로서 채택하고 논하고자 한다. 강명순(1999)에서는 말하기란 기본적으로 최소 두 명 이상의 대화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며 이와 같은 전제하에 가장 효과적인 교실 내 말하기 활동으로는 역할극을 들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46]

리틀우드(Littlewood, 1981)에서는 역할극을 '역할 맡기(role-taking)'와 '역할 만들기(role-making)'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설명한 바가 있다. '역할 맡기'는 통제식 역할극으로 볼 수 있으며, 대본이 미리 정해진 것이기에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사를 암기한 후에 역할을 모방하여 연출하는 것이다. '역할 만들기'는 자유식 역할극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학습자에게 주제와 상황만이 제공되고 그들이 상황 속 인물을 상상하여 맥락에 적절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역시 학습자에게 뛰어난 사고력 및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다. 역할극의 교육 가치에 관하여 두길(Dougil, 1987)에서는 역할극을 통하여 말하기 활동 참여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가 수동적인 것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정민(2011)에서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 개발', '담화구성 능력 향상', '문제 해결 능력 신장', '정의적 측면의 효과', '문화 학습의 효과' 등 여러 방면에서 역할극의 교육적 효과를 논술한 바가 있다.

한편, 역할극의 교육적 효과가 현저하다고 밝혀졌으나 화행 교육의 방법으로서도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올슈타인과

---

46) 강명순(1999)에서는 역할극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현실에서 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발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기능, 문장 구조, 어휘 등을 익히게 된다. 2) 실제로는 이러날 개연성이 높으나 교수요목에서는 보통 빠져 있는 관계 형성이나 유지를 위한 언어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역할극은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적 상호 활동으로서 학습자 간에 친밀감을 형성케 한다. 4) 학습자의 유창한 언어 사용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서 말하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말하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코엔(Olshtain & Cohen, 1991)에서는 역할극 활동을 화행 수업의 한 단계로 제안하며, 이해영(2002)에서도 '역할극 하기'를 한국어 화행 교육에 효과적인 응용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장미경 외(2008)에서는 역할극을 활용한 한국어 화행 교육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 모형을 통해서는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교육을 지양하고 학습자와 한국어 교사가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현재 중국 국내 대학에서의 말하기 교육은 주로 한국어 교재 및 교실 수업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말하기 연습도 주로 교실에서 중국인 학생들끼리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의사소통하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즉, 중국 대학에서 학습자를 목표어인 한국어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한국어 사용 환경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교육 환경을 기반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말하기 교육의 방법의 개선점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학습자가 다양한 금지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실 수업에서 실제 대화 맥락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자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설정된 상황에서 주어진 신분으로 발화하여 상호작용하게 하는 활동으로서의 역할극은 본고의 DCT 분석이나 사후 인터뷰에서 한국인 모어 화자 및 중국인 학습자들의 논의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수할 수 있는 체제로 고려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활용한 한국어 금지 화행 수업 모형을 <표 Ⅳ-9>와 같이 마련하였다. 이 모형은 준비 단계, 1차 시연 및 토의 단계, 교육 단계, 2차 실연 및 평가 단계 등 4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9> 금지 화행 교육을 위한 역할극 수업 모형

단계	교수·학습 내용
준비 단계	• 금지 화행 관련 시청 자료 제시를 통해 학습자 동기 유발 • 금지 화행 관련 배경 지식 활성화 1) 금지 상황에 영향을 미친 변인 파악 2) 금지 표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1차 시연 및 검토 단계	• 적절한 금지 상황 설계 • 1차 역할극 시연 • 1차 수행된 역할극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교육 단계	• 모델 대화 제시 • 금지 화행 특징 설명 (변인, 전략, 표현, 각종 언어적 장치 등)
2차 실연 및 평가 단계	• 수정 및 교육된 내용을 바탕으로 2차 역할극 실연 • 금지 상황을 학습자 자신의 경험과 연관하여 내면화 •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를 통해 학습 내용 반성 및 정리

이해영(2002)에서는 학습자들이 문법적으로 완벽하고 화용적으로 부적절한 발화를 쉽게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행 교육에서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의식상향의 방법의 마련이라고 역설한다. 즉, 학습자들의 화용 의식을 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슈타인과 코엔(Olshtain & Cohen, 1991)에서도 화행 수업을 진행할 시 화행의 인식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우선적으로 고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업 모형의 첫 단계인 준비 단계는 금지 화행 관련 내용이 담긴 드라마 동영상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높이는 동시에 금지 화행에 관한 그들의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되었다. 학습자들은 이 단계를 통하여 금지 상황 판단에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변인을 파악할 수 있고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금지 표현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할 준비를 갖출 수 있다.

이어서 1차 시연 및 검토 단계에서는 첫 번째 목표로 학습자들이 적절한 금지 상황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금지 장면에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인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1차 역할극 시연은 역할극 과제 수행 자체보다 역할극 수행 후의 전체적인 검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본다. 1차 시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교사는 과제 수행 도중에 드러난 문제점을 발견하고 학습자들의 화용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은 금지 화행 특징 설명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는 교육 단계이다. 캐스퍼(Kasper, 1997)에서는 화용 교육은 함축적인 교수보다 명시적인 교수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하며 여기서 명시적인 교수란 특별히 해당 화행의 화용적 특성에 대한 설명을 가리킨다. 따라서 교육 단계에서 학습자에게 모델 대화를 제시한 뒤에 상황 변인, 금지 전략, 금지 표현, 각종 언어적 완화장치를 비롯한 금지 화행의 화용적 구성요소들을 그들에게 명시적으로 교수하고 인식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앞 단계의 연구 분석 내용에서 얻은 구체적인 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2차 실연 및 평가 단계는 본격적인 역할극 수행 및 평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2차 역할극 실연은 학습자들에게 이전 단계에서 습득한 내용을 실제로 응용하고 금지 화행에 관련된 화용적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과제 수행 후 자기평가, 동료평가, 교사평가 등 다양한 평가 활동들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수업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자기반성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학습자들이 역할극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적 변인에 따른 금지 상황을 판단하고 각 상황에 적절한 금지 화행 전략, 표현, 언어적 장치를 사용하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언어학적 능력을 키우게 될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4.4. 금지 화행 교육의 실제

본 절에서는 개발된 한국어 금지 화행 수업 모형에 근거하여 금지 화행 교육의 실제를 제안할 것이다. 우선 고급 수준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 개요를 <표 Ⅳ-10>과 같이 제시한 다음에 단계별로 교수·학습 활동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표 Ⅳ-10> 수업 개요

학습 단원	금지하기
기능	말하기
학습 목표	사회적 변인에 따른 각종 금지 상황의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맥락에 적절한 전략 및 표현을 사용하여 금지 화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학습 대상	중국인 고급 학습자 15명 내외
학습 내용	금지 화행에 관련된 사회적 변인, 전략, 표현, 각종 언어적 장치 등
소요 시간	120분
활동 자료	동영상 자료, 유인물, 1차 시연 기록 활동지, 2차 실연 기록 활동지, 최종 평가 활동지 등

4.4.1. 준비 단계

<예시> 금지 화행 관련 시청 자료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제24회
내 집에 얹혀 살고 있는 후배에게 생활비를 주지 말라는 상황
백진희: 언니, 나 왔어요! 아직 저녁 안 드셨죠?
박하선: 이제 막 먹으려고.

백진희: 그럼 이걸로 저녁해요. 여기 햄버거 패밀리 세트!
박하선: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백진희: 방송국 일한 거 잊고 있었는데 입금이 되더라고요. 앗, 그리고 이거...
박하선: 이게 뭐야?
백진희: 아 저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 정도 좀 넣었어요.
박하선: 에이, 안 그래도 돼~
백진희: 아니에요. 그 동안 공으로 먹고 자고 하는 걸 생각하면 더 드려야 되는 데. 얼마 못 넣었어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위 상황은 [명령] 성격의 금지 상황입니까? 아니면 [부탁] 기능의 금지 상황에 해당합니까?
- 동영상에서 나온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두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 사회적 변인이 무엇입니까?
- 동영상에서 나온 금지 표현이 무엇입니까? 같은 상황에서 다른 표현으로 당신이 어떻게 말할 겁니까?
- 당신이 겪었던 금지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 상황에서 고려해야 하는 변인이 무엇이며, 당신이 어떤 표현으로 발화한 겁니까?

준비 단계에서 우선 금지 화행 내용이 담긴 영화나 드라마 영상을 학습자에게 보여 줌으로써 학습 흥미를 유발하고 주제를 도입한다. 백경숙(2005)에서는 화행 교육에 있어서 영화처럼 대사와 스토리가 있는 영상자료의 유용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이야기 구성을 통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다. 둘째, 다른 자료보다 자연언어에 접근하는 사실성이 확보되어 있다. 셋째, 학습자로 하여금 객관적 상황을 스스로 인식시킴으로써 해당 화행을 실제 맥락 속에 보여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물리적으로 상황 설명에 들이는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도 있다. 넷째, 학습자가 화면을 통해서 화행 이행의 실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화 참여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화행의 학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체면 위협 정도가 비교적 높은 금지 화

행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영상 자료를 사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실제 상황에 몰입시켜 금지 화행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동영상 시청 후에 드라마 대사와 동영상 관련 질문을 담고 있는 유인물을 학습자에게 배부한다. 일련의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직접 겪은 금지 상황을 상기시켜 금지 화행 관련 배경 지식을 활성화한다. 학습자가 동영상에서 나온 대화 맥락에 근거하여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를 추측하며, 금지 상황에 작용하는 변인의 종류 및 분류, 그리고 생활에서 흔히 보이거나 사용되는 금지 표현들을 조별로 토론한다. 학습자 3~4명을 나누어서 한 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배경 지식 활성화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금지 화행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개념을 갖추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지 전략을 주제로 하기보다 구체적인 금지 표현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적절하다.

4.4.2. 1차 시연 및 검토 단계

준비 단계를 통하여 학습자가 금지 화행 관련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변인, 금지 표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갖춘 후에 1차 시연 단계로 들어간다. 학습자들은 역할극 활동을 처음으로 접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역할극에 대한 설명이나 활동 지시는 가능한 한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학습자들은 지시에 따라 차질 없이 역할극을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지 상황의 선정은 역할극 진행 과정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상황 선정에 관하여 장미경 외(2008)에서는 문화적인 것과 화행 수행 양상에서 한국어의 특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담화 장면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정민(2011)에서는 고급 단계로 갈수록 역할극 대본을 미리 정하기보다 학습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스스로 상황을 고안

하여 대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 금지 상황 변인에 대한 토론 내용에 기반하여 고급 학습자들이 스스로 적절한 금지 상황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때 교사는 학습자들이 제시한 상황이 실제성이 있는지, 한국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금지 상황 선정 후 교사는 고급 학습자들이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대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가 역할극의 진행 방식에 관하여 소개하고 역할을 배정한 다음에 1차 시연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역할극의 목적은 단순히 대사를 암기하고 기계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참여자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에 있으므로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역할극을 수행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가상 상황에 직접 몰입하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실감나게 출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중 역할을 맡은 다른 조의 학습자들이 역할극을 시청하는 동시에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활동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교사가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시연 기록 활동지는 다음의 <표 Ⅳ-11>과 같이 금지 상황, 핵심 금지 표현, 다른 언어적 표현 등에 따라 만들 수 있다.

<표 Ⅳ-11> 1차 시연 기록 활동지[47]

조별	금지 상황	핵심 금지 표현	다른 언어적 표현
1조			

47) 양우정(2017)에서 역할극을 활용한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을 설계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활동지를 사용하였다. 본고는 이를 참조하여 금지 화행을 위한 역할극 활동지를 제시하였다.

<예시3> 예비 역할극 기록 활동지(양우정, 2017:135)

그룹 별	상황 기록	불평 핵심 내용	다른 언어적 표현
1조			
2조			
…			
6조			

2조			
3조			
4조			
5조			

1차 시연을 통하여 교사는 학습자의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각 학습자들의 화용적 능력을 대체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1차 시연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학습자가 역할극을 처음으로 수행해 보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이 역할극을 수행하는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1차 시연 후의 검토 작업은 한국어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사가 1차 시연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시연 과정에 드러난 학습자들의 화용적 문제점을 밝혀내고 수정해 준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어 문화적 맥락에 대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오류에 대해 교사가 “그것은 틀렸다.”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하기보다 먼저 중국의 문화와 비교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이다(장미경 외, 2008:10). 학습자는 1차 시연에 대한 교사의 검토 내용을 듣고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4.4.3. 교육 단계

교육 단계에서는 교사가 금지 화행에 관련된 보다 전면적인 내용을 학습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교수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교사가 모델 대화를 보여 주고 대화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 사용된 구체적인 전략 및 표현, 그리고 해당 대화에 등장한 언어적 장치들의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준다. 모델 대화를 중심으로 교수 활동을 진행한 후에 체계적인 금지 화행 전략 목록, 금지 표현의 등급화 교육 내용, 금

지 표현과 함께 쓰이는 다양한 언어적 완화장치를 제시하여 해설함으로써 학습자가 머릿속에 금지 화행에 대한 지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금지 화행의 세부 기능 및 화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에 의하여 금지 전략 및 표현이 다르게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며, 실제 발화 시에 문법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지 표현의 의미와 용법, 형태 정보, 문장 구성 정보, 제약 정보, 유사 문법 등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다.

교사가 1차 시연에서 학습자들의 수행 양상을 관찰함으로써 한국인 모어 화자의 사용 양상과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을 예측하고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에 1차 시연에서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발화 양상에 있어서 차이가 예상보다 크게 드러난다면 해당 상황에서 모어 화자의 실제 발화를 예로 들거나 그 상황에서 금지 의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야 청자인 모어 화자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앞 단계에서 1차 시연을 통해 발견된 학습자 금지 화행 수행의 문제점에 가중치를 두어 관련 내용을 교수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습득한 내용을 내재화하고 실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확실하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4.4.4. 2차 실연 및 평가 단계

2차 실연은 학습자가 주어진 상황 속의 가상 인물 역할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학습한 화용 지식을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내면화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1차 시연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상황을 다시 실연하거나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대표적인 금지 상황을 선정하여 역할극을 수행한다. 2차 실연은 본격적인 역할극이므로 시작 전

에 교사가 진지한 활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들이 역할을 정하고 앞 단계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역할극 대본을 작성할 때 어떠한 절차 및 화행을 통하여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관련해서 그룹별로 충분히 논의하고 정리해야 하며(장미경 외, 2008:12), 전체적인 역할극 효과를 위해서 대본을 윤색하는 과정도 거쳐야 한다. 2차 실연이 시작되면 역할극을 수행하지 않는 학습자들이 다른 조의 역할극을 감상하면서 활동지를 작성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학습자의 화용적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아래 <표 Ⅳ-12>처럼 2차 실연 활동지는 역시 교육 단계의 내용을 반영하여 1차 시연 활동지보다 기록되어야 할 항목들이 다양해진다.

<표 Ⅳ-12> 2차 실연 기록 활동지

조별	금지 상황		금지 전략		언어적 장치	
	기능	사회적 관계	전략	표현	내용	기능
1조						
2조						
3조						
4조						
5조						

2차 실연이 끝나면 역할극 수행에 대한 평가 작업이 실시된다. 이 단계에서 내면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그리고 교사평가가 모두 필요하며, 학습자가 역시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평가 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자신이 잘하는 점과 부족한 점, 그리고 거울로 삼을 만한 타인의 장점을 찾아냄으로써 자기를 반성하면서 학습 내용을 재정리하게 된다. 또한, 학습자들은 역할극 활동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학습 내용을 강화·확대시키고 학습 활동에 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이정민, 2011:65).

무대 효과를 확보해야 하는 역할극과 다르게 본 수업은 일상생활에 접근하는 맥락에서의 학습자의 화용 능력을 관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

기 때문에, 금지 화행을 주제로 하는 역할극 효과와의 연관성을 거의 찾을 수 없는 복장, 연기력, 상상력, 유머 등 요소들을 평가 범위에서 제외시키며, <표 Ⅳ-13>과 같이 금지 상황 판단, 전략 및 표현 사용, 언어적 장치 사용 등 3가지 차원에서 학습자의 수행 양상을 평가한다. 즉, 평가자들은 연기자가 해당 장면의 금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였는지, 맥락에 적합한 금지 전략, 표현, 언어적 장치를 운용하였는지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표 Ⅳ-13> 최종 평가 활동지

조별	금지 상황 판단	전략 및 표현 사용	언어적 장치 사용
1조			
2조			
3조			
4조			
5조			

Ⅴ.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나타난 전략 사용 양상과 화용적 실패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한국어 금지 화행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학습자가 금지 화행 수행 시 일어난 발화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주관식 서면 담화완성테스트(DCT)를 사용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SPSS 통계 프로그램 26.0을 활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사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를 통해서는 연구의 가능성을 초보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리커트 척도에 의해서 DCT 금지 상황의 적절성 및 그 상황 속 연구 대상의 금지 발화 의지에 대한 높은 수준을 확보하였다. 본 실험을 위한 문항을 재검토한 후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인 모어 화자 그리고 중국인 모어 화자 세 집단에서 각 5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의 결과는 본고에서 설정한 세 가지의 연구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술한다.

첫 번째 연구 문제는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교하였을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금지 화행 전략 사용 양상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다. 금지 화행 전략 분석에서 주화행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 집단이 '명시적인 금지하기'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이 '대안 제시하기'를 제일 고빈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시적인 금지하기', '수행문 사용하기', '소망 표현하기', '이유/규칙 제시하기', '화자 감정/입장 전달하기', '확인·강조하기/반문하기' 등 6개의 개별 전략 사용에 있어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보조화행의 경우 중국인 학습자들이 보조적인 전략을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빈번하게 사용함으로써 발화의 금지 강도를 낮춰 금지 화행을 조심스럽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 모어 화자보다 금지 화행 전략 및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변인에 따른 분석에서 금지 화행의 세부 기능에 따른 학습자의 전략 사용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상대적 힘은 학습자의 금지 화행 수행에 있어 변인으로 뚜렷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습자 집단이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만큼 사회적 거리라는 변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두 번째 연구 문제는 금지 화행을 수행할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화용적 실패 양상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에 대한 분석에서 화용언어적 실패가 93.5%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용언어적 실패가 요인별로 또 다시 호칭 실패, 통사적 완화장치 실패, 존대법 실패, 관례어 실패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 중에 통사적 완화장치의 부적절한 사용이 화용언어적 실패를 유발한 주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사회화용적 실패는 총 6회 발생하였고 요인에 따라 구체적으로 화청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의 불일치로 인한 실패와 양국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실패로 두 가지 나누어질 수 있다. 또한 한상미(2005)에 의해서 화용적 실패는 모호성 유발과 무례함 유발, 그리고 부적절함 유발 세 가지 의사소통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장애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무례함 유발이었고, 전체의 51.6%를 차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셋 번째 연구 문제는 기존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효율적인 금지 화행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학습자의 금지 화행 전략 사용 양상 및 화용적 실패 양상 분석을 통해 도출한 교육적 시사점을 토대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금지 화행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세웠다. 첫째, 다양한 변인에 따른 금지 상황을 올바르게 인지하여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맥락에 맞게 자신이 의도한 바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금지 화행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해당 전략을 실현시키는 구체적인 금지 표현 및 언어적 장치를 적절히 결합시켜 운용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교육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이에 근거해서 각종 변인에 따른 금지 상황 판단, 한국어 금

지 화행 전략의 체계적 이해, 한국어 금지 표현의 등급화 학습, 언어적 완화장치와 전략의 결합 사용 등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정하였다. 교육 방법으로는 학습자가 한국어 금지 화행 사용에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중국인 학습자의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변영하고 교수할 수 있는 방식인 역할극을 적용하였다. 이어서 역할극의 활동 절차를 준비 단계, 1차 시연 및 검토 단계, 교육 단계, 2차 실연 및 평가 단계로 세분하여 단계별로 교수·학습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점을 지닌다. 첫째, 기존의 한국어 금지 화행 관련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중국인 모어 화자까지 세 집단을 조사하고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인 모어 화자의 금지 화행 수행 양상과 차이가 드러난 원인을 통계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둘째, 기존의 두 편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금지 화행 연구에서는 금지 표현의 기능에만 따라 양상을 살펴봤는데 본 연구는 기능, 사회적 거리, 상대적 힘 세 가지를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금지 화행 전략 사용 양상이 중국인 학습자 집단과 한국인 모어 화자 집단 사이에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고는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최초로 금지 화행에 나타난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양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넷째, 무엇보다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 역할극을 활용한 금지 화행의 교육 내용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수업 모형까지 제안하였다는 데에서 연구의 가치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한국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고에서는 서면 담화완성테스트를 자료 수집 방법으로 사용하였는데 수집된 발화는 실제 구어 발화와 동일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특히, 서면 DCT를 통해 화자의 억양, 표정, 몸동작 등의 비언어

적인 요소를 관찰할 수 없는데 이러한 비언어적 요소도 금지 화행 수행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둘째, 중국 국내 학습자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금지 화행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지 화행에 관련하여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장단점을 밝혀내고 새로운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면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 이 두 가지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금지 화행 기초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국내 논저

강명순(1999), 과제 수행 중심의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강소아(2017), 일본인 학습자 대상 거절 화행에 나타난 화용적 문제 연구: 중·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강연주(2018),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문제 인식 연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란(1998), 한국어 금지 표현의 형식과 기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1999), 한국어 금지 표현의 교수 방법, 한국어 교육, 10-2, 172~193.

김유정(199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교육: 문법 항목 선정과 단계화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9-1 , 19~36.

김재욱(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 교육 문법 내용의 영역, 등급과 순서 제시, 문법교육, 10, 65~91.

노유경(2016), 완화적 표현 교육 내용 연구: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백경숙(2005), 화행 교육을 위한 제언, 영어교육연구, 17-4, 251~288.

성은실(2010), 한국어 금지 화행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성천(2019),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금지화행 사용 양상 연구: 공손 전략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손세모돌(2009), 중국 출간 한국어교재의 화용론적 오류 분석, 국제어

문, 47, 129~171.
송경숙(2005), 담화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신상현(2013), 여성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의 한국어 구어 발화에 나타난 의사소통 문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아노다리(2021),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2인칭 상대 높임대명사의 교육 방안 연구: '당신'을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우정(2017),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염수(201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오카무라 카나(2014),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사 화행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강순(2007), 일본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 연구: 전략과 표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경숙(2012),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서 나타나는 화용적 실패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희(2014a),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간접 금지 표현 연구, 이중언어학, 55, 286~312.
_____(2014b), 한국어 화행 교육론, 한국문화사.
_____(2015), 한국어 금지 화행 전략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 한국어 화자의 중국인 학습자의 전략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49, 135~162.
_____(2016), 한국어 화행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간언어 연구: 학습자 모어에 따른 금지 화행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53, 49~72.
이정란(2010),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발표 담화에 나타난 화용적 문제 연구, 이중언어학, 42.
이정민(2011), 한국어 말하기 교재 속 역할극 활동의 구성 방안,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찬규·노석영(2012),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울타리 표현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21-0, 245~286.
이해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2), 비교문화적 화용론에 기초한 한국어의 화용 교육, 이중언어학, 21, 46~70.
장미경·강인범·박종우·김서형(2008), 영어권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화행 교육 모형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19-2, 1~25.
張奭鎭(1987), 오스틴, 서울大學校出版社.
주방(2017), 중국어권 남성 한국어 학습자의 여성 선호적 표현 사용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지은(2015),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칭찬과 칭찬 반응 화행에 나타나는 화용적 문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팜밍리(2017),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금지 표현 교육 연구: 청자 체면 위협 사례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상미(2005), 한국어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 연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적 실패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12),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담화에 나타난 화용적 문제 연구: 담화표지 사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4, 441~470.
호가옥(2018),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집단 토의 교육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선영(2014), 요청 화행에서 상호작용 정도에 따른 어휘적 완화 장치 사용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 147-0, 431~454.

2. 국외 논저

Austin, J. L.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Bachman, L. F. (1990). *Fundamental Considerations in Language Testi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Blum-Kulka, S. & Olshtain, E. (1984). Requests and Apologies: A Cross-Cultural Study of Speech Act Realization Patterns(CCSARP). *Applied linguistics, 5*(3), 196-213.

Blum-Kulka, S. House, J. & Kasper, G. (1989).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s and Apologies*. New Jerse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Brown, P. & Levinson, S. C. (1978).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Politeness Phenomena. *In Questions and Politeness: Strategies in Social Interaction,* 56-311.

Brown, P. & Levinson, S. C. (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msky.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Dougil, John. (1987). *Drama Activities for Language Learning.* London: Macmillan.

Edmonson, W. & House, J. (1991). Do Learners Talk Too Much?: The Waffle Phenomenon in Interlanguage Pragmatics. *Foreign/Second Language Pedagogy Research,* 273-286.

Ellis, R. (1985). *Understanding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Grice, H. (1975). Logic and Conversation. *Speech Acts*, 41-58.

Goffman, E. (1967). On Face-work. *Interaction Ritual*, 5-45.

Golato, A. (2003). Studying Compliment Responses: A Comparison of DCTs and Recordings of Naturally Occurring Talk. *Applied Linguistics, 24*(1), 90-121.

Hymes. (1972). *On Communicative Competence.* Harmondsworth: Penguin Book.

Kasper, G. (1997). *Can Pragmatic Competence Be Taugh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Second Language Teaching & Curriculum Center.

Lakoff, R. (1973). Language and Woman's Place. *Language in Society, 2*(1), 45-79.

Leech, G.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Routledge.

Littlewood, W. (1981).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omas, J. (1983). Cross-cultural Pragmatic Failure. *Applied Linguistics, 4*(2), 91-112.

부록

<부록1> 예비 조사 설문지 예시

상황1

당신은 회사 상사입니다. 근무 시간에 어떤 직원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직원에게 근무 시간에 허락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도록 말하려고 합니다.

1) 위 상황이 한국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2) 위 상황에서 당신은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발화하겠다는 의지가 높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3) 이 경우 당신은 부하 직원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한 번 쓰십시오.

_____

<부록2> 본 조사 설문지

금지 화행 양상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금지 화행에 관한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습관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는 통계 처리되어 본인의 석사 학위 논문에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그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화자의 신분과 발화 상황을 확인하신 후에 답을 써 주십시오.
❖ 평소의 언어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적어 주시고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 생각나신 것을 바로 써 주십시오.
❖ 제시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없더라도 상황을 상상하여 답을 써 주십시오.
❖ 모든 상황(총 10개)에는 반드시 말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시킵니다.

您好！

非常感谢抽出宝贵的时间参与此次调查问卷。本问卷旨在了解韩语学习者禁止言语行为的使用情况。问卷的统计处理将用作论文研究资料，除此之外不作它用。
再次感谢您的配合。

注意事项：

1. 所有情景（共10个）以说话为前提，并且请用韩国语作答。
2. 回答前请确定发话者的身份和具体情景。
3. 对于以下情况，如有相似经历，请依据经历作答，若无相似经历，请想象一下，尽可能自然作答，无需考虑过多，答案没有对错之分。

성별 1. 남 2. 여

상황1: 동아리 활동실에서 아는 후배에게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말함

당신은 동아리 선배입니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실에서 음식물 취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활동실에 들어갔을 때 아는 후배가 배달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 후배에게 활동실에서 음식을 먹지 말도록 말하려고 합니다.

（你是社团前辈。为保持环境整洁社团活动室内禁止饮食。今天当你进入活动室时，你认识的一个后辈点了外卖正在吃。你该怎么禁止这种行为？）

이 경우 당신은 후배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2: KTX에서 뒤에 앉은 사람에게 내 의자를 차지 말 것을 말함

당신은 KTX 시간에 대느라 일찍 일어나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뒷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자꾸 당신의 좌석을 발로 차서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게 의자를 차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당신은 뒤에 앉은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情况2：你今天早起赶高铁很没有精神。高铁上坐在你后面的一个女生时不时用脚踢你的座椅，导致你无法好好休息。你希望她不要再踢你的座椅了，你会怎么说？）

이 경우 당신은 옆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3: 아르바이트하는 편의점 점장에게 폭설 날에 운전하지 말 것을 말함

당신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가 마무리되어서 편의점 점장은 차를 갖고 귀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밖에 폭설이 쏟아져 길이 미끄럽고 교통이 매우 복잡합니다.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점장에게 이런 날에 차를 운전하지 말도록 말하려고 합니다.

（你在便利店兼职。与你换班完成后便利店店长就准备开车回家。但是现在外面正在下暴雪，路很滑交通状况也很复杂，发生交通事故的可能性非常高。你想劝店长在这种恶劣天气不要开车，你会怎么说？）

이 경우 당신은 편의점 점장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4: 학생에게 연구실 자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

당신은 연구실 실장입니다. 이미 배정된 연구실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이 당신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 다른 학생에게 자리를 양도하였습니다. 그 학생에게 자리를 양도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你是研究室室长。按照研究室的规定，已经分配好的座位不可以转让给他人。但是有学生在未告知你的情况下私自将研究室座位转让给他人。你该怎么禁止这种行为？）

이 경우 당신은 그 학생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5: 선배에게 심한 장난을 하지 말 것을 말함

친하게 지내는 어떤 선배가 요즘 자주 당신에게 심한 장난을 칩니다.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그 선배가 심각성을 의식하지 못하며 혼자서 재미있어 합니다. 가벼운 장난은 웃어넘길 수 있지만 이런 심한 장난은 해가 되어 당신을 불쾌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친한 선배에게 심한 장난을 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跟你关系不错的一个前辈最近经常对你开一些过分的玩笑。这些玩笑触碰到了你的自尊心，但是那位前辈可能并没有意识到并且觉得很有趣。如果是很轻松的玩笑可以一笑而过，而过分的玩笑会让你感到很不愉快。你希望那位关系亲近的前辈不要再开过分的玩笑，你会怎么说？）

이 경우 당신은 그 선배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6: 카페 직원에게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말 것을 말함

개인적인 식습관상 당신은 매우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지 않습니다. 여름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싶은데 얼음을 많이 넣는 것을 원지 않습니다. 당신은 카페 직원에게 음료수에 얼음을 많이 넣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由于个人的饮食习惯，你并不会经常吃非常冰的食物。在夏天非常炎热的天气里，你想喝一杯凉爽的饮料，但是并不希望店员在饮料里放太多冰块，这时你会怎么说？）

이 경우 당신은 카페 직원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7: 친한 친구에게 법 먹듯이 술을 많이 마시지 말 것을 말함

며칠 전에 여자 친구와 헤어진 친한 친구가 슬픈 마음을 달래려고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건강도 폭음 때문에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더 이상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几天前和女朋友分手的一位朋友最近一直在借酒消愁。健康状况也因为过度饮酒而变得很糟糕。你希望朋友不要再继续酗酒，你会怎么说？）

이 경우 당신은 친한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8: 손님들에게 피팅룸 동반 입장하지 말 것을 말함

당신은 옷가게의 직원입니다. 가게에서 피팅룸 동반 입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 두 명이 한 피팅룸에 같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손님들에게 동반 입장하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你是服装店的职员。服装店规定试衣间禁止两人及以上同时进入。这时候有两位客人想要同时进入同一间更衣室，你会怎么劝说顾客？）

이 경우 당신은 손님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9: 공공장소에서 친구에게 내 별명을 부르지 말 것을 말함

친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꾸 당신의 별명을 부릅니다. 친구끼리 괜찮지만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별명은 무척 수치스럽습니다. 당신은 친구에게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별명을 부르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你有一个朋友经常不分场合叫你的外号。朋友之间还好，但是在公共场合被叫外号会很不好意思。你希望那个朋友以后在公共场合不要叫你的外号，你会怎么说？）

이 경우 당신은 친구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상황10: 내 생일날 후배에게 배달을 시키지 말 것을 말함

당신의 생일날에 여러 친구와 후배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요리를 워낙 잘하는 당신은 저녁을 푸짐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당신한테서 도움을 받았던 한 후배가 다 같이 먹자고 배달도 시키려고 합니다. 음식을 다 먹지 못해 돈이 괜히 쓸까 봐 당신은 그 후배에게 배달을 시키지 말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在你生日这天邀请了几位朋友和后辈来家里准备开派对。为了这次派对，本来就擅长料理的你正在准备丰盛的晚餐。之前有接受过你帮助的一名后辈想要点一些外卖大家一起吃，但是你怕食物太多吃不了反而会浪费钱。你想让这个后辈不要点外卖，你会怎么说？）

이 경우 당신은 후배에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Abstract

A Study of Teaching Plan on Prohibition Speech Act for Chinese Korean Learners

ZHOU JI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ffective education teaching plan about prohibition speech act for Chinese Korean learners by identifying their interlanguage features.

In Chapter I, first the author clarified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and presented the research questions in detail. Subsequently,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prohibition speech act and pragmatic failure, this study revealed the problems of previous studies. Finally, the author clarified the research methods of this study. The author used a short-answer written Discourse Completion Test(DCT) to collect 150 questionnaires from three groups of Chinese Korean learners, Korean native speakers, and Chinese native speakers. Then the author compared Chinese Korean learners' Korean performances with Korean native speakers and Chinese native speakers.

In Chapter II, the theoretical background supporting the discussion

of this study was argued from three aspects that were the theory of speech act, the theory of politeness principle, and the theory of pragmatic failure. Through this, the author explained the type of prohibition strategies and expressions that this study concentrated on and set the analysis frameworks of prohibition speech act and pragmatic failure.

In Chapter III, first of all, variables for designing prohibition situations of DCT were built, and then the preliminary questions were supplemented and revised through preliminary experiments to finally confirm the questions of this study. Subsequently, the section of analyzing prohibition strategies were divided into three parts in detail. It contains the overall analysis for each group, the analysis according to variables, and the analysis for each situation. Among them,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variables was again subdivided into function, social distance, and relative force. As a result, in the case of head act, Korean native speakers preferred the strategy of 'proposing alternatives' the most, while Chinese Korean learners used 'explicit prohibition' the most frequently. There were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use of many individual strategies. In the case of adjunct to head act, it was revealed that Chinese Korean learners tended to carefully perform the prohibition speech act by using more auxiliary strategies than Korean native speakers. Among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prohibition speech act, it was confirmed that 'relative force' played the greatest role in the choice of prohibition strategies for Chinese Korean learners. The analysis of pragmatic failure was largely classified into two parts that were pragmalinguistic failure and sociopragmatic failure, and then proceeded in detail according to specific factors that caused pragmatic failure. As a result, it was

investigated that Chinese Korean learners were struggling in both terms of pragmalinguistic use and sociopragmatic use, and the improper use of pragmalinguistic elements, especially syntactic mitigation devices, was the main factor that caused Chinese Korean learners' pragmatic failure in prohibition speech act.

Chapter IV, based on the discussion(the problems revealed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prohibition speech act) in Chapter Ⅲ, the author set the goal of prohibition speech act education for Chinese Korean learners and suggested educational contents in four ways that were the proper judgement of contexts based on variables, systematic understanding of Korean prohibition strategies, grading learning of Korean prohibition expressions, combined use of linguistic mitigation devices and prohibition strategies. In addition, the author presented a specific class model using role-play, and an educational method that could effectively enhance Chinese Korean learners' pragmatic abilities.

In Chapter V, the author summarized the results and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it thoroughly clarifies Chinese Korean learners' performance of prohibition speech act. And the value can be found that it attempts to analyze Chinese Korean learners' pragmatic failure in prohibition speech act for the first time and prepares a specific education plan on prohibition speech act for Chinese Korean learners.

* **Keyword** : Korean language education, speech act education, prohibition speech act, Chinese Korean learners, pragmatic failure

* **Student Number** : 2019-21539